



인천 서구의 생활 길과 교통으로



인천 서구의 길과 교통을 중심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쉽게 배울 수 있는
어린이·청소년용 참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원장 정군섭입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일은 자신이 살아가는 공간을 깊이 이해하고, 애정을 가지는 데 중요한 과정입니다. 초등학교 3~4학년 사회 교과과정에서도 학생들은 우리 마을의 역사, 문화, 경제 등을 배우며 지역을 탐구하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나 이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이에 우리 서구문화원에서는 우리 지역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지역화 교육 참고서 『인천 서구의 생활-길과 교통을 중심으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길과 교통은 단순히 이동의 수단이 아닌, 우리 지역의 발전과 생활상을 담고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구의 길과 교통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본 참고서를 통해 학생들이 지역 특성을 깊이 있게 배우고, 나아가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키울 수 있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이 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력과 협력이 있었습니다. 제작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 책이 우리 아이들에게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심어주는 소중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장 정 군 섭



사통팔달 교통중심 서구!
지역화 교육 참고서가 길과 교통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청장 강범석입니다.

『인천 서구의 생활-길과 교통을 중심으로』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화 교과서는 인천 서구를 비롯해 인천 남동구와 서울, 부산, 춘천 등 지역 곳곳에서 발간되어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올해 지역화 교육 참고서의 주제는 ‘길과 교통’으로 현재 서구가 놓인 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지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는 도시개발과 분구 추진 등으로 길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길이나 교통수단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발전과 화합, 변화하는 시기에 놓인 만큼 본래의 것을 잃지 않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하는데, 본 참고서는 서구의 길과 교통의 과거, 현재, 미래를 잘 보여주고 있어 지역에 의미 있는 자료로 기억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학교나 연구 현장에서 우리 서구, 우리 지역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대표 지역화 교육 참고서가 될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화 교육 참고서 『인천 서구의 생활-길과 교통을 중심으로』 축하드리며, 지역문화·지역 자원 연구와 활성화에 노력하는 인천서구문화원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지역의 역사와 변화를 담은 교육 참고서가 발간되어,
어린이·청소년들이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키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의장 송승환입니다.

서구를 훑아보는 서구문화원의 새로운 역작 『인천 서구의 생활-길과 교통을 중심으로』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구라는 책이 차곡차곡 쌓여 갈 때마다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의 지역에 대한 이해와 사랑도 함께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뜻깊은 작품을 만들어 주신 서구문화원 정군섭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지역화 참고서는 길과 교통을 중심으로 서구의 생활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길과 교통망이 없는 도시의 발전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서구의 너른 들판과 바다 위에 길이 놓이고 건물이 들어서서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과정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으로도 지역의 역사와 공간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좋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교재에는 법정동과 행정동의 구분부터 각 동을 관통하는 주요 도로와 명칭의 유래까지 세심하게 담겨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길과 교통은 단순히 물리적인 연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연결을 통해 흐름을 만들고 흐름 위에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이제는 인천대로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경인고속도로와 국가 경제를 일으킨 수출입의 관문인 북항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청라·루원·검단의 신도시를 지탱하는 주요 교통망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구의 공간에는 대한민국의 변화와 발전이 함께 하고, 세계라는 드넓은 공간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번 참고서를 통해 우리 서구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멋진 인생을 꿈꾸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뜻깊은 참고서를 만들어 주신 서구문화원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송 승 환



학생들에게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소중한 길잡이가 되어,
미래를 잇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공감·존중으로 행복한 서부 교육을 지원하는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용렬입니다.

우리 서구는 가좌, 석남, 가정, 신현 등 원도심과 루원, 청라, 검단 등 신도시가 공존하여 살아가는 지역입니다. 원도심은 아직 재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옛날 그대로의 집들과 문화유산 사이로 작은 골목 골목이 정겹게 남아 있습니다. 신도시는 하루 하루가 다르게 개발되고 있으며 급격하게 늘어나는 인구 증가와 함께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변화에 발맞추어 서구 문화원에서 서구의 역사와 전통, 경제, 교통 등을 망라한 『인천 서구의 생활』이라는 우리 학생들은 위한 지역화 교육 참고서를 만드는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역사를 잇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기록한다는 것’ 이는 과거를 토대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우리 마을의 역사를 알아간다는 것은 미래 자신의 삶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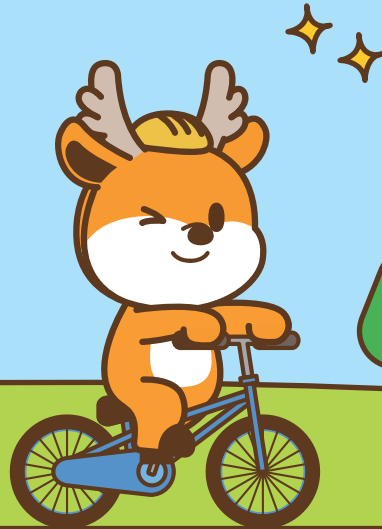
우리 마을의 역사를 기록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학생들이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지역의 모든 것을 보다 세밀하게 관찰하고 체험하는 과정에서 『인천 서구의 생활』은 보다 풍부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소중한 우리 마을에 대하여 더 많이 알아가고 우리 지역의 특성과 정취를 새롭게 발견하며 추억을 쌓아, 후일에도 자신이 살던 마을에 애정을 갖고,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원도심과 신도시가 공존하는 우리 지역에서 『인천 서구의 생활』은 학생들에게 지역을 알아가는 소중한 길잡이로 미래를 잇는 역사가 되고, 학생들의 마음속 고향이 되어 성장해 나가는 밑거름으로 빛나기를 기원하면서 이러한 훌륭한 자료를 만들어 주신 서구문화원 정군섭 원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임 용 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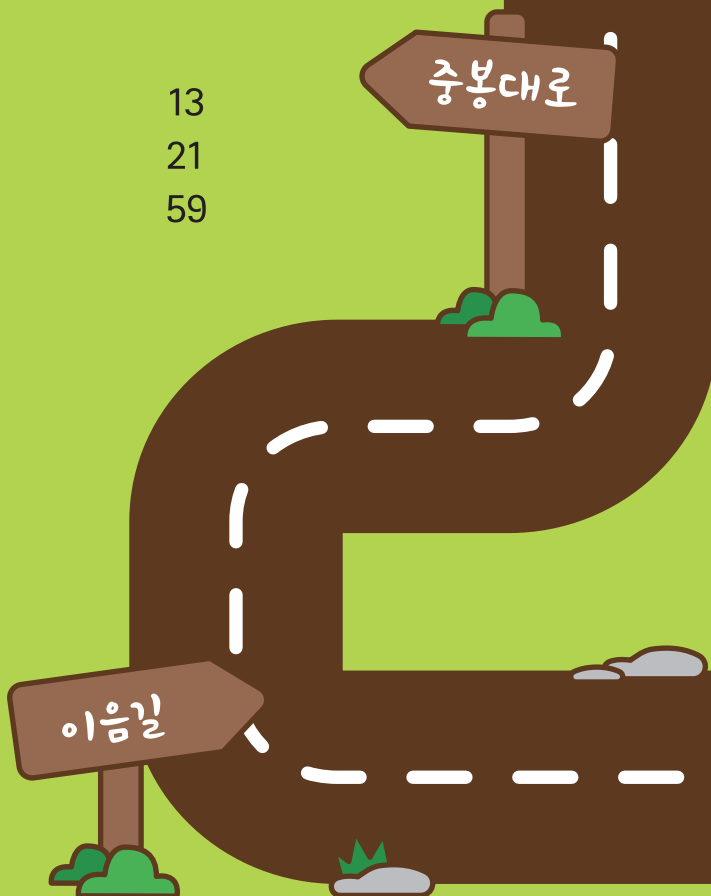
인천 서구의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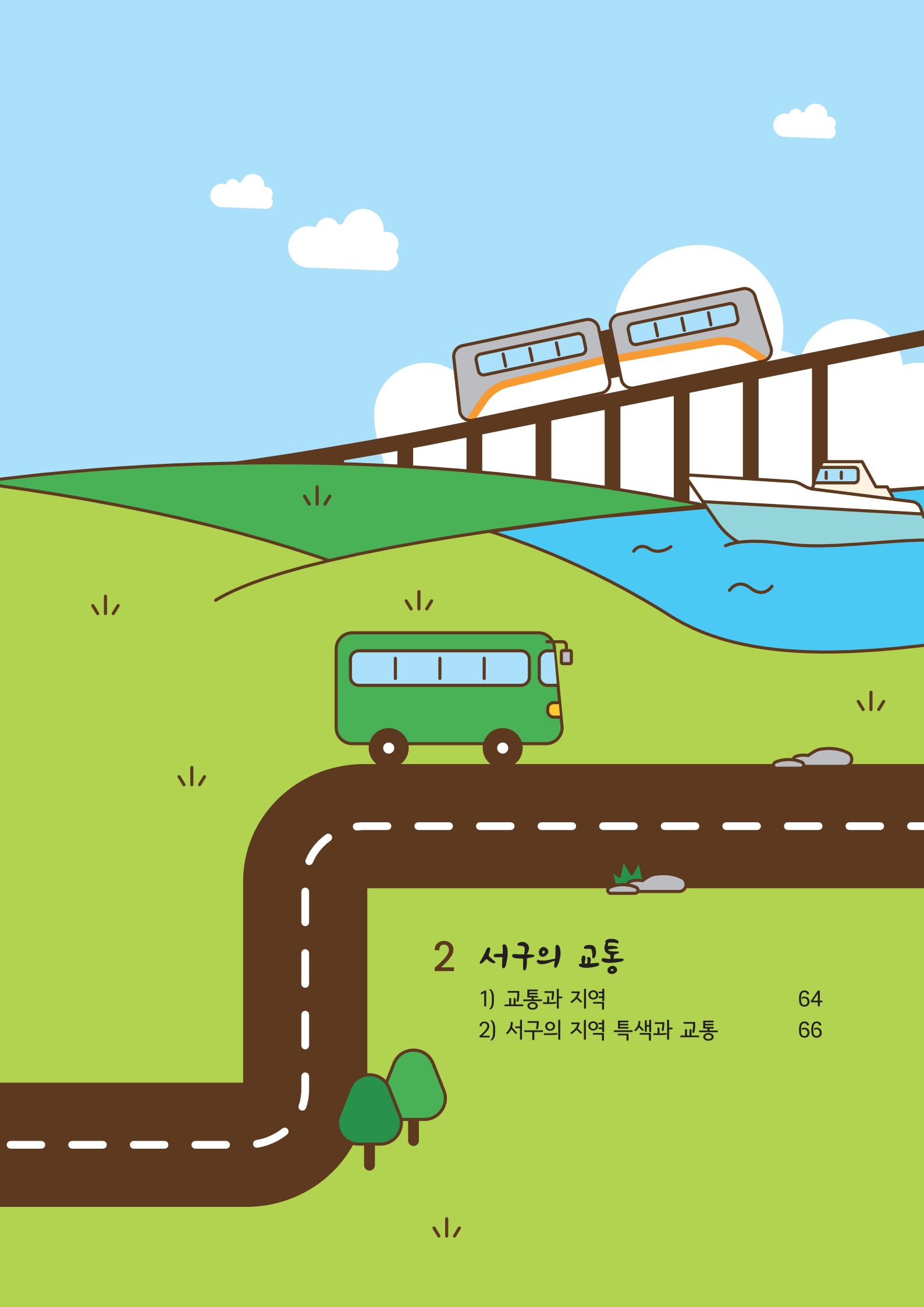
길과 교통으로



1 서구의 길

- | | |
|-------------|----|
| 1) 서구의 대로 | 13 |
| 2) 우리 마을의 길 | 21 |
| 부록) 서구의 옛길 | 59 |





2 서구의 교통

- | | |
|------------------|----|
| 1) 교통과 지역 | 64 |
| 2) 서구의 지역 특색과 교통 | 66 |

1

서구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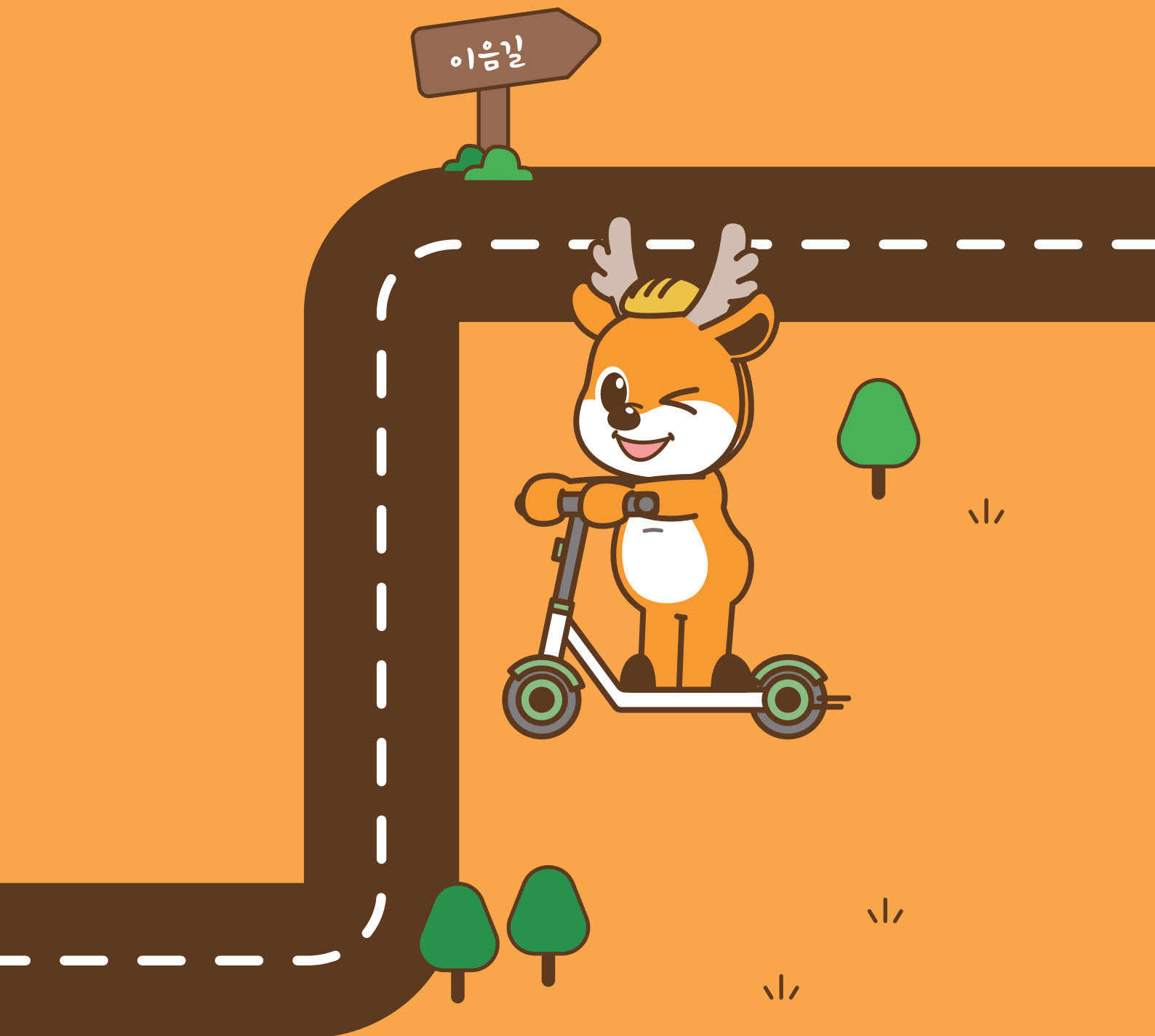
영상으로 배우기



1) 서구의 대로

2) 우리 마을의 길

부록) 서구의 옛길





서구의 길



아래 빈 칸에 여러분 집의 도로명 주소를 쓰세요.

시

구

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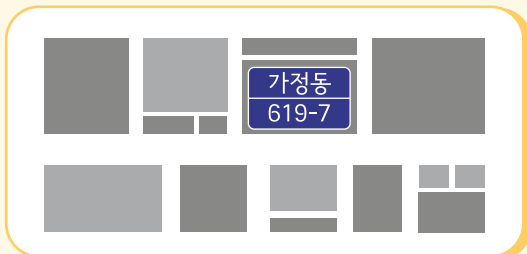
상세주소

도로명 주소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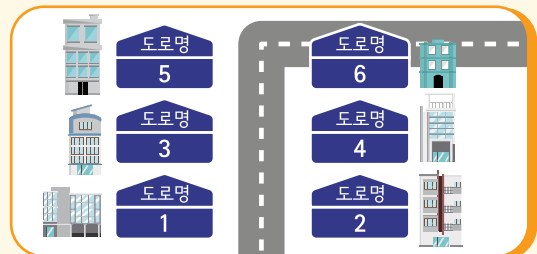
건물의 주소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제일 먼저 시와 구를 쓰고 이어서 도로명과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동, 층, 호)를 쓰는 주소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지번 주소를 사용했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도로를 기준으로 건물에 번호를 매긴다면 지번 주소는 땅에 번호를 매겨 주소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지번 주소는 1910년 대한제국이 멸망한 이후 일제가 실시한 토지조사사업 이후 만든 주소제도입니다.

지번 주소도 처음에는 규칙성이 있어서 길 찾기가 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규칙은 깨지고 복잡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1번지에 속한 땅을 10명이 나누어 소유하고 있으면 1-1, 1-2, ... 1-10 이런 식으로 지번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1-1 땅의 소유자가 땅을 나누어 팔게 되면 그 땅은 1-1과 1-11으로 나뉘어집니다. 만일 다른 마을 사람이 1-11번지를 찾게 된다면 1-10 주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지번 주소



도로명 주소

이런 이유로 2014년 법령에 의해 도로명 주소 제도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지번체계가 오랫동안 사용해 익숙한 터라 현재까지도 민간에서는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함께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명(길의 이름)은 어떻게 정할까요?

모든 것에 이름이 있듯이 길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사람들이 불려서 굳어진 이름도 있고 새로 만든 이름도 있습니다. 서구는 매립을 해서 생긴 땅에 새로 생긴 길도 있고, 좁은 길을 크게 넓힌 길도 있습니다. 새로 생긴 도로에는 새로 이름을 정합니다.

도로명은 길 주변의 땅이름과 지역의 특성, 역사성,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모두 고려하여 시·군·구청의 ‘도로명주소정보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시·군·구청장이 공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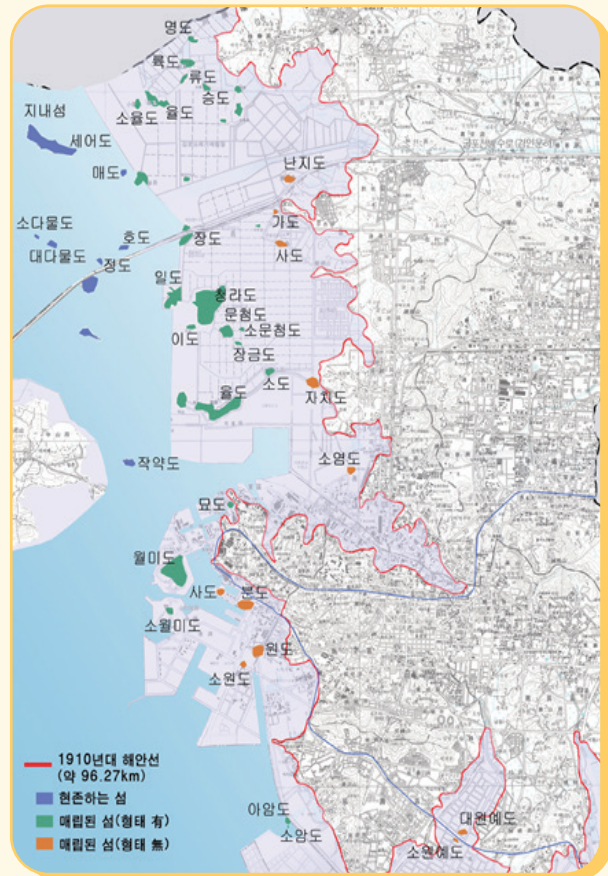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면 길 찾기가 쉬워지고 현재 위치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도로명 주소로 우리 집과 학교의 위치를 알아봅시다.

매립으로 달라진 서구의 해안선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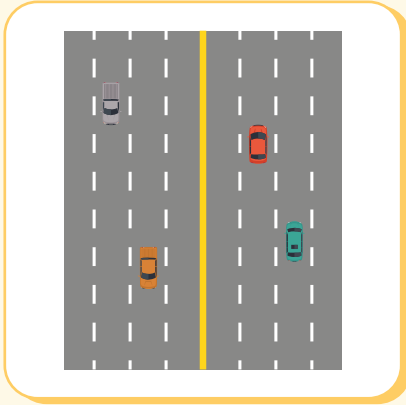
출처 : 서구사(2014)

길의 이름은 길의 폭(넓이)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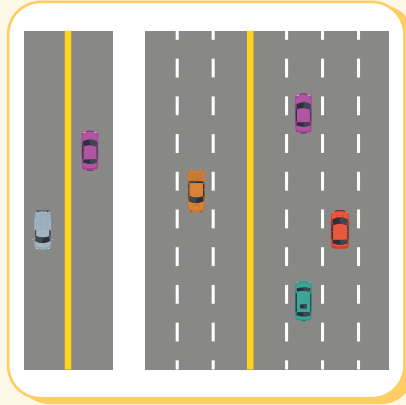
대 로 도로의 폭이 40m 이상이거나 왕복 8차로 이상인 도로

로 도로의 폭이 12m 이상 40m 미만이거나 왕복 2차로 이상 8차로 미만인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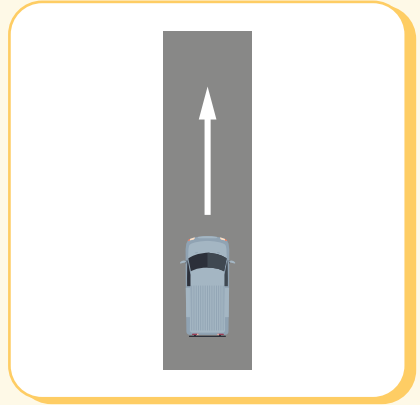
길 그 외의 도로



대 로



로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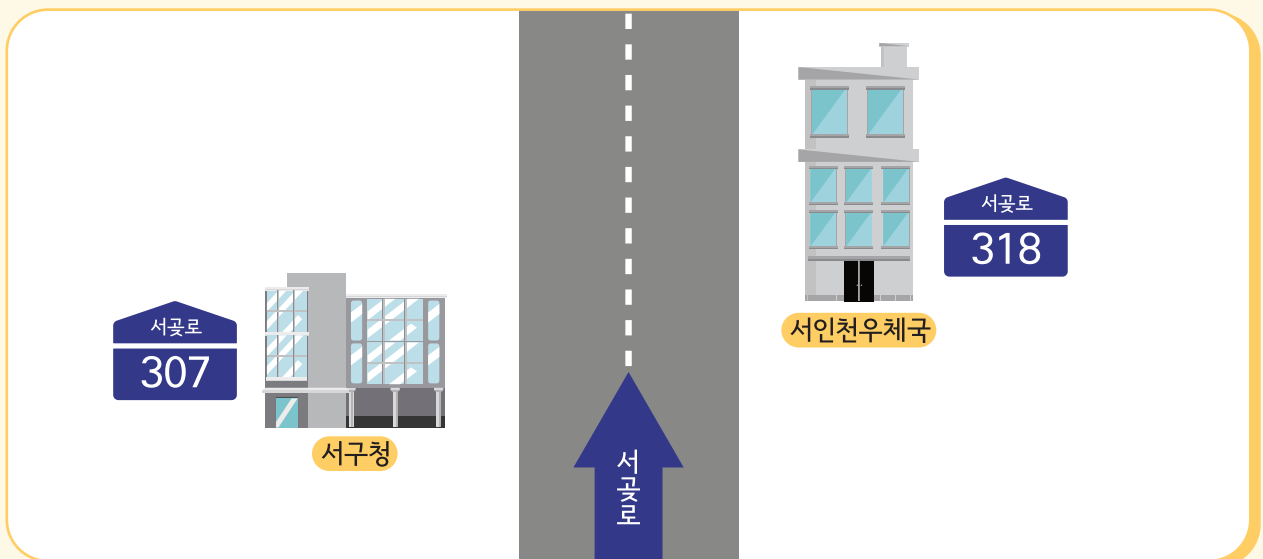
건물번호에는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도로 시작점을 기준으로

도로의 왼쪽 건물은 홀수로, 오른쪽 건물은 짝수로 표기합니다.

예시) 인천광역시 서구청의 주소는 서곶로 307입니다.

서인천우체국의 주소는 서곶로 318입니다.



1. 서구의 대로

서구에는 모두 10개의 대로가 있어요.



서구를 남북으로 지나는 대로 중봉대로, 봉수대로, 인천대로

서구를 동서로 지나는 대로 경명대로, 봉오대로

서구 안의 대로 동서 : 이음대로, 원당대로, 경인항대로, 국제대로
남북 : 청라대로

길 이름에는 우리 고장 서구의 옛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서구를 남북으로 지나는 대로

1) 중봉대로

중봉대로는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송현사거리에서 시작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경서삼거리까지 연결된 길이 8.15km의 대로입니다.

중봉대로가 지나는 서구의 마을은 경서동, 청라동, 원창동, 석남동, 가좌동, 왕길동, 오류동, 금곡동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금산전투에서 칠백 의병과 함께 전사한 의병장 조현의 호 '중봉'을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2) 봉수대로

봉수대로는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송림삼거리에서 시작하여 서구 여러 마을을 거쳐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구래리까지 연결된 길이 18.18km의 대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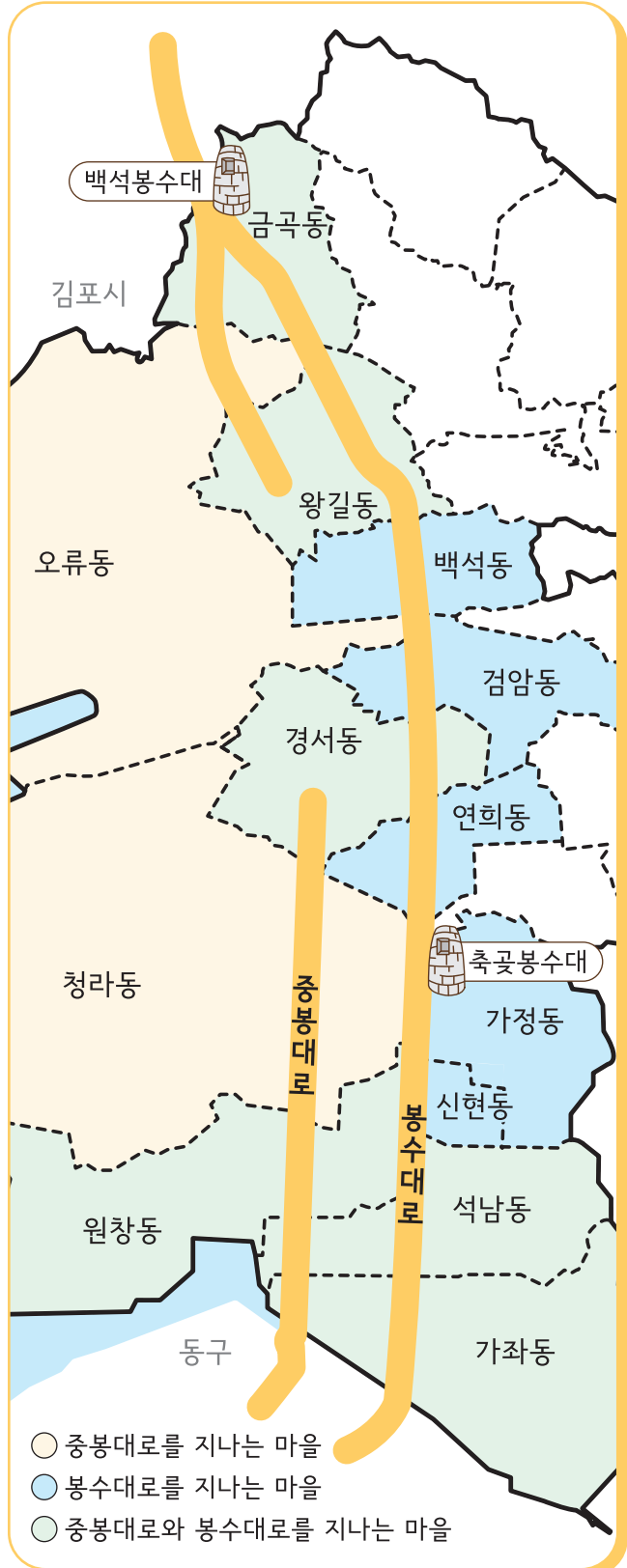
봉수대로가 지나는 서구의 마을은 가좌동, 가정동, 석남동, 신현동, 원창동, 연희동, 경서동, 검암동, 백석동, 왕길동, 오류동, 금곡동입니다.

축곶 봉수지역과 백석 봉수지역을 관통하는 도로로 옛 지명을 따서 붙인 이름입니다.



봉수대란?

불을 피워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지방의 긴박한 상황을 중앙에 알리는 통신 시설이다. 주로 신호가 멀리서도 잘 보이도록 시야가 탁 트인 산꼭대기에 설치되었다.





<중봉 조헌장군과 울도 이야기>

중봉 조헌은 김포에서 태어났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거쳐 종6품 통진 현감으로 왔는데 죄를 지은 노비를 죽인 일로 벼슬에서 쫓겨나 부평으로 귀양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벼슬길에 올라 한양으로 가던 중 조헌은 오갈 데 없는 김씨 성을 가진 총각을 거두어 집에 데려와 함께 살다 나중에 결혼도 시켜주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 예견한 조헌은 김총각을 시켜 울도에 집 두채를 짓고 산자락을 깎아 바다를 매립하여 논과 밭을 일구어 농사를 짓는 등 황무지를 개간하도록 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헌은 자기 가족과 김총각 처가 식구들을 울도로 피난가게 하고 스스로는 일본과 싸우기 위해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조헌은 여러번의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결국 1592년 8월 16일 금산전투에서 700명의 의병과 함께 순국하였습니다. 조헌의 또 다른 호인 '후율'을 따 '울도'라고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 통진 : 지금의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 현감 : 조선시대 지방행정구역 단위였던 현(縣)의 종6품직 관직

3) 인천대로

인천대로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인천나들목)에서 시작하여 서구 가정동 (서인천나들목)까지 연결된 총 10.45km의 대로입니다.

원래는 서울과 인천을 잇는 경인고속도로의 일부였는데 2017년 12월 1일 해당 구간이 일반도로로 바뀌며 2018년 정식으로 인천대로라는 도로명을 붙였습니다. 인천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도로의 상징성을 반영하여 지은 것입니다.

경인고속도로로 사용했을 때는 출입로가 도화나들목(IC), 가좌나들목(IC), 서인천나들목(IC) 세 군데였지만 일반도로로 바뀌고 나서는 미추홀구 용현동의 인하대학교 주변과 미추홀구 주안산업단지, 동구방축고가교, 서구 석남 2고가에 진출입로가 생겨 도로 이용이 편리해졌습니다.



경인고속도로 기공식



1967년

경인고속도로 개통식



1969년

그러나 경인고속도로로 인하여 인천의 시가지가 단절되었습니다.

처음 경인고속도로를 개통했을 때만 해도 서구의 고속도로 서쪽 지역은 거의 갯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갯벌을 매립하여 공단이 들어서면서 외부로부터 인구의 유입이 많아져 급속하게 도시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도시 중앙에 고속도로가 자리잡은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도시가 단절된 것이었습니다. 같은 서구에 살아도 바로 앞 고속도로 건너편 마을에 가려면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육교를 찾아 먼 길을 돌아서 가야 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난 소음 등 환경문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또한 인근에 청라국제도시와 루원시티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며, 진입 차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교통체증이 자주 발생하여 경인고속도로는 고속도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1일 경인고속도로 인천 구간은 인천시가 관리하는 일반화 도로로 바뀌었고 새로 도로명을 인천대로라 정했습니다.



경인고속도로에서 인천대로까지

경인고속도로는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입니다.

1962년 시작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은 경공업 중심의 수출경제입니다. 사람이 많은 대도시 서울과 인천에 수출공단이 들어섰습니다. 생산된 제품은 인천항을 통해 수출했는데 도로의 사정도 인천항의 사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967년 3월 서울과 인천 간 경인고속도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경인고속도로에는 총예산 33억 8,000만 원에 중장비 8만 대, 연인원 87만 명의 노동력이 투입되었습니다. 1968년 12월 인천 서구 가좌동 구간에서 서울 영등포 구간이 먼저 개통되었고 이어서 1969년 7월 가좌동에서 용현동을 거쳐 인천항 제2도크¹⁾ 입구까지 구간이 개통되었습니다.

경인고속도로의 개통은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 했고 인천의 도시발전도 촉진 시켰습니다.

1) 도크 : 건조된 선박을 바다에 띄울 수 있도록 해주는 시설

서구를 동서로 지나는 대로

1) 경명대로

경명대로는 인천광역시 서구 북인천IC에서 시작하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박촌교삼거리까지 연결된 길이 14.1km의 대로입니다. 경명대로가 지나는 서구의 마을은 경서동, 청라동, 연희동, 공촌동입니다.

경명대로는 서구와 계양구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서구와 계양구에 사는 사람들은 계양산과 천마산 사이 징맹이고개를 넘어 오갔습니다. 징맹이고개를 경명현이라고도 했는데 경명대로는 경명현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경명대로가 개통이 되면서 서구와 계양구를 오가기가 더욱 쉬워졌습니다.

2) 봉오대로

봉오대로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중봉로 교차로에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까지 연결된 길이 15.59km의 대로입니다. 봉오대로가 지나가는 서구의 마을은 청라동, 원창동, 가정동입니다.

서구의 봉수대 부근을 지나므로 봉수대의 '봉'과 도로의 끝지점인 오정구의 '오'를 합쳐서 만든 이름입니다.



서구 안의 대로

1) 이음대로

이음대로는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에서 당하동까지 이어지는 길이 5.52km의 대로입니다. 신도시와 구도심을 이어주고 환경과 사람을 이어준다는 의미에서 도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음대로가 지나가는 서구의 마을은 불로동, 원당동, 당하동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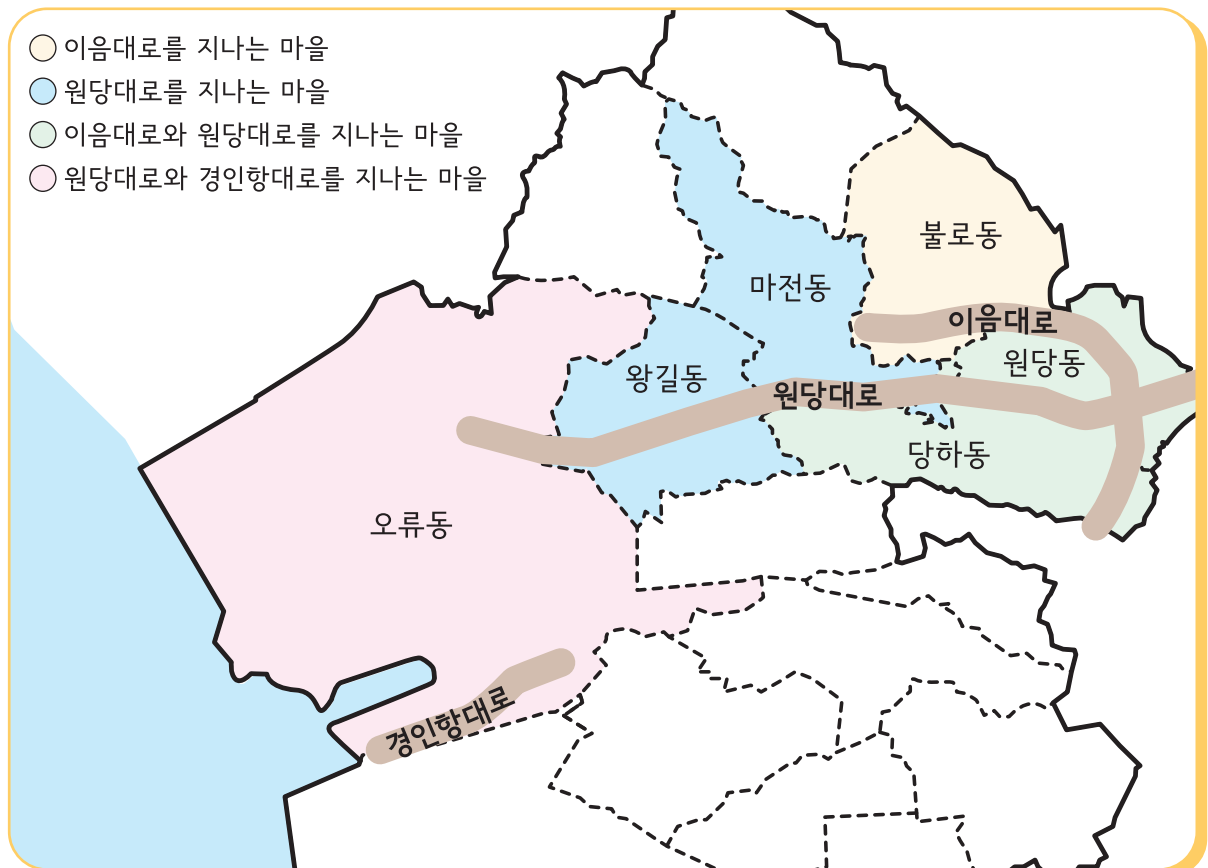
2) 원당대로

원당대로는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검단천변에서 시작하여 원당동 동쪽 유현사거리까지 가는 길이 10.93km의 대로입니다.

2002년 검단택지지구 개발 사업으로 구릉지대였던 원당동 일대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원당대로가 지나가는 서구의 마을은 오류동, 왕길동, 마전동, 당하동, 원당동입니다. 원당이란 당이 있는 마을, '으뜸 되는 당이 있는 마을'이란 뜻입니다. 2000년대 들어 대단지 아파트 건설을 하기 전 발굴조사를 하면서 구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선사시대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때 발굴된 유물을 전시하기 위하여 검단선사박물관이 건립되었습니다.

3) 경인항대로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아라뱃길의 경인항 인천터미널에서 오류동 드림파크 제3죽구장까지 가는 길이 2.55km의 대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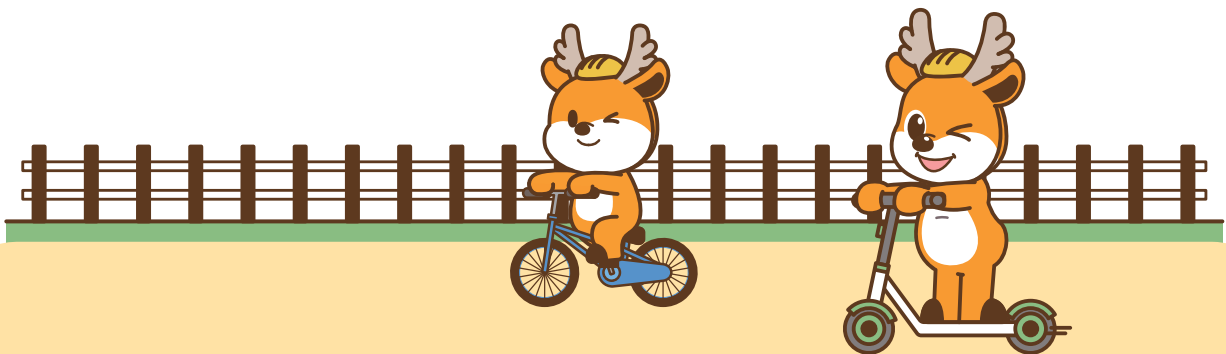


4) 국제대로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북서쪽 끝에서 시작하여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심곡삼거리까지 이어지는 길이 3.54km의 대로입니다. 국제대로가 지나는 서구의 마을은 청라동, 연희동, 가정동입니다. 청라경제자유구역이 국제적으로 성장하기를 염원하며 도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5) 청라대로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원창2교차로에서 경서동 북인천IC입구사거리까지 이어지는 길이 4.11km의 대로입니다. 청라대로가 지나는 서구의 마을은 청라동과 경서동인데 대부분의 구간이 청라동을 남북으로 지나갑니다. 청라도라는 지명을 따서 도로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청라국제도시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 지역은 청라도를 비롯하여 일도, 장도, 문침도, 장금도 등 여러 섬이 있는 바다였습니다. 1964년 수산양식을 위해 7개의 섬과 섬을 연결하는 제방을 쌓았습니다. 여기에 1979년부터 농업용지 확보를 조건으로 동아건설이 추가로 제방을 쌓고 10년간 간척사업을 벌였습니다. 이후 IMF 시기 동아건설은 자금난을 겪으면서 매립지를 정부에 팔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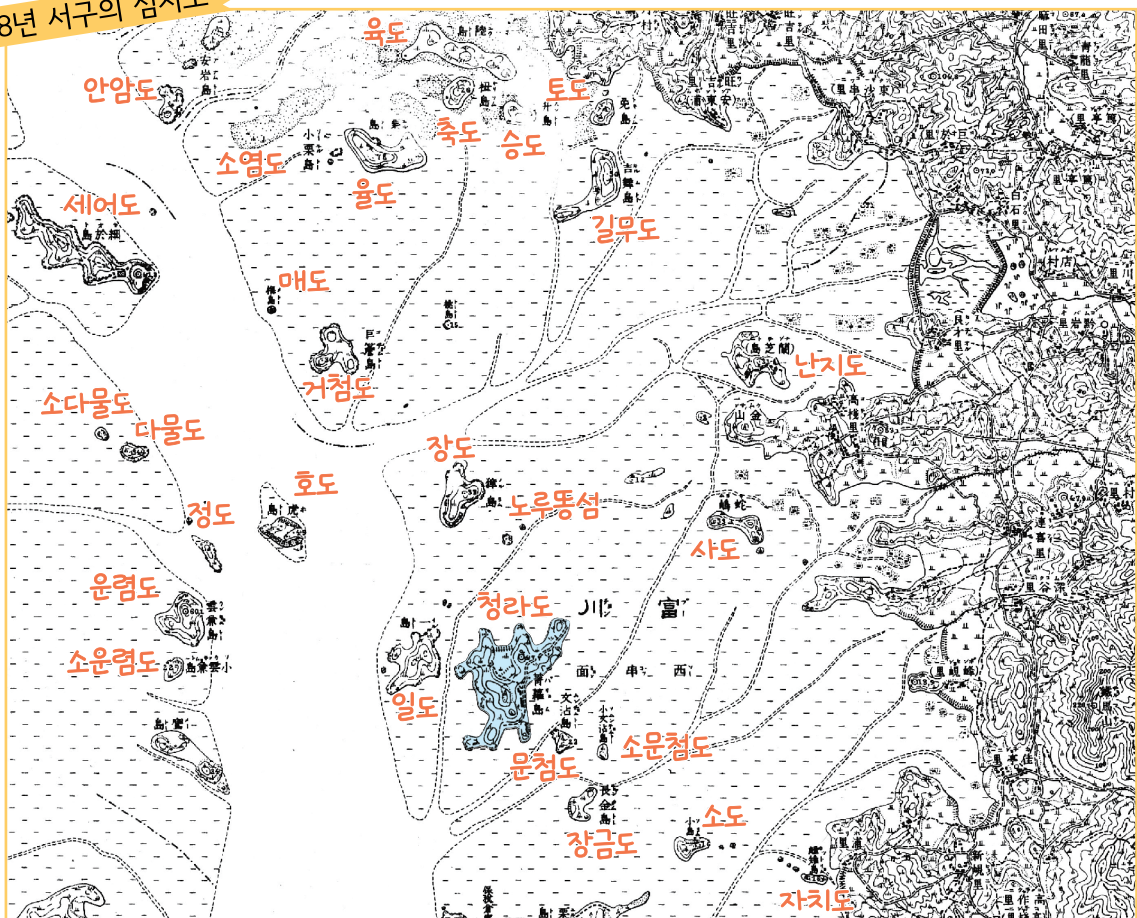


청라국제도시 조감도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큰 변화가 온 것은 2000년대 이르러서였습니다.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서고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는 송도신도시, 영종도와 함께 청라지구를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청라지구는 매립된 섬 청라도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며, 2011년 도시 명칭을 청라지구에서 청라국제도시로 변경했습니다.

1918년 서구의 섬지도



1918년 지도에 나타난 서구의 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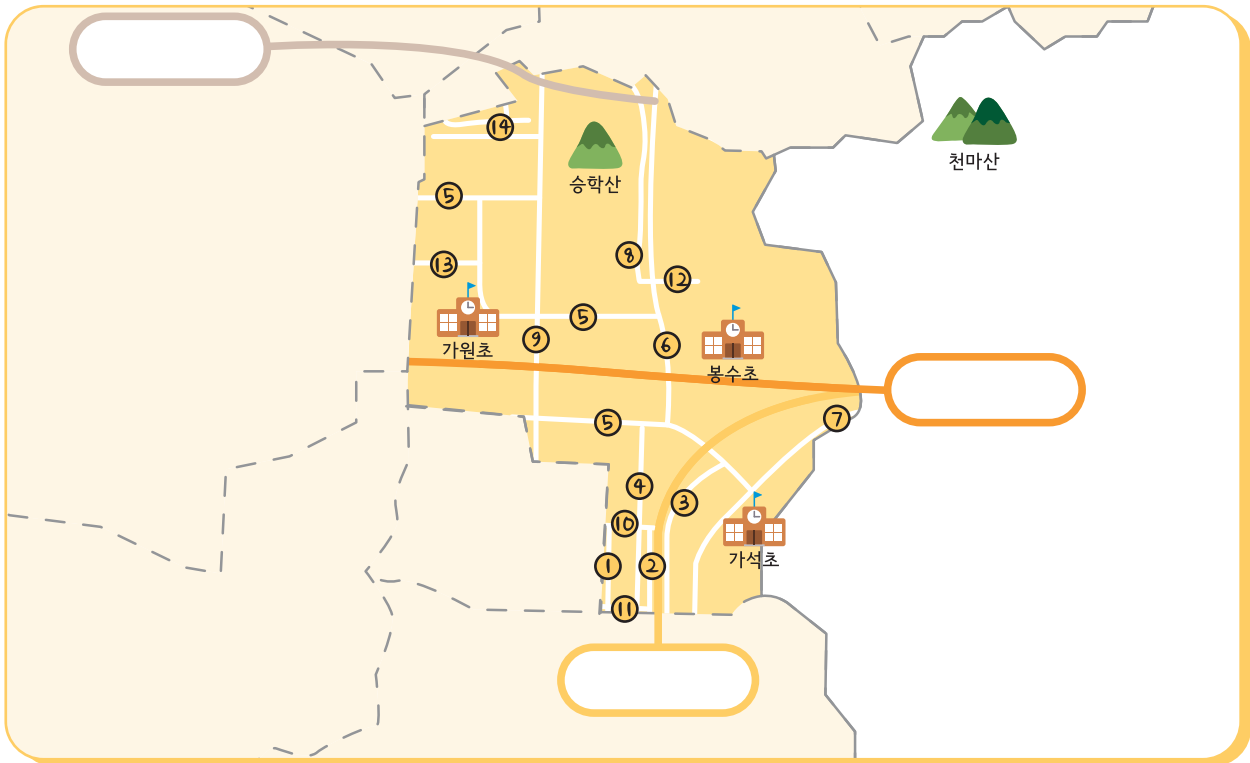
출처 : 총독부 1918년 발행 50,000:1 근대지도

2. 우리 마을의 길

1) 가정동

우리 마을을 지나는 대로는 입니다.

대로는 인천봉수초등학교를 지나갑니다.



① 가경주로

가정로의 오른쪽에 있는 가경주로는 울도로와 원창로를 이어주는 459m 길이의 도로입니다. '가경주'는 가정동의 옛 이름입니다.

② 가남로

가좌나들목(IC)에서 석남동을 거쳐 가정동 인천국민안전체험관까지 가는 4,673m 길이의 도로입니다. 가정동과 가좌동의 머리글자와 석남동의 뒷글자를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③ 가석로

가좌나들목(IC)에서 서인천나들목(IC)까지 인천대로의 동쪽을 나란히 지나는 4,116m 길이의 도로입니다. 가좌동, 가정동, 석남동의 머리글자를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4 가정로

가좌동에서 가정동까지 4,352m 길이의 도로입니다. 도로 이름은 가정동에서 따왔습니다. 가정동은 조선의 개국공신 조반이 이 마을에 '가정(아름다운 정자)'이란 정자를 세운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5 봉오재 1로, 2로, 3로

가정동 루원시터를 가르는 도로입니다. 축곶산 서남쪽에 있던 봉오재마을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입니다. 도로의 길이는 각각 589m, 580m, 1,522m입니다. 봉오재1로에는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6 서곶로

가정동 서달산 아래에서 연희동, 심곡동, 검암동, 백석동, 당하동을 지나 불로동까지 가는 9,372m의 도로입니다. 서구의 옛 이름 석곶은 지형이 꼬챙이처럼 길게 바다를 향해 뻗어있으며 돌이 많다 하여 붙인 이름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웃 모월곶과 합쳐 서곶으로 바뀌었습니다. 해안을 매립할 때 서곶이란 이름을 남기고자 도로 이름에 붙였습니다.

7 서달로

인천석남중학교 앞 건지로에서 갈라져 부평구 청천동까지 가는 길이 3,460m의 도로입니다. 원적산 서쪽 줄기 건지골 뒷산의 옛 이름인 서달산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서달로 가정동 구간에는 인천가석초등학교가 있습니다.

8 승학로

가정동 인천지하철 2호선 가정역 부근에서 시작하여 승학고개를 지나 검암동 꽃뚝길까지 가는 길이 6,023m의 도로입니다. 현재 가정역 주변 개발로 인하여 도로의 시작점은 막혀있고 실제 도로의 시작은 승학산 입구 애두름공원입니다. 승학산의 고개는 싱아풀이 많아 싱아고개 혹은 학이 오르는 모습을 닮아 승학고개라 했습니다.

9 염곡로

천일염을 생산하던 주안염전 터에서 서구 연희동의 경명대로와 만나는 지점까지 난 길이 7,550m의 도로입니다. 이 길이 지나는 가정동, 연희동과 경서동, 검암동, 백석동에도 염전이 있었습니다. 염곡로 가정동 구간에는 소금꽃공원과 인천루원중학교가 있습니다.

10 원창로

원창동 중봉대로에서 갈라져 가정동 인천지하철 2호선 가정중앙시장역까지 가는 총 2,443m 길이의 도로입니다. 조선시대 세곡선에 실려온 곡식을 보관하던 창고가 있던 마을 원창동을 따서 붙인 도로 이름입니다.

11 율도로

봉수대로와 인천대로를 동서로 연결하며 석남동과 신현동, 가정동을 지나는 1,267m 길이의 도로입니다. 율도(밤섬)으로 들어가는 길이므로 율도로라고 했습니다.

12 천마로

서곶로에서 갈라져 천마산 기슭까지 이어진 268m의 비교적 짧은 도로입니다. 천마산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13 청중로

청라경제자유구역의 중앙을 동서로 관통하여 가정동 소금꽃공원까지 오는 도로로 청라중앙로의 줄임말입니다. 청중로의 가정동 구간에는 인천가원초등학교가 있습니다.

14 행복1로, 2로, 3로

가정동 행복주택단지를 지나는 도로로 도로의 남쪽부터 행복1로, 행복2로, 행복3로라 합니다. 도로의 길이는 각각 578m, 593m, 834m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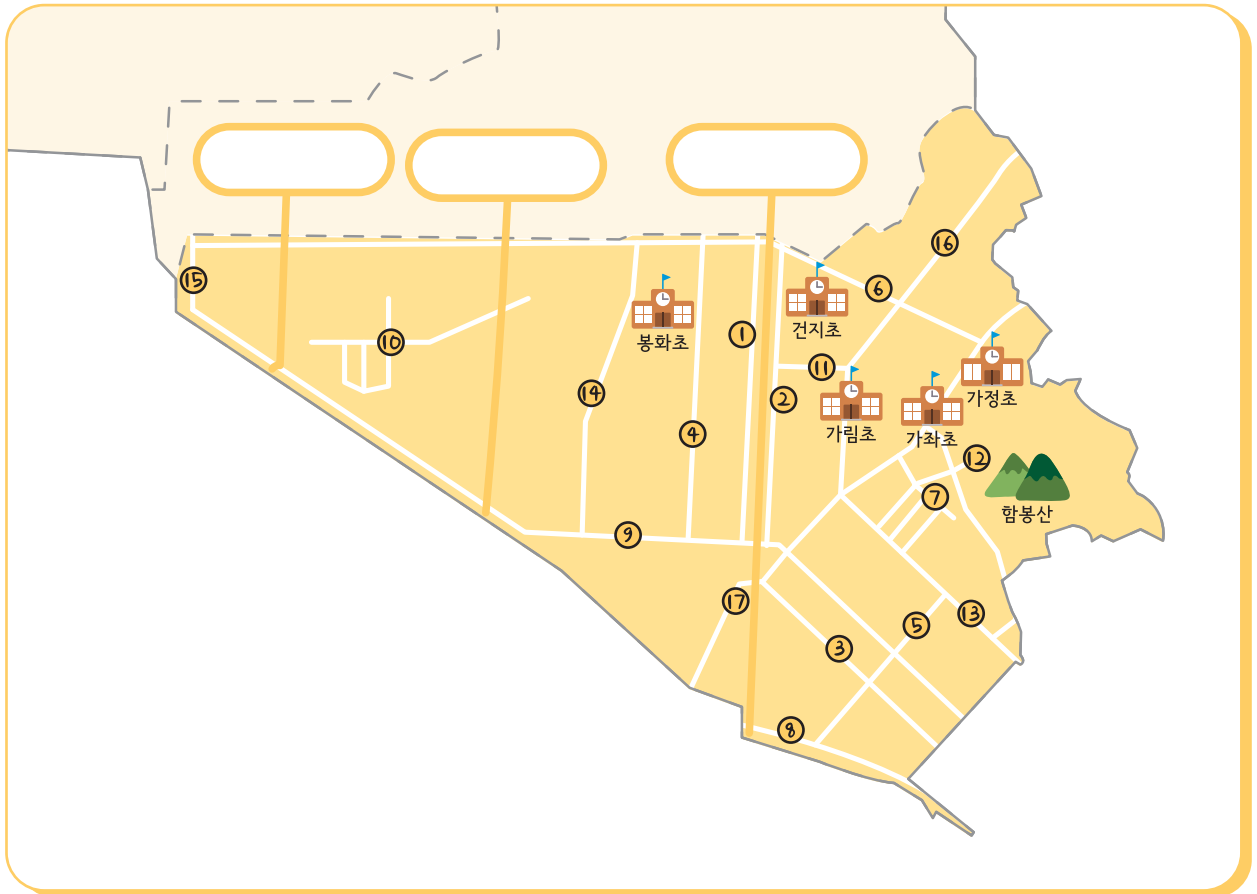
천마산과 아기장수 이야기

조선시대 가정동의 산 아래 마을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는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걸음을 걷고 양 어깨에는 날개가 달려 방안을 날아다녔습니다. 아기의 부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아기장수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기 부모는 기뻐하기보다는 무서워 벌벌 떨었습니다. 아기장수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사또가 알게 되면 아기가 더 크기 전에 군사를 보내서 아기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을 모두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고민 끝에 아기의 부모는 다른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 아기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아기가 목숨을 잃자 갑자기 집 밖에서 말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장수를 위해 하늘이 내려준 용마였습니다. 말은 슬피 울더니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이때 산꼭대기 바위를 힘차게 던고 올랐는데 그 바위에는 말발자국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그 산과 바위를 '천마산'과 '마제봉'이라 불렀습니다.

2) 가좌동

우리 마을을 지나는 대로는 입니다.



① 가남로

가좌나들목(IC)에서 석남동을 거쳐 가정동 인천국민안전체험관까지 가는 4,673m 길이의 도로입니다. 가정동과 가좌동의 머릿글자와 석남동의 뒷글자를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② 가석로

가좌나들목(IC)에서 서인천나들목(IC)까지 인천대로의 동쪽을 나란히 지나는 4,116m 길이의 도로입니다. 가좌동, 가정동, 석남동의 머릿글자를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③ 가재울로

가좌나들목(IC)에서 주안산업단지 가좌동 지역을 지나 부평구 십정동까지 가는 1,920m 길이의 도로입니다. 가좌동의 옛 이름 가재울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가재울에는 마른 못(건지)인데도 가재가 많이 살았다 전해옵니다.

4 가정로

가좌동에서 가정동까지 4,352m 길이의 도로입니다. 도로 이름은 가정동에서 따왔습니다. 가정동은 조선의 개국공신 조반이 이 마을에 '가정(아름다운 정자)'이란 정자를 세운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5 가좌로

방축로에서 열우물로까지 주안산업단지 가좌동 구간을 남북으로 비스듬히 지나는 1,098m 길이의 도로입니다. 가재울로와 'X'자 형태로 만납니다. 가좌동의 동명을 따서 지었습니다.

6 건지로

석남동에서 가좌동 장고개 입구까지 총 4,281m 길이의 도로입니다. 가좌천 아래쪽에 연못이 있었는데 시내의 물이 흘러들지 않아 마른 연못이 되어서 건지(乾池)라고 불렀습니다. 건지로는 마을의 옛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입니다. 건지로의 가좌동 구간에는 인천건지초등학교, 인천봉화초등학교, 인천가좌중학교와 서구도서관이 있습니다.

7 고래울로

가좌동 장고개로에서 함봉산 아래 아파트단지까지 연결된 472m 길이의 도로입니다. 바닥이 깊고 기름진 논의 많다는 뜻의 옛 지명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고래울로 안쪽에는 가정여자중학교가 있습니다.

8 방축로

천일염 생산지인 옛 주안염전의 방축을 따라 만든 도로로 동구에서 남동구까지 이어지는 총길이는 5,350m입니다. 가좌동 남쪽의 산업단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9 백범로

남동구 장수동에서 시작하여 서구 북항을 지나는 원석로와 만나는 11,195m의 도로입니다. 인천에서 두 번이나 감옥에 갇혔던 백범 김구선생의 호를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10 보도진로

가좌천 북쪽에서 중봉대로와 봉수대로를 동서로 연결하는 길이 709m의 도로입니다. 인천교가 생기기 전 가좌동과 동구 송림동 사이에는 넓은 갯골이 있어서 보도진 나루에서 배를 타고 건넜습니다. 보도진로 주변은 모두 갯벌을 매립하여 생긴 지역입니다.

11 신진말로

인천대교 동쪽 가석로에서 원석로까지 가는 길이 418m의 도로입니다. 이 지역에 있었던 신진말이라는 옛 마을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12 여우재로

함봉산 남쪽 가좌동에서 부평구 십정동으로 넘어가는 길이 1,441m의 도로입니다. 여우가 자주 다닌다는 옛 고개 이름을 따서 정했습니다. 여우재로 가좌동 구간에는 동인천여자중학교와 제물포중학교가 있습니다.

13 열우물로

부평구 십정동(열우물)에서 가좌동 장고개와 만나는 길이 2,954m의 도로입니다.

14 염곡로

천일염을 생산하던 주안염전 터에서 서구 연희동의 경명대로와 만나는 지점까지 난 길이 7,550m의 도로입니다. 이 길이 지나는 가정동, 연희동과 경서동, 검암동, 백석동에도 염전이 있었습니다. 염곡로 가좌동 구간에는 갯벌을 매립하여 들어선 여러 공장들이 있습니다.

15 원석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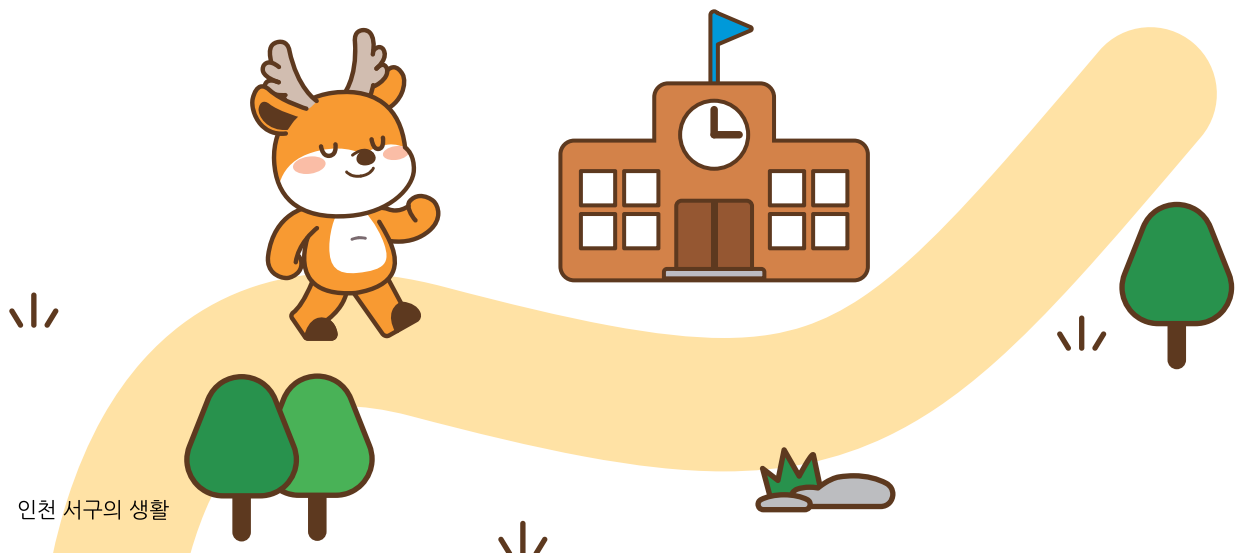
가좌동의 북향에서 석남동을 거쳐 원창동 211-2까지 가는 길이 2,502m의 도로입니다. 원창동과 석남동의 머릿글자를 따서 지었습니다.

16 원적로

서구 가재울사거리에서 부평구 산곡입구삼거리까지 4,910m 길이의 도로입니다. 도로가 원적산을 관통하여 지나기 때문에 붙인 이름입니다. 1969년 도로가 개통되어 가좌동에서 산곡동으로 넘어가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원적로 가좌동 구간에는 가림고등학교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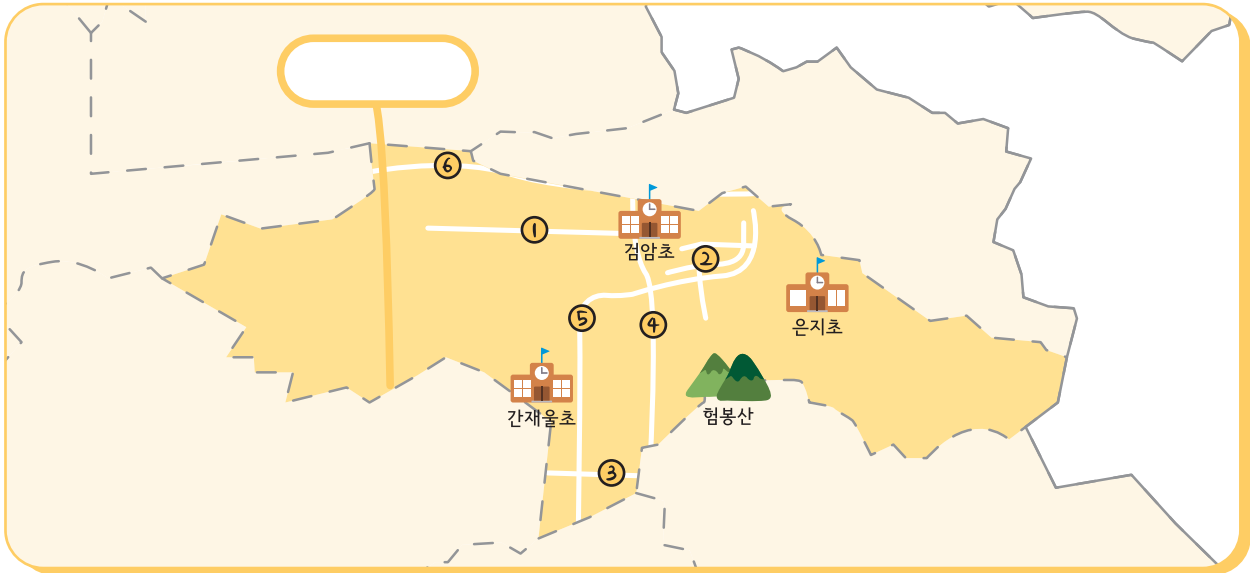
17 장고개로

미추홀구 도화사거리에서 동구를 거쳐 서구가좌노인문화센터 앞 장고개공원 입구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예전에 산곡동을 마장뜰이라 불렀는데 마장으로 넘어가는 고개라 해서 장고개라 했습니다. 가좌동에서 부평시장역에 이르는 장고개 도로개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장고개로 가좌동 구간에는 인천가림초등학교, 인천가좌초등학교, 인천가정초등학교가 있습니다.



3) 검암동

우리 마을을 지나는 대로는 입니다.



① 검바위로

시천교 아래에서 검암동 산113-27까지 가는 1,118m의 도로입니다. 검암의 옛 지명인 검바위를 따서 지은 도로 이름입니다. 공항철도 검암역 앞을 지납니다.

② 검암로

검암동 동쪽 주거지역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길이 568m의 도로로 검암동을 따서 지었습니다. 도로 끝에 허암 정희량 유허지가 있습니다. 검암로는 검암중학교를 지납니다.

③ 도요지로

경서동 아파트단지 서쪽 끝에서 공촌동 서곶로와 만나는 지점까지 가는 2,434m의 도로입니다. 도요지란 도자기를 굽는 가마터를 말합니다. 도로 인근에 인천 최초로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인천 경서동 녹청자 요지가 있습니다.

④ 서곶로

가정동 서달로에서 시작하여 심곡동, 연희동, 공촌동, 검암동, 시천동, 백석동, 마전동, 당하동을 지나 불로동 만수산까지 이어지는 길이 9,372m의 도로입니다. 서구의 옛이름 석곶은 지형이 꼬챙이처럼 길게 바다를 향해 뻗어있으며 돌이 많다고 하여 붙인 이름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웃 모월곶과 합쳐 서곶으로 바뀌었습니다. 해안을 매립할 때 서곶이란 이름을 남기고자 도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서곶로는 검암동을 동서로 나누어 지나갑니다.

5 승학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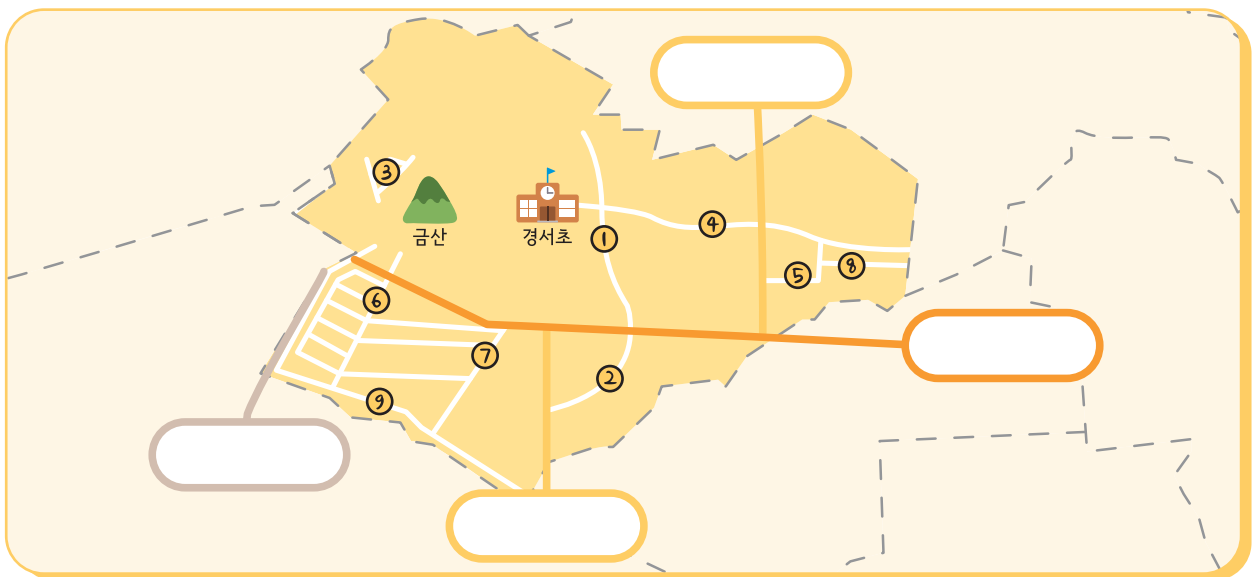
가정동 인천지하철 2호선 가정역 부근에서 시작하여 승학고개를 지나 검암동 꽃뚝길까지 가는 길이 6,023m의 도로입니다. 현재 가정역 주변 개발로 인하여 도로의 시작점은 막혀있고 실제 도로의 시작은 승학산 입구 애두름공원입니다. 승학산의 고개는 싱아풀이 많아 싱아고개 혹은 학이 오르는 모습을 닮아 승학고개라 했습니다. 승학로에는 간재울초등학교와 검암초등학교, 은지초등학교가 있습니다.

6 정서진로

오류동 정서진에서 아라뱃길 남쪽으로 검암동, 시천동을 지나 계양구를 거쳐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까지 가는 총길이 16,680m의 도로입니다. 정서진은 서울의 광화문을 기준으로 정서쪽에 있는 나루라 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4) 경서동

우리 마을을 지나는 대로는 입니다.



1 경서로

경서지구를 관통하는 길이 1,098m의 도로입니다. 경서로에는 인천경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2 경중로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를 관통하는 길이 713m의 도로입니다.

3 금산로

금산 북쪽에 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일반산업단지를 에워싼 길이 483m의 도로입니다.

4 도요지로

경서동 아파트단지 서쪽 끝에서 공촌동 서곶로와 만나는 지점까지 가는 2,434m의 도로입니다. 도요지란 도자기를 굽는 가마터를 말합니다. 도로 인근에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인천 경서동 녹청자 요지가 있습니다.

5 모월곶로

도요지로에서 경서근린공원을 끼고 갈라져 아파트를 둘러싸고 봉수대로와 만나는 길이 532m의 도로입니다. 모월곶은 경서동과 주변 지역의 옛 이름입니다.

6 사렴로

금산 앞에 뱀섬이라는 뜻의 작은 섬 사렴이 있었는데 매립이 된 후에 주물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사렴로는 인천서부일반산업단지를 가로지르는 길이 853m의 도로입니다.



7 원전로

사렴로와 나란히 있는 길이 795m의 도로입니다. 옛날 경서동 서쪽 끝 고개 갯벌에서 작은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이 샘물에는 원전물 이라는 약효가 신통한 샘이 있어 원전로라고 했습니다.

8 이화로

경서근린공원 앞을 지나는 길이 514m의 도로입니다. 예전에 이 일대가 모두 배밭이었던 점을 들어 이화로라 지었습니다. 이화는 배꽃의 한자어입니다.

9 호두산로

호두산은 경서동 바닷가에 있던 산으로 금산이라고도 합니다. 호두산로는 호두산 앞을 지나는 경명대로에서 갈라져 나와 인천서부일반산업단지를 에워싼 길이 2,682m의 도로입니다.

5) 공촌동

우리 마을을 지나는 대로는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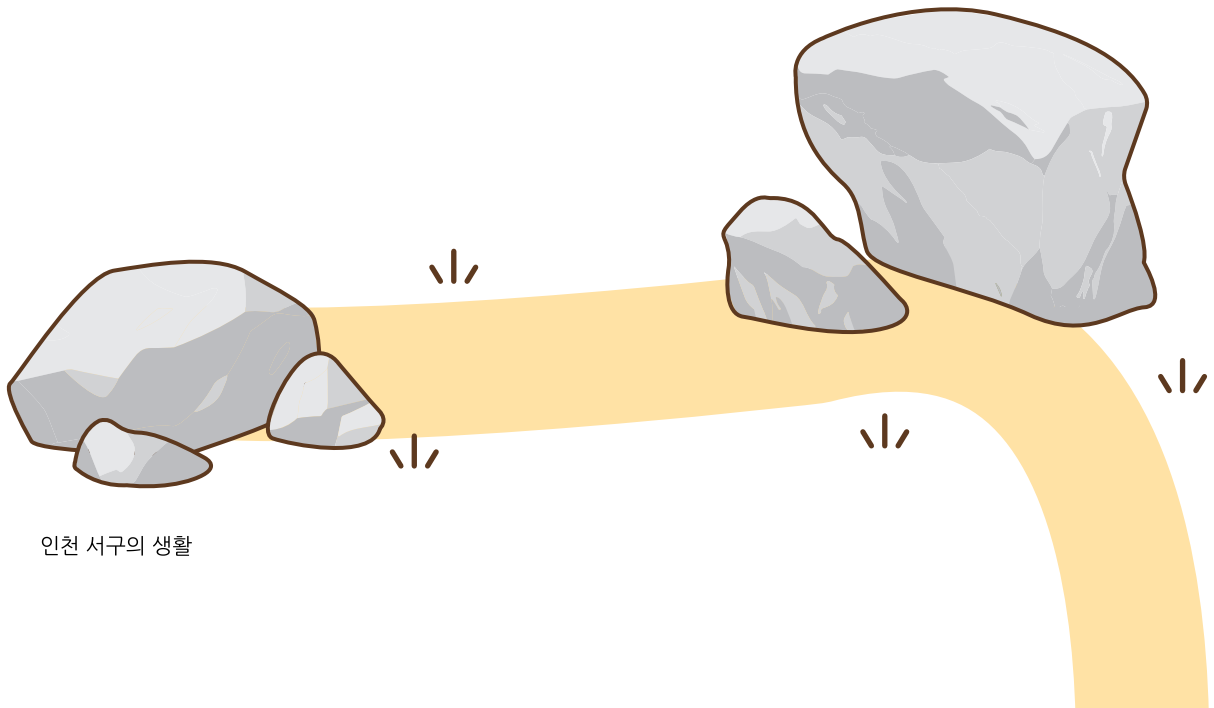


① 서곶로

가정동 서달산 아래에서 연희동, 심곡동, 검암동, 백석동, 당하동을 지나 불로동까지 가는 9,372m의 도로입니다. 서구의 옛 이름 석곶은 지형이 꼬챙이처럼 길게 바다를 향해 뻗어있으며 돌이 많다고 하여 불인 이름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웃 모월곶과 합쳐 서곶으로 바뀌었습니다. 해안을 매립할 때 서곶이란 이름을 남기고자 도로 이름에 붙였습니다. 서곶로 공촌동 구간에는 대인고등학교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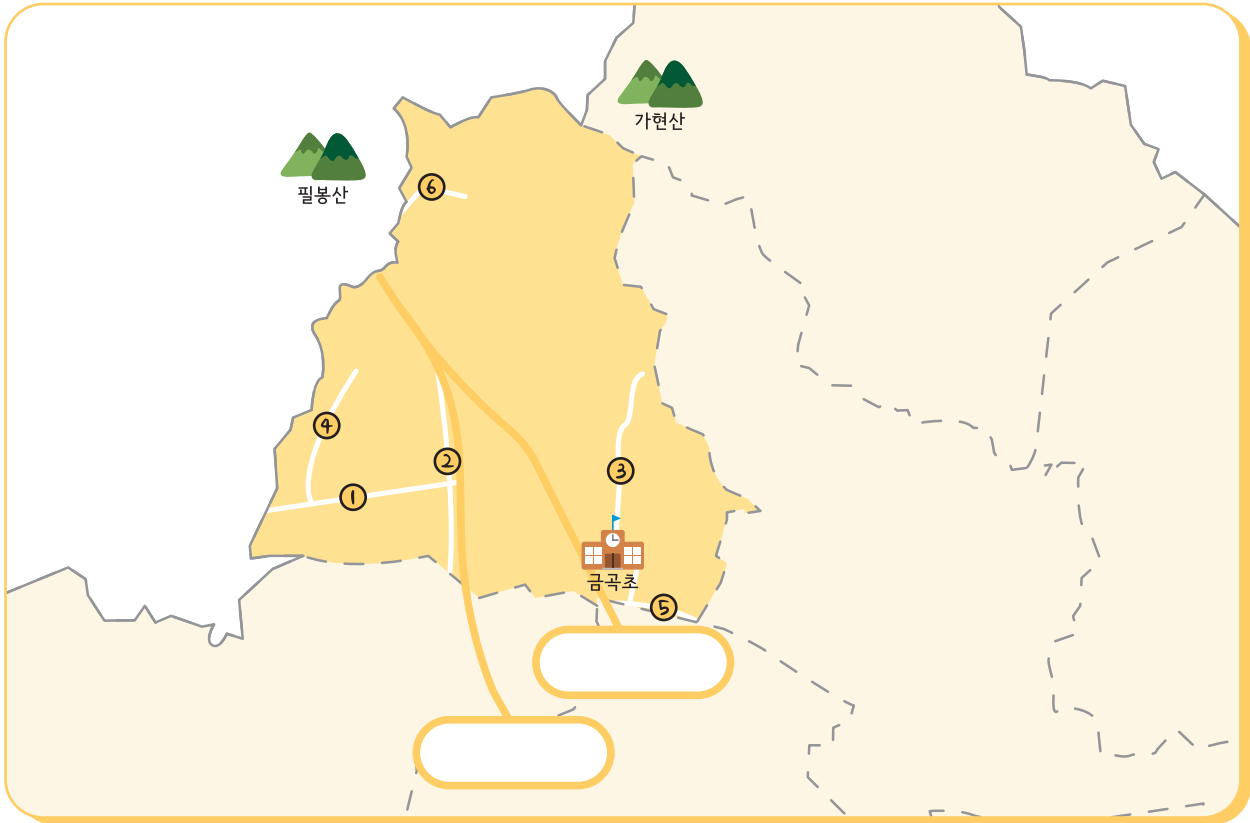
② 심곡로

연희동에서 공촌동을 거쳐 심곡동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주차장 G1까지 연결된 2,136m의 도로입니다. 심곡로 공촌동 구간에는 인천공촌초등학교가 있습니다.



6) 금곡동

우리 마을을 지나는 대로는 입니다.



① 대곶검단로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에서 인천 서구 검단동을 잇는 길이 8,773m의 도로입니다.

② 봉화로

왕길동 봉수대로에서 갈라져 금곡동 검단로와 만나는 총길이 2,623m의 도로입니다. 봉수대가 있던 백석산 아래 마을인 봉화촌을 지나서 붙인 이름입니다.

③ 세자봉로

금곡동 완정로에서 갈라져 가현산의 봉우리인 세자봉 아래까지 가는 길이 1,637m의 도로입니다.

④ 소담로

수도권 최대 규모 식품단지인 I-FOOD PARK 일반산업단지를 지나가는 길이 710m의 도로입니다. 소담은 음식이 풍족하여 먹음직스러운 모양을 이르는 순우리말입니다.

5) 완정로

금곡동 세자봉로에서 당하동의 인천지하철 2호선 완정역까지 이어진 길이 2,727m의 도로입니다. 완정은 마전동의 옛 마을로 마을에 있는 우물의 물이 좋았다고 합니다. 완정로 금곡동 구간에는 인천금곡초등학교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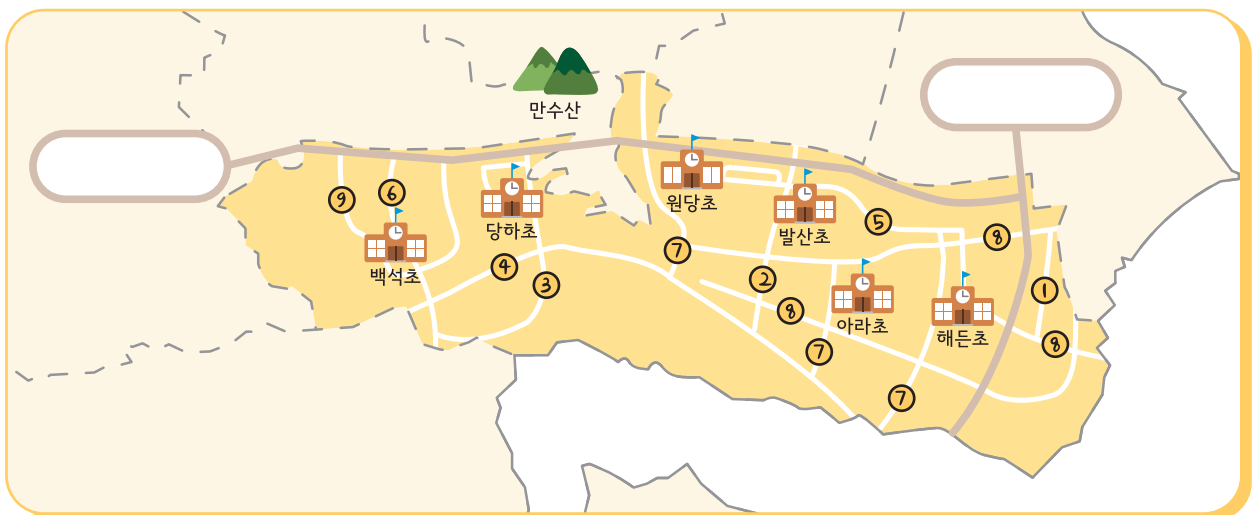
6) 향동로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에서 금곡동까지 이어지는 길이 814m의 도로로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에 있던 향동마을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7) 당하동

우리 마을을 지나는 대로는 입니다.

대로는 인천원당초등학교를 지납니다.



1) 가우리들로

당하동 동쪽 계양천과 나란히 있는 622m의 도로입니다. 옛 마을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2 고산후로

원당동의 고산 뒷 마을을 고산후라 했습니다. 고산후로는 당하동에서 원당동 거쳐 불로동 목향초 입구 삼거리까지 이어지는 길이 4,125m의 도로입니다. 고산후로 당하동 구간에는 인천발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3 독정로

인천지하철 2호선 독정역에서 불로동 만수산 동쪽으로 지나는 길이 477m의 도로입니다. 마을에 정자가 있어 마을 이름을 '독정(獨亭)'이라 불렀으며, 옛 마을 이름을 따와 지었습니다.

4 드림로

왕길동 수도권매립지에서 백석동, 당하동, 원당동을 거쳐 경기도 김포시 갈현동 수송도로삼거리까지 연결된 14,541m의 도로입니다. 경인아라뱃길 건설로 우회하는 도로가 개설되어 처음 개통 때보다 길이가 늘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내 드림파크와 연결되어있는 도로입니다.

5 매밭로

고산후로에서 갈라져 나와 맑은물빛공원을 가로질러 복합청사삼거리까지 가는 길이 1,441m의 도로입니다. 옛날 당하동의 한 마을 '매밭'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앞산이 평의 모양을 닮아서 마을의 평안을 위해 풍수지리상 평을 누르는 매를 넣어 마을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6 서곶로

가정동 서달산 아래에서 연희동, 심곡동, 검암동, 백석동, 당하동을 지나 불로동까지 가는 9,372m의 도로입니다. 서구의 옛 이름 석곶은 지형이 꼬챙이처럼 길게 바다를 향해 뻗어있으며 돌이 많다고 하여 붙인 이름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웃 모월곶과 합쳐 서곶으로 바뀌었습니다. 해안을 매립할 때 서곶이란 이름을 남기고자 도로 이름에 붙였습니다.

7 서로1로, 2로, 3로

'서로 발전하는 도시'라는 뜻으로 당하동에서 불로동까지 신도시의 남북을 잇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도로입니다. 도로의 길이는 각각 2,997m, 651m, 2,836m입니다. 서로2로는 인천아라초등학교와 아라중학교를 지나고 서로3로는 인천해든초등학교를 지납니다.

8 이음1로, 2로, 3로, 4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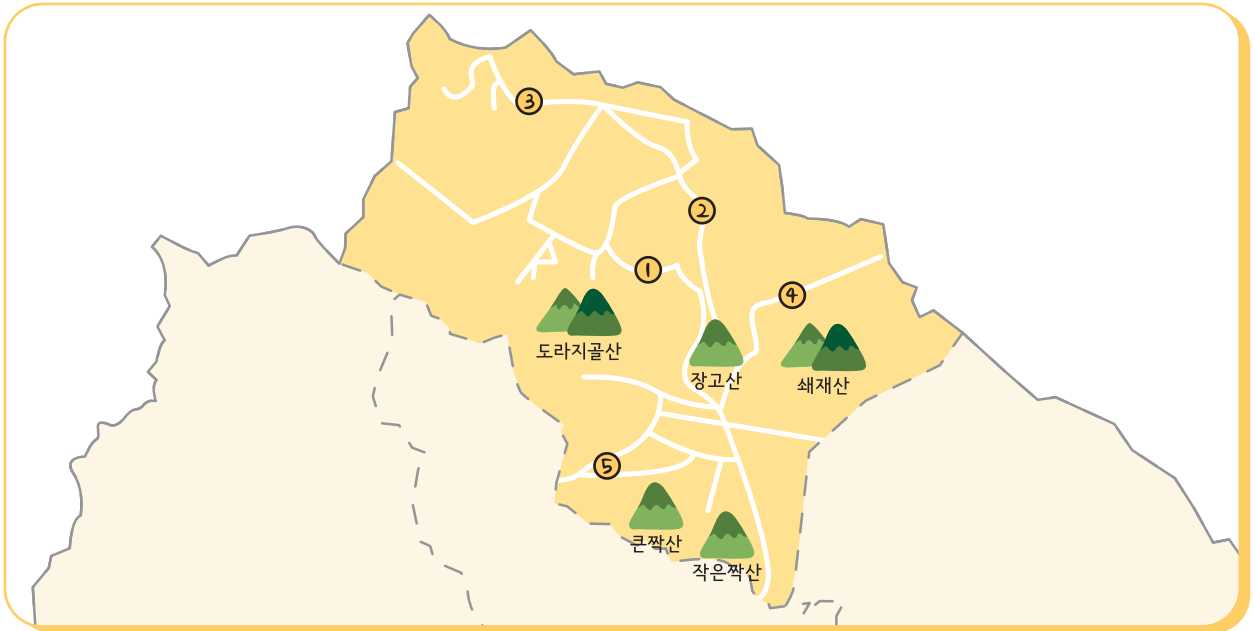
신도시의 동서를 잇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도로라는 뜻입니다. 이음5로와 이음6로는 원당동에 있습니다. 도로의 길이는 각각 4,765m, 1,036m, 1,961m, 1,283m입니다.

9 청마로

원당대로에서 서곶로를 가운데 두고 U자 형태로 난 도로로 길이는 1,829m입니다. 옛날 이곳은 청너머 마을로 청마의 건너편에 있던 마을입니다. 청마는 마전동의 가장 남쪽 마을로 청마의 마는 삼 마(麻)를 뜻합니다. 청마로에는 인천당하초등학교, 인천백석초등학교, 당하중학교, 문곡고등학교가 있습니다.

8) 대곡동

우리 마을을 지나는 대로는 입니다.



① 대곡로

마전동 동쪽 끝에서 시작하여 대곡동을 관통하는 도로로 길이는 4,233m입니다. 가현산의 큰 골짜기에 자리 잡은 대곡동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② 두밀로

대곡로 오른쪽을 지나는 도로로 길이는 1,836m입니다. 대곡동 두밀마을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③ 도곡로

대곡동 오른쪽 외곽을 도는 길이 2,978m의 도로입니다. 도치울이란 마을의 이름을 따왔는데 도치울은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과 맞닿은 대곡동 끝 마을의 옛 이름입니다.

④ 설원로

대곡동 동남쪽을 동서로 가는 길이 1,411m의 도로입니다. 설원로는 설원마을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대곡동 동쪽 끝에 있던 옛 마을 설원은 ‘역원²⁾을 설치해서’ 설원이라 했다 전하나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마을의 고개 너머 경기도 김포시 쪽에 한양에서 강화로 가는 주요 도로가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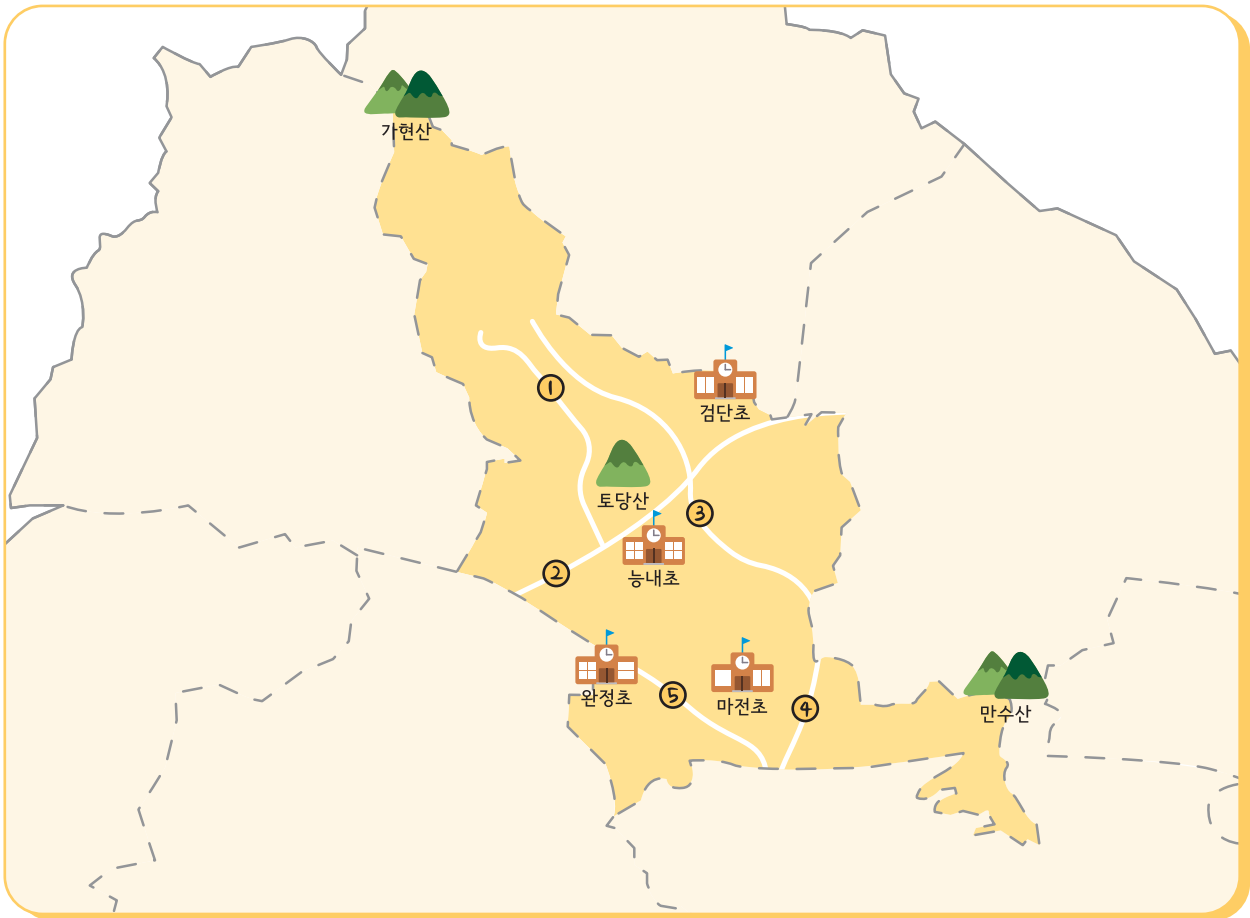
⑤ 가현산로

마전동에서 대곡동 가현산 자락의 검단 대곡동 지석묘군 부근까지 연결된 총 2,053m의 도로입니다.

2) 역원 : 공무를 집행하는 이에게 말과 숙소를 제공하는 곳

9) 마전동

우리 마을을 지나는 대로는 입니다.



① 가현로

가현산 남쪽에서 시작하여 마전동을 북에서 남으로 가르는 길이 1,748m의 도로입니다. 도로가 시작되는 마을의 옛 이름 가현골에서 따왔습니다.

② 검단로

서구 오류동 검단천에서 왕길동, 마전동, 불로동을 지나 경기도 김포시 중봉삼거리까지 이어지는 길이 10,262m의 도로로 검단신도시 중심을 지나갑니다. 검단로에는 인천능내초등학교가 있습니다.

③ 마전로

가현로에서 나와 가현천과 나진포천 옆을 따라가다 이음대로를 만나는 구간까지 총길이 2,333m의 도로입니다. 마전동을 통과하는 도로이므로 동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마전로에는 인천검단초등학교가 있습니다.

4 서곶로

가정동 서달산 아래에서 연희동, 심곡동, 검암동, 백석동, 당하동을 지나 불로동까지 가는 9,372m의 도로입니다. 서구의 옛 이름 석곶은 지형이 꼬챙이처럼 길게 바다를 향해 뻗어있는데 돌이 많다고 하여 붙인 이름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웃 모월곶과 합쳐 서곶으로 바뀌었습니다. 해안을 매립할 때 서곶이란 이름을 남기고자 도로 이름에 붙였습니다.

5 완정로

금곡동 세자봉삼거리에서 당하동의 인천지하철 2호선 완정역까지 이어진 길이 2,727m의 도로입니다. 전해오는 바로는 고려시대부터 이 마을에 우물이 있었는데 물 맛이 좋고 샘이 잘 나 '완정'으로 이름 붙여졌다고 합니다. 완정로 마전동 구간에는 인천금곡초등학교, 인천마전초등학교, 인천완정초등학교, 검단중학교, 마전중학교가 있습니다.

10) 백석동

우리 마을을 지나는 대로는 입니다.



1 독정로

인천지하철 2호선 독정역에서 불로동 만수산 동쪽으로 지나는 길이 477m의 도로입니다. 마을에 정자가 있어 마을 이름을 '독정(獨亭)'이라 불렀으며, 옛 마을 이름을 따와 지었습니다.

② 드림로

왕길동 수도권매립지에서 백석동, 당하동을 거쳐 경기도 김포시 갈현동 수송도로삼거리까지 연결된 14,541m의 도로입니다. 경인아라뱃길 건설로 우회하는 도로가 개설되어 처음 개통 때보다 길이가 늘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내 드림파크와 연결되어있는 도로입니다.

③ 서곶로

가정동 서달산 아래에서 연희동, 심곡동, 검암동, 백석동, 당하동을 지나 불로동까지 가는 9,372m의 도로입니다. 서구의 옛 이름 석곶은 지형이 꼬챙이처럼 길게 바다를 향해 뻗어있으며 돌이 많다고 하여 붙인 이름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웃 모월곶과 합쳐 서곶으로 바뀌었습니다. 해안을 매립할 때 서곶이란 이름을 남기고자 도로 이름에 붙였습니다. 서곶로 백석동 구간에는 백석중학교, 백석고등학교, 한국주얼리고등학교가 있습니다.

④ 아라로

경인아라뱃길 북쪽 시천교 북측전망대에서 계양구 장기동의 계양아라온까지 이어지는 길이 5,502m의 도로입니다.

⑤ 한들로

백석동 한들지구 남쪽을 지나는 길이 1,115m의 도로입니다. 백석동은 백석마을, 흰돌이라 했는데 한들은 흰돌이 변하여 생긴 이름입니다.

⑥ 한서로

봉수대로에서 갈라져 나와 드림파크의 북쪽을 지나는 길이 906m의 도로입니다. 백석동 한들지구의 서쪽에 있어 붙여진 도로 이름입니다.

⑦ 한중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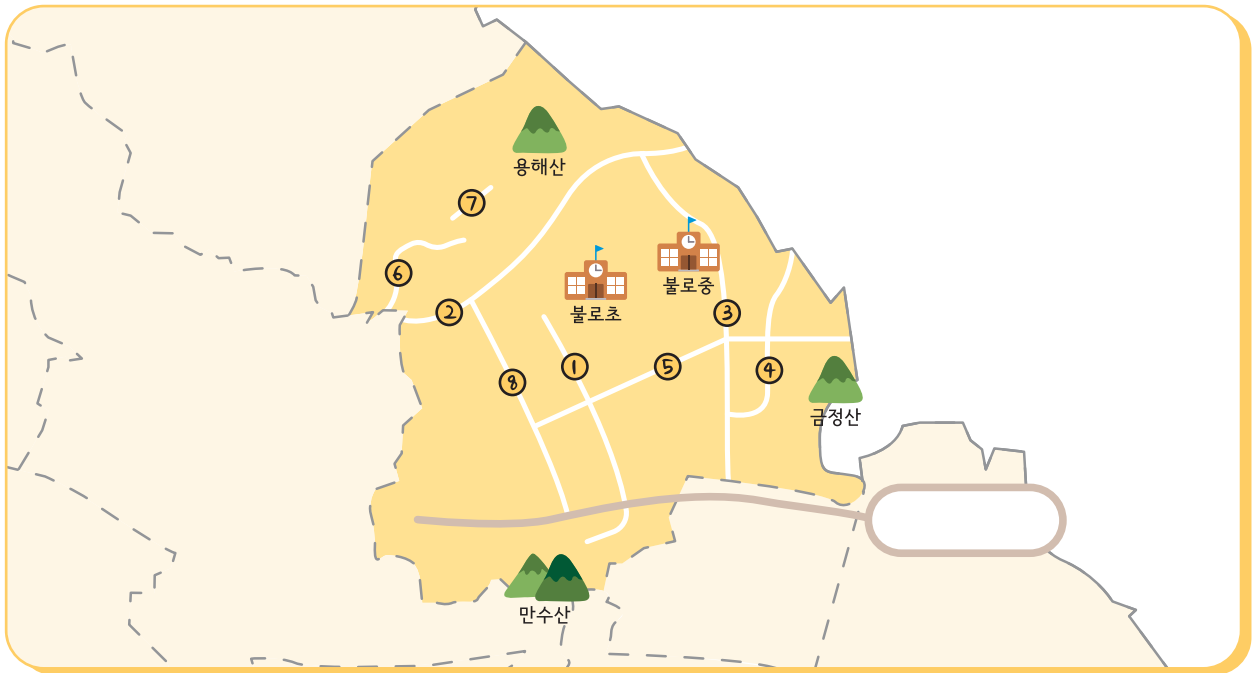
한들지구의 중심을 지나는 길이 962m의 도로입니다. 한중로에는 인천한들초등학교가 있습니다.

⑧ 한중1, 2, 3로

한들지구의 동쪽에 가로로 지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도로입니다. 도로의 길이는 각각 481m, 163m, 489m입니다.

11) 불로동

우리 마을을 지나는 대로는 입니다.



1 갈메울로

만수산, 황화산 사이에 조성된 검단신도시 아파트를 관통하는 도로로 길이는 1,508m입니다. 옛날 마을의 주산인 만수산에 참이 많아 '참 갈'자를 써서 갈산이라고 하고 마을 이름도 갈메울이라 했습니다.

2 검단로

서구 오류동 검단천에서 왕길동, 마전동, 불로동을 지나 경기도 김포시 중봉삼거리까지 이어지는 길이 10,262m의 도로로 검단신도시 중심을 지나갑니다. 검단로 불로동 구간에는 인천불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3 고산후로

원당동의 고산 뒷 마을을 고산후라 했습니다. 고산후로는 당하동에서 원당동 거쳐 불로동 목향초입구 삼거리까지 이어지는 길이 4,125m의 도로입니다. 고산후로 불로동 구간에는 인천목향초등학교와 인천불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4 금정로

금정산 서쪽에 조성되고 있는 검단신도시를 관통하는 길이 1,096m의 도로입니다.

5 동화시로

불로동에 조성하고 있는 검단신도시를 가로지르는 길이 1,832m의 도로입니다. 갈산 마을과 목지 마을을 잇는 고개 아래 골짜기를 동화시라 했는데 거기서 따온 이름입니다.

6 불로로

나진포천 옆 작은 동산을 넘어가는 길이 819m의 도로입니다. 불로동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7 용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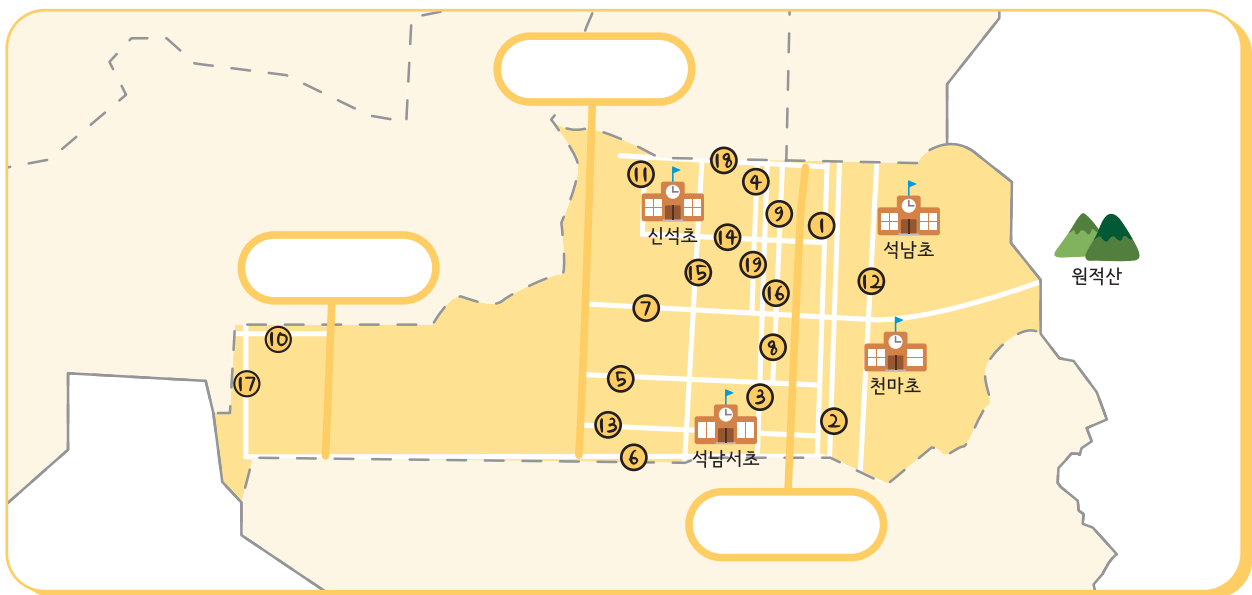
불로동 아파트단지를 지나는 길이 397m의 도로입니다. 동쪽에 용해산이 있습니다.

8 서로로

‘서로 발전하는 도시’라는 뜻으로 당하동에서 불로동까지 신도시의 남북을 잇는 첫 번째 도로로 길이 2,997m입니다.

12) 석남동

우리 마을을 지나는 대로는 입니다.



1 가남로

가좌나들목(IC)에서 석남동을 거쳐 가정동 인천국민안전체험관까지 가는 4,673m 길이의 도로입니다. 가정동과 가좌동의 머릿글자와 석남동의 뒷글자를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2 가석로

가좌나들목(IC)에서 서인천나들목(IC)까지 인천대로의 동쪽을 나란히 지나는 4,116m 길이의 도로입니다. 가정동, 가좌동, 석남동의 머릿글자를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3 가정로

가좌동 가좌삼거리에서 가정동 봉오재3로까지 4,352m 길이의 도로입니다. 도로 이름은 가정동에서 따왔습니다. 가정동은 조선의 개국공신 조반이 이 마을에 와서 세운 '가정(아름다운 정자)'이라는 정자를 세운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4 강남로

서구 4대 전통시장의 하나인 강남시장을 관통하는 길이 394m의 도로입니다. 강남시장은 1984년 석남1동 일대에 저층 위주의 주택지가 들어서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야채와 식료품을 팔기 시작하면서 형성되었습니다.

5 거북로

서구 4대 전통시장의 하나인 거북시장을 관통하는 길이 1,250m의 도로입니다. 거북시장은 서구 최초의 인정시장³⁾입니다.

6 건지로

석남동에서 가좌동 장고개 입구까지 총 4,281m 길이의 도로입니다. 가좌천 아래쪽에 연못이 있었는데 시내의 물이 흘러들지 않아 마른 연못이 되어서 건지(乾池)라고 불렀습니다. 건지로는 마을의 옛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입니다. 건지로에는 인천석남서초등학교, 석남중학교가 있습니다.

7 길주로

석남동 봉오대로에서 갈라져 석남동과 부평구 산곡동을 잇는 원적산터널을 지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에 이르는 14,428m의 긴 도로입니다. 조선시대까지 서구와 부평구, 부천시는 부평에 속한 하나의 마을이었는데 고려 충렬왕 때는 길주라 불렀습니다.

8 면개포로

거북로와 직각으로 닿아있는 길이 359m의 도로입니다. 바닷가에 면개포라는 옛 마을이름에서 따왔습니다.

9 명가골로

신석로와 울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로 길이는 394m입니다. 신현동과 마주한 석남동 북쪽 마을 명가골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원적산에서 흐르는 내가 울우물 북쪽으로 흘러 긴 갯골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갔는데 이 갯골을 먼갯골이라 했습니다. 명가골은 먼갯골이 변하여 부른 이름입니다.

10 북향로

원창동 북향에서 석남동 서인천 선착장입구 교차로까지 이어지는 길이 3,083m의 도로입니다.

3) 인정시장 :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나 대규모 점포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곳

11 새오개로

석남동 신석초등학교에서 신현동까지 연결된 길이 1,118m의 도로입니다. 조선시대 포리(원창동)에 세곡을 보관하는 전조창을 짓고 서울로 운반할 때 새로운 고갯길을 만들었는데 새고개(신현)가 변형되어 새오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육로를 통해서 세곡을 운반했다는 역사적 근거는 없는 편이라 조사가 더 필요합니다. 새오개로 석남동 구간에는 인천신석초등학교가 있습니다.

12 서달로

석남중학교 앞 건지로에서 갈라져 부평구 청천동까지 가는 길이 3,460m의 도로입니다. 건지골의 뒷산의 이름인 서달산에서 따와서 지었습니다. 서달로에는 인천석남초등학교, 석남중학교, 인천천마초등학교, 보건고등학교, 가좌여중이 있습니다.

13 석남로

석남동 남쪽을 가로지르는 길이 1,248m의 도로입니다. 석남동 동명을 따와서 지었습니다. 석남동은 석곶의 남쪽에 있는 마을이란 뜻입니다.

14 신석로

봉수대로와 인천대로 사이 신현동과 석남동을 가르는 길이 1,261m의 도로입니다. 신현동과 석남동의 머릿글자를 따서 지었습니다.

15 염곡로

천일염을 생산하던 주안염전 터에서 서구 연희동의 경명대로와 만나는 지점까지 난 길이 7,550m의 도로입니다. 이 길이 지나는 가정동, 연희동과 경서동, 검암동, 백석동에도 염전이 있었습니다.

16 옷우물로

명가골로에 이어져서 남쪽으로 길주로까지 가는 길이 388m의 도로입니다. 옷우물은 석남동 북쪽에 있던 가장 큰 마을입니다. 옷나무로 뒤덮인 동산에 우물이 있어 옷우물이라 했습니다.

17 원석로

가좌동의 인천북향에서 석남동을 거쳐 원창동까지 가는 길이 2,502m의 도로입니다. 원창동과 석남동의 머릿글자를 따서 지었습니다.

18 울도로

봉수대로와 인천대로를 동서로 연결하는 석남동과 신현동, 가정동을 지나는 1,267m 길이의 도로입니다. 울도(밤섬)으로 들어가는 길이므로 울도로라고 지었습니다.

19 칠천왕로

가정로를 끼고 가운데 옷우물로와 나란히 가는 389m의 도로입니다. 옛날 이곳에서 바다까지 가려면 칠천보를 걸어야 했기에 칠천왕(七千往)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13) 시천동

우리 마을을 지나는 대로는 입니다.



① 서곶로

가정동 서달산 아래에서 연희동, 심곡동, 검암동, 백석동, 당하동을 지나 불로동까지 가는 9,372m의 도로입니다. 서구의 옛 이름 석곶은 지형이 꼬챙이처럼 길게 바다를 향해 뻗어있으며 돌이 많다고 하여 붙인 이름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웃 모월곶과 합쳐 서곶으로 바뀌었습니다. 해안을 매립할 때 서곶이란 이름을 남기고자 도로 이름에 붙였습니다.

② 아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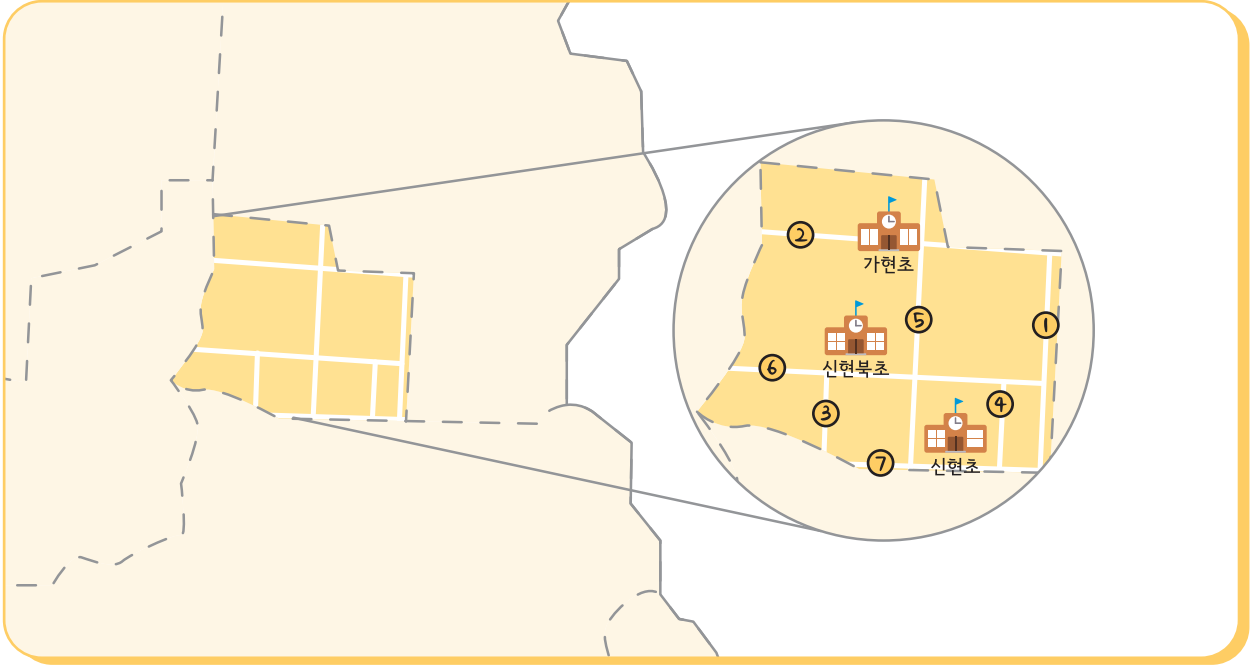
경인아라뱃길 북쪽 시천교 북측전망대에서 계양구 장기동의 계양아라온까지 이어지는 길이 5,520m의 도로입니다.

③ 정서진로

오류동 정서진에서 아라뱃길 남쪽으로 검암동, 시천동을 지나 계양구를 거쳐 김포 고촌읍까지 가는 총길이 16,680m의 도로입니다. 정서진은 서울의 광화문을 기준으로 정서쪽에 있는 나루라 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14) 신현동

우리 마을을 지나는 대로는 입니다.



① 가정로

가좌동 가좌삼거리에서 가정동 봉오재3로까지 4,352m 길이의 도로입니다. 도로 이름은 가정동에서 따왔습니다. 가정동은 조선의 개국공신 조반이 이 마을에 ‘가정(아름다운 정자)’이란 정자를 세운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② 봉오재로

봉수대로와 서곶로를 가로지르는 도로로 길이는 589m입니다. 축곶산 서남쪽에 있던 봉오재란 옛 마을의 이름을 딴 첫 번째 도로입니다. 봉오재2로와 3로는 가정동에 있습니다.

③ 새오개로

석남동 신석초등학교에서 신현동까지 연결된 길이 1,118m의 도로입니다. 조선시대 포리(원창동)에 세곡을 보관하는 전조창을 짓고 서울로 운반할 때 새로운 고개길을 만들었는데 새고개(신현)가 변형되어 새오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육로를 통해서 세곡을 운반했다는 역사적 근거는 없는 편이라 조사가 더 필요합니다. 새오개로 신현동 구간에는 신현여자중학교가 있습니다.

④ 신현로

가정로를 가운데 두고 가정동의 가경주로와 나란히 가는 459m 길이의 도로입니다. 새오개의 한자 이름 신현동을 따서 지었습니다.

5 염곡로

천일염을 생산하던 주안염전 터에서 서구 연희동의 경명대로와 만나는 지점까지 난 길이 7,550m의 도로입니다. 이 길이 지나는 가정동, 연희동과 경서동, 검암동, 백석동에도 염전이 있었습니다. 염곡로 신현동 구간에는 신현고등학교, 인천가현초등학교, 가현중학교가 있습니다.

6 원창로

원창동 중봉대로에서 갈라져 가정동 인천지하철 2호선 가정중앙시장역까지 가는 총 2,443m 길이의 도로입니다. 조선시대 세곡 창고인 전조창이 있었던 원창동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원창로 신현동 구간에는 인천신현북초등학교, 신현중학교가 있습니다.

7 율도로

봉수대로와 인천대로를 동서로 연결하는 석남동과 신현동, 가정동을 지나는 1,267m 길이의 도로입니다. 율도(밤섬)으로 들어가는 길이므로 이름지었습니다. 율도로 신현동 구간에는 인천신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15) 심곡동

우리 마을을 지나는 대로는 입니다.



1 대평로

염곡로와 서곶로를 가로로 연결하여 심곡동과 연희동을 나누는 길이 682m의 도로입니다. 옛날 서곶초등학교 남쪽에 있는 넓은 들을 대평들이라 해서 지은 이름입니다.

② 서곶로

가정동 서달산 아래에서 연희동, 심곡동, 검암동, 백석동, 당하동을 지나 불로동까지 가는 9,372m의 도로입니다. 서구의 옛이름 석곶은 지형이 꼬챙이처럼 길게 바다를 향해 뻗어있는데 돌이 많다고 하여 붙이 이름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웃 모월곶과 합쳐 서곶으로 바뀌었습니다. 해안을 매립할 때 서곶이란 이름을 남기고자 도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③ 승학로

가정동 인천지하철 2호선 가정역 부근에서 시작하여 승학고개를 지나 검암동 꽃뚝길까지 가는 길이 6,023m의 도로입니다. 현재 가정역 주변 개발로 인하여 도로의 시작점은 막혀있고 실제 도로의 시작은 승학산 입구 애두름공원입니다. 승학산의 고개는 싱아풀이 많아 싱아고개 혹은 학이 오르는 모습을 닮아 승학고개라 했습니다. 승학로 심곡동 구간에는 양지초등학교가 있습니다.

④ 심곡로

연희동에서 공촌동을 거쳐 심곡동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주차장 G1까지 연결된 2,136m의 도로입니다. 심곡동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심곡로 심곡동 구간에는 인천심곡초등학교가 있습니다.

⑤ 염곡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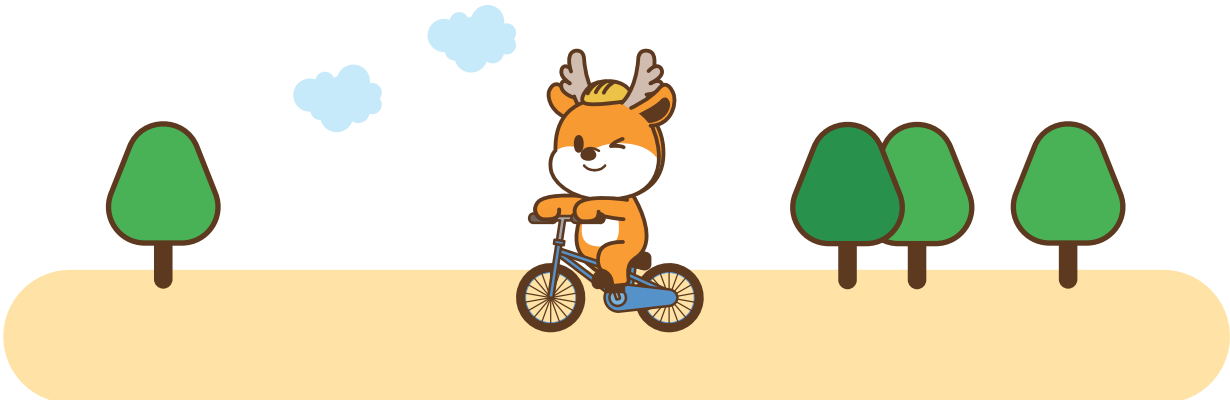
천일염을 생산하던 주안염전 터에서 서구 연희동의 경명대로와 만나는 지점까지 난 길이 7,550m의 도로입니다. 이 길이 지나는 가정동, 연희동과 경서동, 검암동, 백석동에도 염전이 있었습니다.

⑥ 용두산로

연희동 연희포대지를 지나 심곡동까지 가는 길이 2,108m의 도로입니다. 중간에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이 들어서 도로가 끊겼다가 심곡동에서 다시 이어집니다. 연희포대지가 있는 용두산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용두산은 바닷가로 뻗은 산줄기가 뭉쳐 마치 용의 머리와 같아 붙인 이름입니다.

⑦ 탁옥로

연희동 인천아시아드경기장 동쪽 편에서 인천지하철 2호선 서구청역을 지나 심곡동 인천심곡초등학교까지 이어진 길이 1,089m의 도로입니다. 인천심곡초등학교 뒤 천마산의 한 봉우리인 탁옥봉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16) 연희동

우리 마을을 지나는 대로는 입니다.



1 간촌로

서곶로와 심곡로를 가로로 연결하는 길이 444m의 도로입니다. 연희동의 큰 마을인 연일과 공촌마을 사이에 있었던 간촌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2 대평로

염곡로와 서곶로를 가로로 연결하여 심곡동과 연희동을 나누는 길이 682m의 도로입니다. 옛날 서곶초등학교 남쪽에 있는 넓은 들을 대평들이라 해서 지은 이름입니다. 대평로에는 인천서곶초등학교와 서곶중학교, 인천디자인고등학교가 있습니다.

3 서곶로

가정동 서달산 아래에서 연희동, 심곡동, 검암동, 백석동, 당하동을 지나 불로동까지 가는 9,372m의 도로입니다. 서구의 옛 이름 석곶은 지형이 꼬챙이처럼 길게 바다를 향해 뻗어있으며 돌이 많다고 하여 붙인 이름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웃 모월곶과 합쳐 서곶으로 바뀌었습니다. 해안을 매립할 때 서곶이란 이름을 남기고자 도로 이름에 붙였습니다.

4 승학로

가정동 인천지하철 2호선 가정역 부근에서 시작하여 승학고개를 지나 검암동 꽃뫼길까지 가는 길이 6,023m의 도로입니다. 현재 가정역 주변 개발로 인하여 도로의 시작점은 막혀있고 실제 도로의 시작은 승학산 입구 애두름공원입니다. 승학산의 고개는 싱아풀이 많아 싱아고개 혹은 학이 오르는 모습을 닮아 승학고개라 했습니다.

5 심곡로

연희동에서 공촌동을 거쳐 심곡동까지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주차장 G1까지 연결된 2,136m의 도로입니다. 심곡동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6 연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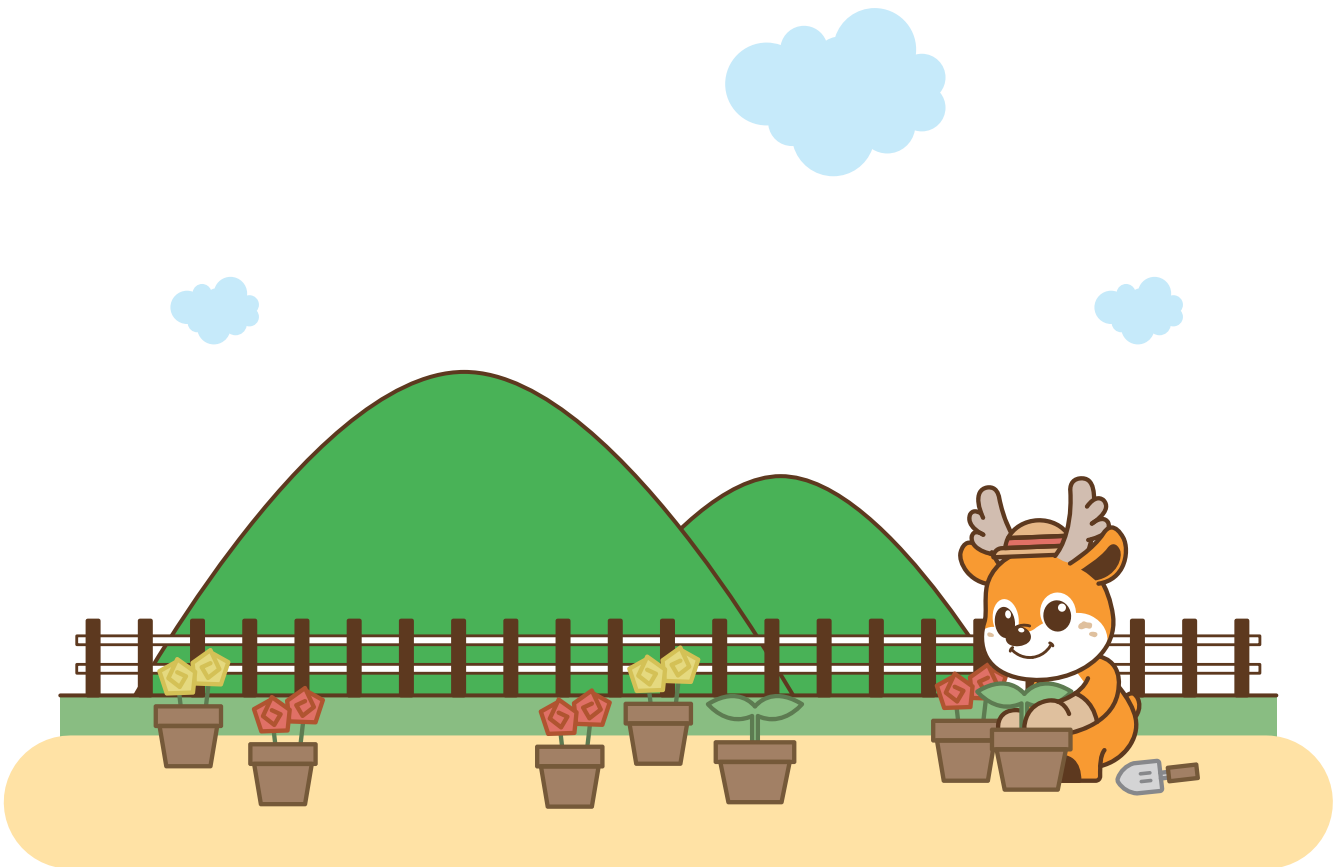
서곶중학교에서 서곶로까지 동서로 잇는 도로입니다. 조선시대 말 서양 열강의 침략을 막고 부평의 해안가를 지키기 위해 설치했던 연희진의 터를 지냅니다.

7 염곡로

천일염을 생산하던 주안염전 터에서 서구 연희동의 경명대로와 만나는 지점까지 난 길이 7,550m의 도로입니다. 이 길이 지나는 가정동, 연희동과 경서동, 검암동, 백석동에도 염전이 있었습니다.

8 용두산로

연희동 연희포대지를 지나 심곡동까지 가는 길이 2,108m의 도로입니다. 중간에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이 들어서 도로가 끊겼다가 심곡동에서 다시 이어집니다. 연희포대지가 있는 용두산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용두산은 바닷가로 뻗은 산줄기가 뭉쳐 마치 용의 머리와 같아 붙인 이름입니다.



17) 오류동

우리 마을을 지나는 대로는 입니다.



1 가람로

오류동 서쪽 끝에 있는 528m 길이의 도로입니다. 가람은 '강'의 순우리말입니다. 가람로 주변에 검단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② 갑문로

아라뱃길의 끝 선박의 통로인 갑문의 주변 도로로 길이는 440m입니다. 인천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서 배가 항상 드나들 수 있도록 갑문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했고, 갑문의 특성을 반영한 도로입니다.

③ 거침로

거침도에서 아라뱃길 너머 북청라IC 삼거리까지 연결되는 길이 5,057m의 도로입니다. 거침도는 섬이었지만 매립되어 육지화되었습니다.

④ 검단로

서구 오류동 검단천에서 왕길동, 마전동, 불로동을 지나 경기도 김포시 중봉삼거리까지 이어지는 길이 10,262m의 도로로 검단신도시 중심을 지나갑니다.

⑤ 검단천로

서구 검단일반산업단지를 크게 U자 형태로 끼고 도는 3,686m의 도로로 주변에 검단천이 있습니다.

⑥ 금호로

오류동을 지나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서쪽에 있는 402m 길이의 도로입니다. 금호동이란 옛 마을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금호동은 한국전쟁 후 실향민들이 갯벌을 매립하여 개간하여 생긴 마을입니다. 김포 가까운 지역이어서 김포의 김(金)과 호수 호(湖)를 써서 금호동이라 했습니다. 70년 전만 해도 오류동의 바닷가 마을이었지만 지금은 더 많은 땅을 매립하여 오류동의 중앙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⑦ 길무로

오류동 검단산업단지에서 길무도로 진입하는 길이 2,344m의 도로입니다. 길무도는 오류동 가장 남쪽에 있던 작은 섬으로 매립이 되어 육지가 되었습니다.

⑧ 누리로

오류동 검단산업단지를 관통하는 길이 526m의 도로입니다. 누리는 '세상'을 뜻하는 순우리말입니다.

⑨ 단봉로

왕길동 검단회전교차로에서 오류동 반월로를 만나는 지점까지 길이 2,356m의 도로입니다. 단봉로 오류동 구간에는 인천단봉초등학교가 있습니다.

⑩ 대촌로

백석산 아래에서 검단로로 가는 길이 308m의 도로입니다. 대촌은 백석산 동남쪽 골짜기에 있던 마을로 인근에서 가장 큰 마을이어서 큰말이라고도 했습니다.

11 도담로

오류동 검단산업단지를 관통하는 길이 2,021m의 도로입니다. 도담하다는 ‘야무지고 탐스럽다’는 순우리말입니다.

12 두루물로

검단산업단지와 드림파크 사이의 길이 1,014m의 도로입니다. 두루물은 오류동 바로 옆 왕길동 당산 기슭의 큰 우물을 말합니다.

13 마중로

오류동 검단산업단지의 길이 1,888m의 도로입니다. 마중은 ‘나가서 맞이한다’는 순우리말입니다.

14 반월로

의생명공학연구소에서 원당대로를 만나는 지점까지의 길이 1,574m의 도로입니다. 반월도는 금호동 북쪽에 있는 섬이었는데 제방을 쌓으면서 육지가 되어 반월촌이라 했습니다.

15 백석산로

오류경로당에서 대촌2교차로까지 백석산을 끼고 도는 길이 740m의 도로입니다. 백석산은 오류동의 주산으로 정상에 석영으로 된 바위가 있어 백석산이라 합니다. 예전에 봉수대가 있었습니다.

16 뱃길로

경인아라뱃길 갑문로와 거침로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길이 263m의 도로입니다.

17 버들로

단봉초등학교에서 시작하여 검단로를 만나기까지 길이 497m의 도로입니다. 오동나무와 버드나무가 많아서 오류동이라 했는데 그중 버들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18 보듬로

오류동 검단산업단지의 도로로 마중로와 나란히 가는 길이 1,882m의 도로입니다. 보듬다는 ‘사람이나 동물을 가슴에 붙도록 안다’라는 순우리말입니다.

19 약암로

거침로 끝에서 김포 약암양식장까지 가는 길이 9,921m의 도로입니다. 근처에 약암온천이 있습니다. 조선 25대 임금 철종이 강화도로 행차하던 중 이 온천물로 눈을 씻은 뒤 눈병이 나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20 오류로

단봉로에서 인천지하철 2호선 검단오류역까지 이어지는 길이 308m의 도로입니다.

21 자원순환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동문에서 환경에너지타운까지 이어지는 길로 야생화단지, 골프장, 제2매립장, 폐자원 에너지시설, 제3매립장까지 자원의 선순환을 보여주는 길입니다. 자원순환로의 총 길이는 6,587m입니다.

22 정서진로

오류동 정서진에서 아래뱃길 남쪽으로 검암동, 시천동을 지나 계양구를 거쳐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까지 가는 총길이 16,680m의 도로입니다. 정서진은 서울의 광화문을 기준으로 정서쪽에 있는 나루라 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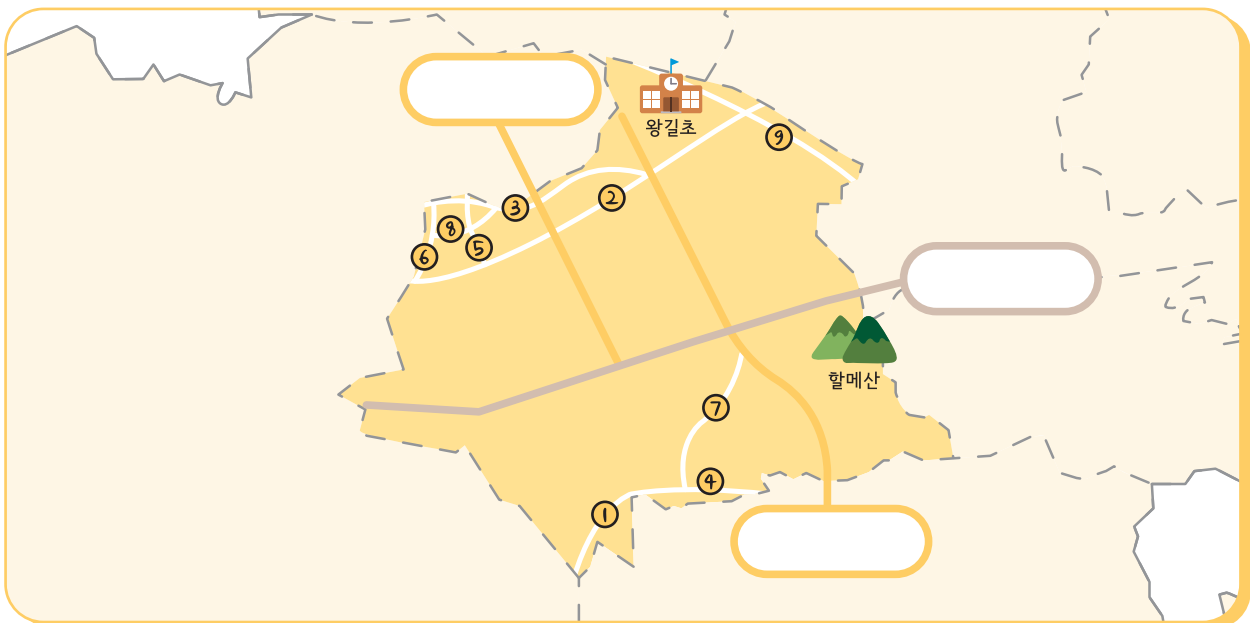
23 환경로

서구의 종합환경연구단지를 지나는 길이 1,865m의 도로입니다.

18) 왕길동

우리 마을을 지나는 대로는 입니다.

대로는 인천왕길초등학교를 지나갑니다.



① 거월로

드림파크 골프장과 드림파크 승마장 사이를 지나는 길이 602m의 도로입니다. 거월은 백석동과 맞닿아있는 마을로 큰 달(거월, 巨月)을 보며 농사와 어로가 잘 되기를 바라는 제천의식을 했던 곳으로 짐작합니다.

② 검단로

서구 오류동 검단천에서 왕길동, 마전동, 불로동을 지나 경기도 김포시 중봉삼거리까지 이어지는 길이 10,262m의 도로로 검단신도시 중심을 지나갑니다.

③ 단봉로

왕길동 검단회전교차로에서 오류동 반월로를 만나는 지점까지 길이 2,356m의 도로입니다.

④ 드림로

왕길동 수도권매립지에서 백석동, 당하, 원당동을 거쳐 경기도 김포시 갈현동 수송도로삼거리까지 연결된 14,541m의 도로입니다. 경인아라뱃길 건설로 우회하는 도로가 개설되어 처음 개통 때보다 길이가 늘었습니다. 매립지 내 드림파크와 연결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⑤ 버들로

왕길동 봉화로와 오류동 검단로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길이 497m의 도로입니다. 오동나무와 버드나무가 많아서 오류동이라 했는데 그 중 버들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⑥ 봉화로

왕길동 봉수대로에서 갈라져 금곡동 검단로와 만나는 총길이 2,623m의 도로입니다. 봉수대가 있던 백석산 아래 마을인 봉화촌을 지나서 붙인 이름입니다.

⑦ 사월로

백석동 드림로에서 왕길동 봉수대로를 잇는 길이 988m의 도로입니다. 사월은 속사곶과 거월마을이 합쳐진 이름입니다. 바닷가에 모래를 가마니에 담아 제방을 쌓아 농지를 만들었다해서 모래 사(沙)자를 써서 속사곶이라 했는데 1914년 거월과 합쳐 사월로 되었습니다.

⑧ 오동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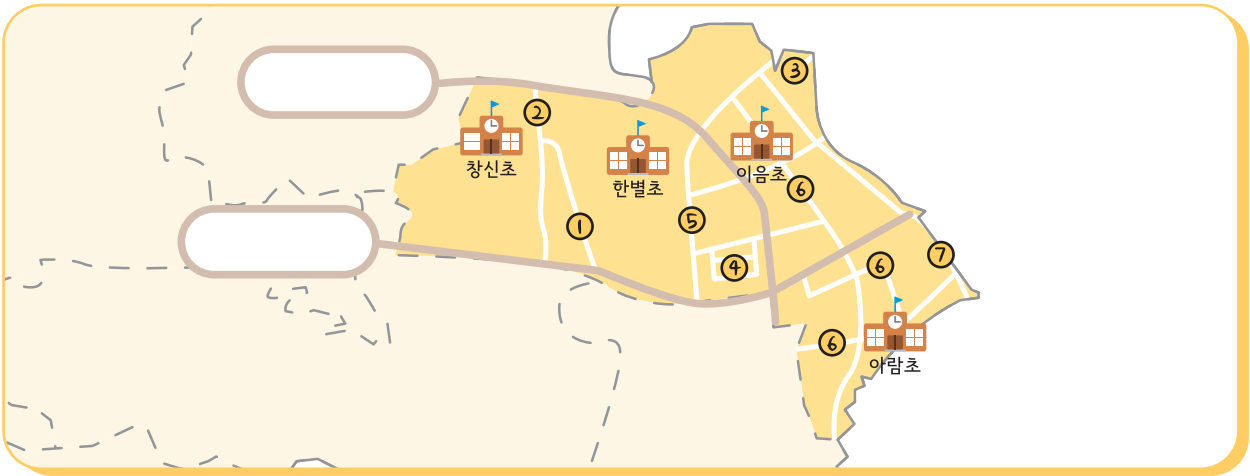
봉화로와 단봉로를 동서로 잇는 길이 414m의 도로입니다. 오동나무와 버드나무가 많아서 오류동이라 했는데 그중 오동나무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⑨ 완정로

금곡동 세자봉 삼거리 마전동의 인천지하철 2호선 완정역 앞 원당대로까지 이어진 길이 2,727m의 도로입니다. 전해오는 바로는 고려시대부터 이 마을에 우물이 있었는데 물 맛이 좋고 샘이 잘 나 '완정'으로 이름 붙여졌다고 합니다.

19) 원당동

우리 마을을 지나는 대로는 입니다.



① 고산로

원당동 고산을 지나는 길이 791m의 도로입니다. 고산로에는 원당고등학교, 원당중학교가 있습니다.

② 고산후로

원당동의 고산 뒷 마을을 고산후라 했습니다. 고산후로는 당하동에서 원당동 거쳐 불로동 목향초입구 삼거리까지 이어지는 길이 4,125m의 도로입니다. 고산후로 원당동 구간에는 인천창신초등학교가 있습니다.

③ 당곡로

당곡삼거리에서 원당천까지 가는 길이 288m의 비교적 짧은 도로입니다. 도로의 끝에는 옛날 김포 풍우리의 당곡마을이 있었습니다.

④ 발산로

원당대로 북쪽에 ㅂ자 형태의 도로입니다. 발산이라는 옛 마을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이 마을은 남쪽을 제외한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마치 바리때⁴⁾와 같다고 하여 바리뒀 또는 바리미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한자로 표기하며 바리 발(鉢)자를 써서 발산이 되었습니다.

⑤ 서로3로, 4로

'서로 발전하는 도시'라는 뜻으로 신도시의 남북을 잇는 세 번째, 네 번째 도로로 김포시 풍무동과 마주하며 지나갑니다. 도로의 길이는 1,114m입니다.

4) 바리때 : 발우. 절에서 쓰는 공양그릇

⑥ 이음 1로, 4로, 5로, 6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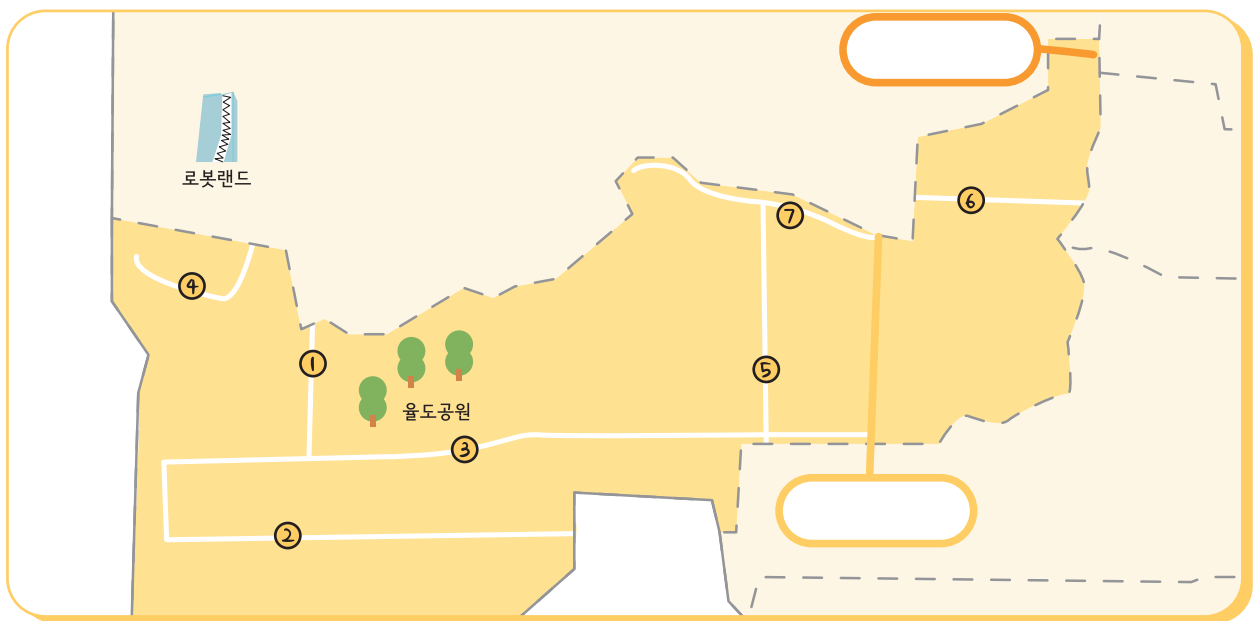
원당동에서 아라동까지 신도시의 동서를 잇는 첫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도로라는 뜻입니다. 이음 1로에는 인천이음초등학교, 인천아람초등학교, 이음중학교가 있습니다.

⑦ 장제로

부평구 만월산터널에서 계양구를 거쳐 원당동까지 이르는 총길이 12.6km의 긴 도로입니다. 장제는 통일신라시기 부평의 이름입니다.

20) 원창동

우리 마을을 지나는 대로는 입니다.



① 로봇랜드로

청라동 북쪽 끝에서 인천로봇랜드 본사와 로봇랜드 예정지를 지나 북항배후단지까지 가는 길이 5,430m의 도로입니다.

② 북항단지로

북항배후단지의 중앙을 통과하는 길이 1,812m의 도로입니다.

3 북향로

원창동 북향에서 석남동 서인천 선착장입구 교차로까지 이어지는 길이 3,083m의 도로입니다.

4 북향배후로

북향 북쪽 목재단지를 지나는 길이 1,149m의 도로입니다. 이곳은 북향배후단지 북측에 조성된 또 다른 목재단지로 인천항만공사 관할지역입니다.

5 원석로

서구 가좌동에서 원창동 211-2까지 가는 길이 2,502m의 도로입니다. 원창동과 석남동의 머릿글자를 따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6 원창로

원창동 중봉대로에서 갈라져 가정동 인천지하철 2호선 가정중앙시장역까지 가는 총 2,443m 길이의 도로입니다. 조선시대 세곡선에 실려 온 곡식을 보관하던 창고가 있던 마을 원창동을 따서 붙인 도로 이름입니다. 원창로 원창동 구간에는 인천서구청소년센터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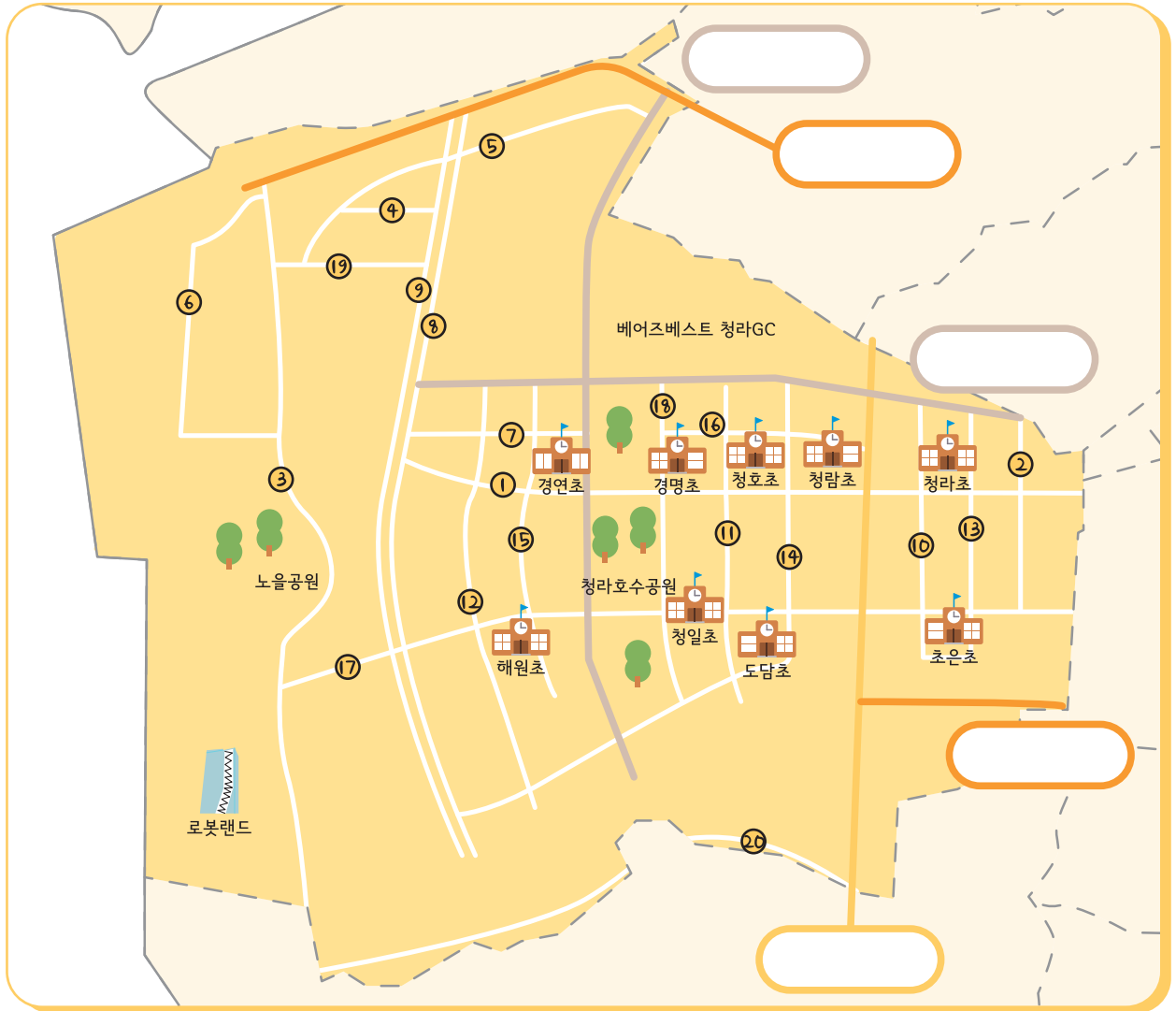
7 파랑로

원창동에서 청라도 남쪽 지역으로 이어지는 길이 5,560m의 도로입니다. 청라도의 다른 이름은 파렴입니다. 푸른 넝쿨이 많아 섬 전체가 파랗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를 살려 파랑로라 이름 지었습니다.



2) 청라동

우리 마을을 지나는 대로는 입니다.



청라동은 바다를 메워 섬에서 육지로 변한 곳이라 대부분 새로운 도로입니다.

1 경제로

청라동 해변공원과 청라고등학교를 동서로 연결하는 길이 3,636m의 도로입니다. 청라자유경제구역에서 따왔습니다.

2 담지로

청라고등학교 앞을 남북으로 지나가는 길이 1,157m 도로입니다. 심곡천 옆 수변공간에서 착안하여 연못 담, 연못 지를 써서 도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③ 로봇랜드로

청라동 북쪽 끝에서 로봇랜드 본사와 로봇랜드 예정지를 지나 북항배후단지까지 가는 길이 5,430m의 도로입니다.

④ 세계로

청라동 북서쪽에 위치한 길이 520m의 도로입니다. 근처에 청라국제도시역이 있습니다.

⑤ 에코로

청라동 탐구예코삼거리에서 청라대로 예코삼거리까지 연결된 길이 2,276m의 도로입니다. 예코삼거리 맞은편에 있는 인천서부일반산업단지는 2022년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최첨단 친환경 업종들이 들어서는 친환경복합단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⑥ 상도로

청라동의 북서쪽 끝에 위치한 길이 3,288m의 도로입니다. 청라도 위 장도라는 섬이 있던 곳입니다.

⑦ 차오름로

국제대로와 경제로 사이 동서로 지나가는 길이 1,112m의 도로입니다. 차오름은 청라경제자유구역이 박차고 힘껏 날아오르는 기상처럼 발전하라는 뜻에서 지은 이름입니다. 차오름로에는 인천경연초등학교, 경연중학교가 있습니다.

⑧ 첨단동로

청라국제지하차도 동쪽의 길이 4,243m의 도로입니다.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한 지역적 특성을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⑨ 첨단서로

청라국제지하차도 서쪽의 길이 4,258m의 도로입니다.

⑩ 청라라임로

청라에메랄드로와 중봉대로 사이의 길이 1,425m의 도로입니다. 에메랄드 존의 yellow-green 색상에서 착안하여 지었습니다. 청라라임로에는 초은중학교와 청라중학교가 있습니다.

⑪ 청라루비로

청라경제자유구역의 가운데 루비존 지역의 길이 1,853m의 도로입니다.

⑫ 청라사파이어로

청라경제자유구역의 가장 오른쪽 사파이어존 지역의 길이 3,080m의 도로입니다. 청라사파이어로에는 인천해원초등학교가 있습니다.

13 청라에메랄드로

청라경제자유구역의 가장 왼쪽인 에메랄드존 지역의 길이 1,699m의 도로입니다. 청라에메랄드로에는 인천청라초등학교와 인천초은초등학교가 있습니다.

14 청라커널로

청라 중심의 길이 3,721m의 도로로 청라 중심에 청라호수공원 즉 커널(canal, 인공수로)가 있음을 부각하기 위하여 붙인 이름입니다. 청라커널로에는 인천도담초등학교와 인천청람초등학교, 인천청람중학교가 있습니다.

15 청라한내로

청라호수공원 서쪽을 지나는 길이 1,844m의 도로입니다. 한내는 큰 시내라는 뜻입니다. 청라한내로에는 해원중학교가 있습니다.

16 청라한울로

청라호수공원 옆 크리스탈로와 중봉대로를 연결하는 길이 1,189m의 도로입니다. 우주, 진실이 가득하라는 의미에서 지었습니다. 청라한울로에는 인천청호초등학교학교와 청호중학교가 있습니다.

17 청중로

청라경제자유구역의 중앙을 동서로 관통하여 가정동 소금꽃 공원까지 오는 길이 4,605m의 도로로 청라중앙로를 줄인 말입니다.

18 크리스탈로

청라호수공원의 동쪽을 지나는 길이 1,857m의 도로입니다. 공원 내 크리스탈마루 이름을 따와서 썼습니다. 크리스탈로에는 인천경명초등학교와 인천청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19 탐구로

청라동 서북쪽을 가르는 길이 1,348m의 도로입니다. 도로 서쪽 끝에는 인천체육고등학교가, 동쪽 끝에는 청라달튼외국인학교가 있어서 학문을 탐구하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20 파랑로

원창동에서 청라도 남쪽 지역으로 이어지는 길이 5,560m의 도로입니다. 청라도의 다른 이름은 파렴입니다. 푸른 넝쿨이 많아 섬 전체가 파랗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를 살려 파랑로라 이름 지었습니다.



청라동에는 특이하게 보석이름을 붙인 도로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인천청라경제자유구역 개발 단계에서 경관계획으로 청라가 국제도시인만큼 화려한 보석을 콘셉트로 잡았습니다. 청라경제자유구역을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 존으로 나누고 각 보석 고유의 색깔은 건축물 등 경관을 구성하는데 반영되었습니다. 각 존은 이후 청라1동, 청라2동, 청라3동으로 되었고 도로 이름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부록. 서구의 옛길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백두대간이 있는 동쪽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비교적 평야가 많은 서쪽 지역에도 낮은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에서 흐른 물은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어 바다로 흘러갑니다. 산과 물은 마을을 가르는 경계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물길이 가로막으면 다리를 놓거나 배를 이용하여 이동하고 산이 막으면 고개를 넘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우리 서구의 옛 사람들은 어떤 고갯길과 물길을 이용했을까요?

1) 서구의 고갯길



고려시대 개경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발아현

어느 시대이든 한 나라의 수도는 사람과 물건이 모이는 곳입니다. 고려시대에는 전국 곳곳에서 수도 개경으로 가는 길이 22개가 있었습니다. 그중 서구는 개경과 남경(지금의 서울)을 연결하는 청교도의 중간에 위치했습니다. 각 도로에는 공무를 집행중인 관리가 쉬어가고 말을 빌릴 수 있는 역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남경에서 개경으로 가는 방법 중 하나가 계양산 북서쪽에 있던 금륜역에서 김포의 수안역을 거쳐 임진강에서 배를 타고 개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금륜역에서 김포로 가기 위해 넘어갔던 고개가 검암동의 발아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와 수도 개경을 연결하는 길도 중림역(인천 남동구)과 금륜역을 거쳤기 때문에 발아현은 삼남지방에서 개경으로 갈 때 거쳐가는 길목의 구실을 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은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됩니다. 발아현 길 옆으로 발아장이 있었고 근처 꽃뚝 아래에는 구슬원이라는 여각(숙소)도 있었습니다. 발아장은 조선시대까지 남아있었습니다.



서구와 계양구를 연결하는 고개 1 - 징맹이고개

징맹이고개는 서구 공촌동과 계양구 계산동을 연결하는 계양산의 고개입니다.

고려가 원의 간섭을 받던 충렬왕 때 이곳에 응방을 설치합니다. 응방은 원에 조공으로 바칠 사냥매를 훈련시키는 기관입니다. 원래는 개경에 있었으나 훈련중인 매가 민가의 닭이나 새끼 돼지를 채가는 일이 잦아 원성이 높자 이곳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를 징발하던 고개라는 뜻으로 '징맹이고개' 혹은 '징매이고개'라 불렀습니다. 매사냥을 즐긴 충렬왕은 재위기간 중 이곳에 다섯 차례나 다녀갔다고 합니다.

숲이 우거져 산적들이 많았는데 조선시대 유명한 도적인 임궽정도 이곳에서 부하를 훈련시켰다 합니다. 계양산 산적들은 난폭하기로 유명해 고개를 넘는 사람들이 갖고 있던 값나가는 것도 빼앗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앗아갔습니다. 산적들 때문에 사람들은 산아래에서 천명은 모여야 안전하게 고개를 넘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징맹이고개를 달리 '천명고개'라고도 합니다.

약 100년 전 서구에는 아직 근대학교가 없었습니다. 1929년 서곶초등학교가 생기기 전까지 서구 지역의 어린이들은 징맹이고개를 넘어 계양구에 있는 부평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1872년 지방지도>에 나타난 서구의 옛길



출처 : 서구사 상



서구와 계양구를 연결하는 고개 2 - 아나지고개

아나지고개는 서구 가정동과 계양구 효성동, 청천동을 이어주는 고개입니다. 아나지고개는 구십현이라고도 했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보다는 새로운 나라에 걸맞게 수도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때 이성계가 신임하던 무학대사가 전국을 돌며 수도가 될만한 곳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이때 부평에도 왔는데 수도가 되려면 모두 100개의 골짜기(고개)가 있어야 된다고 하여 높은 산에 올라 골짜기 수를 세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고개의 수가 딱 100개였습니다. 무학대사는 기뻐서 이성계를 모셔왔습니다. 이성계는 다시 세어보니 이상하게도 한 개가 모자랐습니다. 결국 부평은 수도 후보에서 탈락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유난히 낮은 고개가 앞의 큰 산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고개 때문에 수도가 되지 못해 원통하다하여 원통이고개라 불렀습니다. 원통이고개는 간석오거리 부근 만월산에 있는 고개입니다. 무학대사와 이성계가 골짜기 수를 셀 때 아흔 번째 센 고개가 바로 아나지고개였다고 합니다.



서구와 부평구를 연결하는 고개 - 장고개

장고개는 서구 가좌동에서 부평구 산곡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입니다.

옛날 계양산 아래 효성동에서 산곡동까지는 넓은 초지가 있어서 말을 키우던 곳이라 마장뜰이라고 했습니다. 장고개란 바로 마장으로 가는 고개란 뜻입니다. 부평으로 가는 고개 중 가장 낮은 고개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고개를 주로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미군부대가 들어서면서 고갯길은 막히게 되었고 가좌동 사람들은 부평으로 가려면 아나지고개로 멀리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1972년 원적산을 관통하는 도로(원적산길)를 개통하여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장고개는 오랫동안 길로서의 기능을 잃었지만 최근 미군부대가 이전한 이후 다시 도로를 잇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서구의 물길



굴포천과 포리 이야기

예전에는 도로의 사정이 좋지 않아 물자 운송 대부분 강이나 바다를 이용했습니다. 때문에 옛날 수도는 강가에 위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우리나라에서 곡식이 가장 많이 나는 삼남지방(경상도, 충청도, 전라도)에서 세곡으로 거둔 곡식을 실은 배(세곡선)가 서구 앞바다를 지나 임진강을 거쳐 수도 개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임진강으로 들어가기 직전 만나는 강화의 손돌목은 물살이 세고 암초가 많아 세곡선이 자주 난파되었습니다. 고려시대 무신정권의 지도자 최우는 손돌목을 피하기 위해 인천 앞바다에서 한강으로 연결되는 물길을 만들고자 했으나 시행에 옮기지 못합니다.

조선시대에도 손돌목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수도 한양이 있는 한강으로 세곡선이 들어오려면 반드시 손돌목을 지나야했기 때문입니다. 종종 임금 때 드디어 한양과 인천 앞바다를 물길로 연결하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커다란 바위에 막혀 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이때 뚫었던 한강에서 부평까지 연결되는 물길을 굴포천이라 합니다.

개항 이후 세곡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 전운서는 서양의 증기선을 이용하여 험한 물길을 돌파할 계획을 세웁니다. 또, 서울의 쌀상인들의 곡식 독점으로 봄이 되면 쌀 품귀현상이 일어나 백성들이 고통받게 되자 포구에 창고(전조창)를 설치하여 곡식을 보관하다 날이 풀리면 서울로 곡식을 운반할 계획도 세웁니다. 서구의 포리에도 이때 전조창이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포리는 지금의 원창동입니다. 창고가 있는 마을이란 뜻으로 원창동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갯골이 막아 오가기 힘들었던 가좌동 마을

동구의 송현동, 송림동과 서구 가좌동 사이에는 지금은 인천일반 산업단지 등 여러 공장들이 들어서 있지만 예전에는 커다란 갯골이 있는 바다였습니다.

두 지역을 오가기 위한 교통수단은 작은 나룻배였습니다. 가좌동쪽 갯골에는 번지기나루란 이름의 나룻터가 2개 있었습니다. 그 중 윗나루는 비교적 갯골간 거리가 짧아 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나룻배로 건넜고 물이 빠졌을 때는 돌다리로 건너다녔습니다. 작은 배라 많은 사람이 탈 수 없었고 버스를 타면 십정동까지 돌아가야했기 때문에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 불편은 1958년 번지기나루가 있던 갯골에 인천교라는 다리가 놓이면서 해결되었습니다. 인천교는 1980년대 갯골이 매립되면서 도로에 포함되어 다리의 기능은 잃어버리고 이름으로만 남아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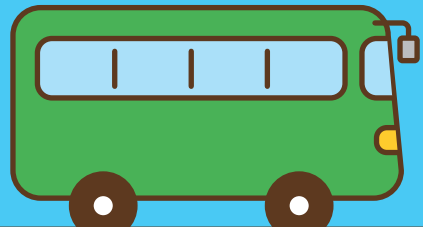
출처 : 서구문화원 사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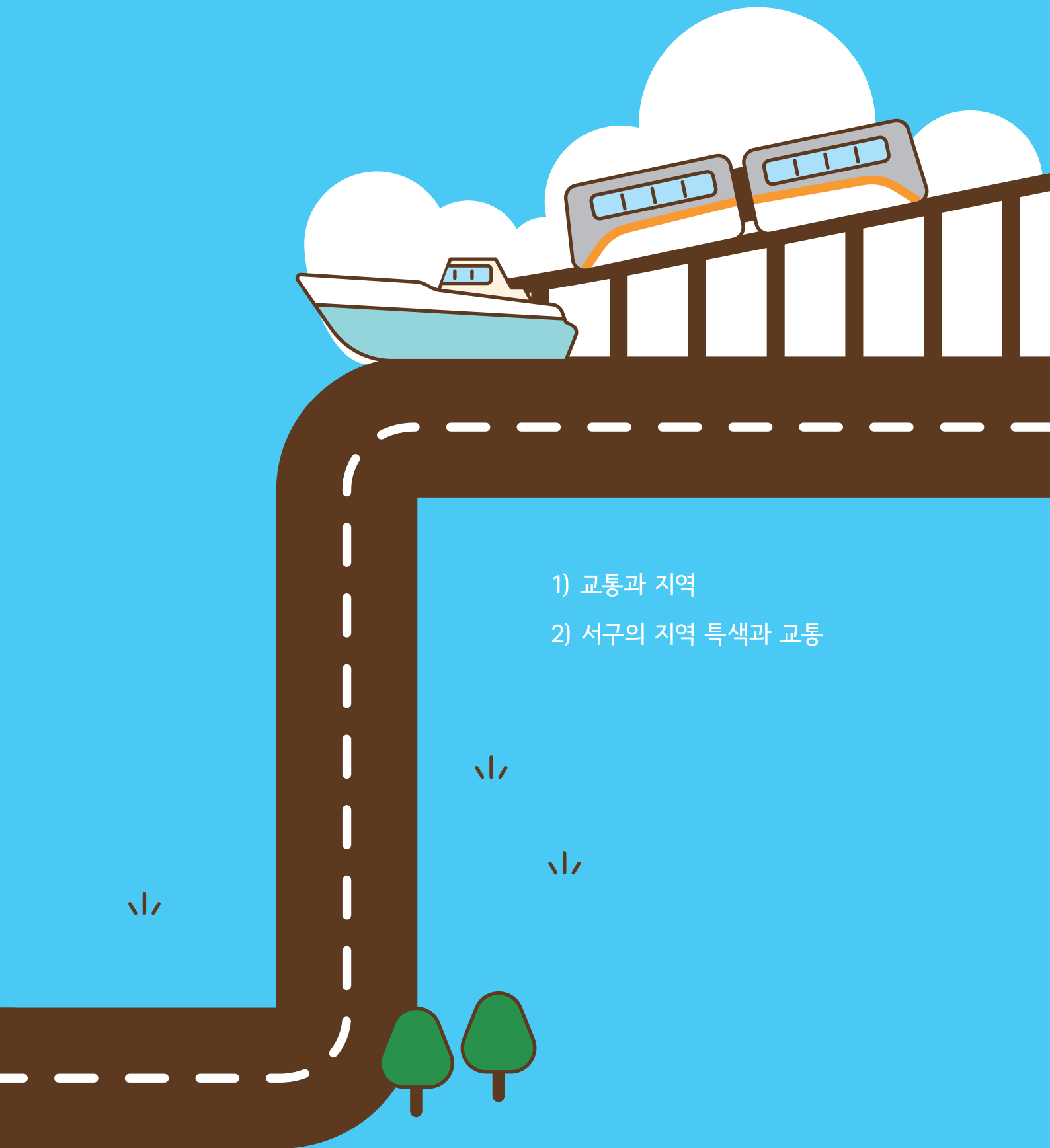
2

서구의 교통



영상으로 배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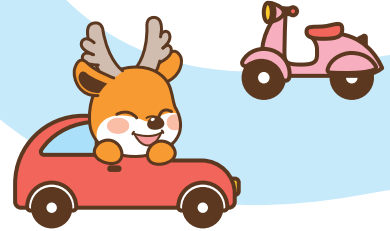




1) 교통과 지역

2) 서구의 지역 특색과 교통

2 서구의 교통



1. 교통과 지역

1) 교통이란?

교통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사람이 오고가거나 짐을 실어 나르는 일을 말합니다. 교통수단에는 자동차, 기차, 배, 비행기 등이 있습니다.

소식이나 정보를 주고받는 소통도 교통이라고 합니다. 사람이나 나라 사이의 교제나 왕래 역시 교통입니다. 소통하려면 교통을 통해 이동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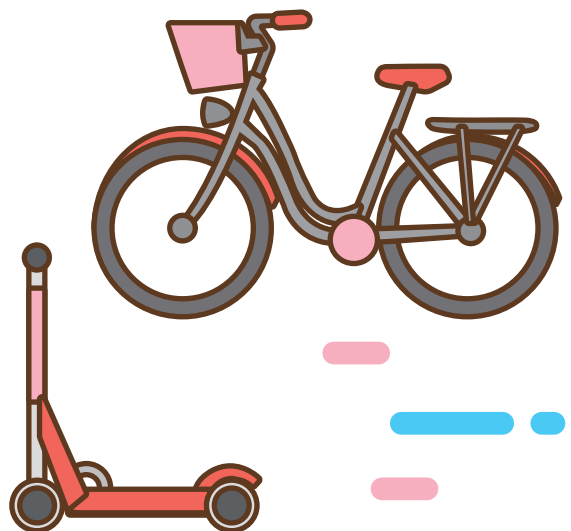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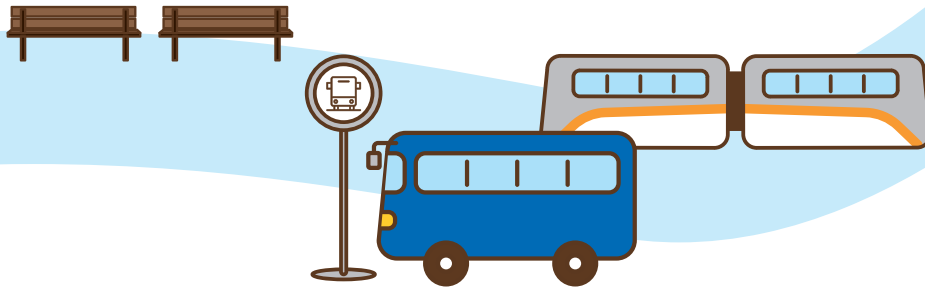
소통과 이동 모두 교통을 뜻하며,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교통을 하려면 길과 교통수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거리는 도보나 자전거를, 먼 거리는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학교나 직장에 다니고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을 방문하며 사회생활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서구에서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동네와 우리가 사는 서구의 특색을 잘 알아야 생활이 편리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교통은 소통과 이동을 뜻하며 사회생활에 꼭 필요합니다.

친환경 탈 것

요즘은 동네마다 자전거나 킥보드가 마련되어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이 위협받는 시대에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대신하여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면 주위 환경을 더 가까이서 천천히 둘러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도로가 잘 정비되지 않은 곳에서 한눈팔거나 실수하면 위험합니다.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교통규칙을 잘 지키면서 타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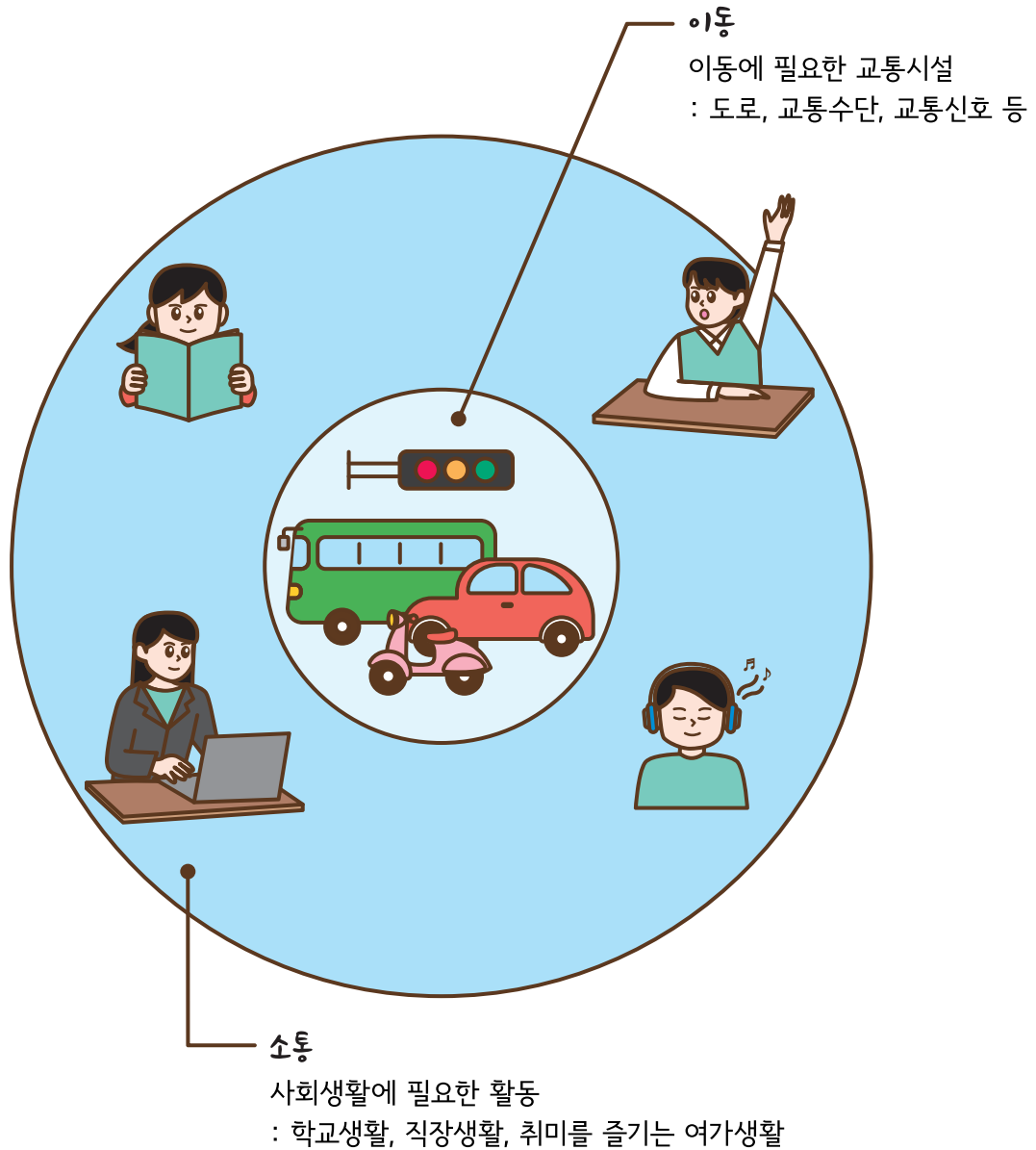




2) 교통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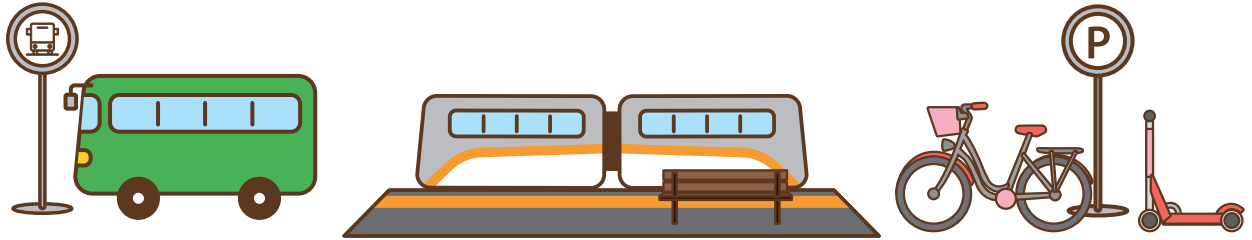
교통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동과 이동에 필요한 교통수단을 통틀어 교통이라고 말합니다.

소통도 교통이며 사회생활에 필요합니다. 사회생활은 학교생활, 직장생활, 여가생활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활동을 통틀어 말합니다.



2. 서구의 지역 특색과 교통

우리 집 가까이 있는 대중교통수단은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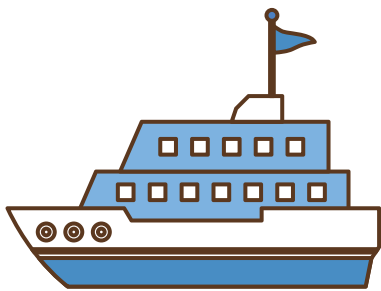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서구에서 가 본 곳을 말해 봅시다.

언제, 왜 갔는지, 무슨 활동을 했는지, 또는 무엇을 보았는지도 말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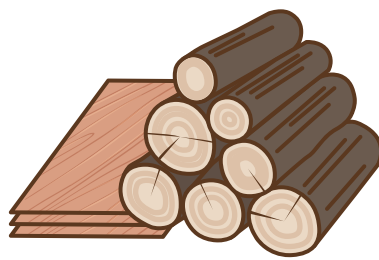
1) 서구의 지역 특색

교통을 살펴보면 그 지역의 특색을 알 수 있습니다. 교통이 발달한 곳에는 사람이 몰립니다. 서구에 인구가 늘어난 것은 공업지대가 들어선 뒤부터입니다. 공장이 세워지면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옵니다. 서구는 바닷가를 끼고 있어 일찍이 목재단지가 들어섰습니다. 동남아시아나 북아메리카 같은 곳에서 수입한 목재가 항구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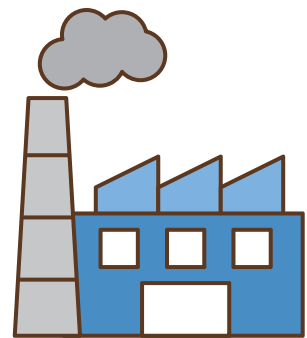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공장지대로 집중합니다.



서구의 북항



서구의 목재단지



서구의 산업단지

산업이 발전하면서 인구가 늘면 아파트 단지나 주택 등 주거시설이 늘어나고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섭니다. 주택이 밀집한 주변으로 시장이 생겼으며 동네에는 각종 상가가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이 이용하는 버스 노선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사람이 몰리는 시장 주변은 버스 노선이 집중되어 교통이 편리해집니다.

사람들이 물리는 시장은 교통이 편리합니다.



신도시 건설은 인구 증가를 초래합니다.

오늘날 도시와 주택 건설은 정부가 주도합니다. 급격히 팽창하는 도시 인구를 분산하고 주택을 보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구는 드넓은 매립지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사실 서구의 토지 반은 섬과 갯벌을 간척한 땅입니다. 다른 한편 서구에는 산과 들을 개간하여 건설한 신도시가 들어섰습니다.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가 그 사례입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교통이 발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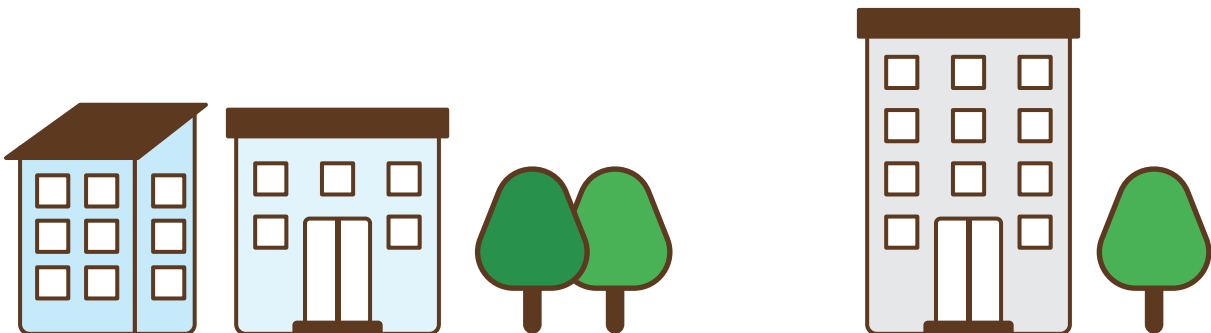
새로운 도시가 들어서자 초기에 형성된 동네는 신도시에 비하여 도로가 좁고 문화시설이 부족했으며 아파트는 오래되어 낙후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런 지역을 재개발하여 탄생한 곳이 신현동과 가정동 일대의 루원시티입니다.

도시의 형태가 크게 달라지면서 버스 노선은 조정되었고 늘어난 인구를 실어 나르기 위해 도시철도가 놓였습니다. 예전에는 시장이 형성되었다면 신도시에는 대형마트가 들어서서 시장의 기능을 대신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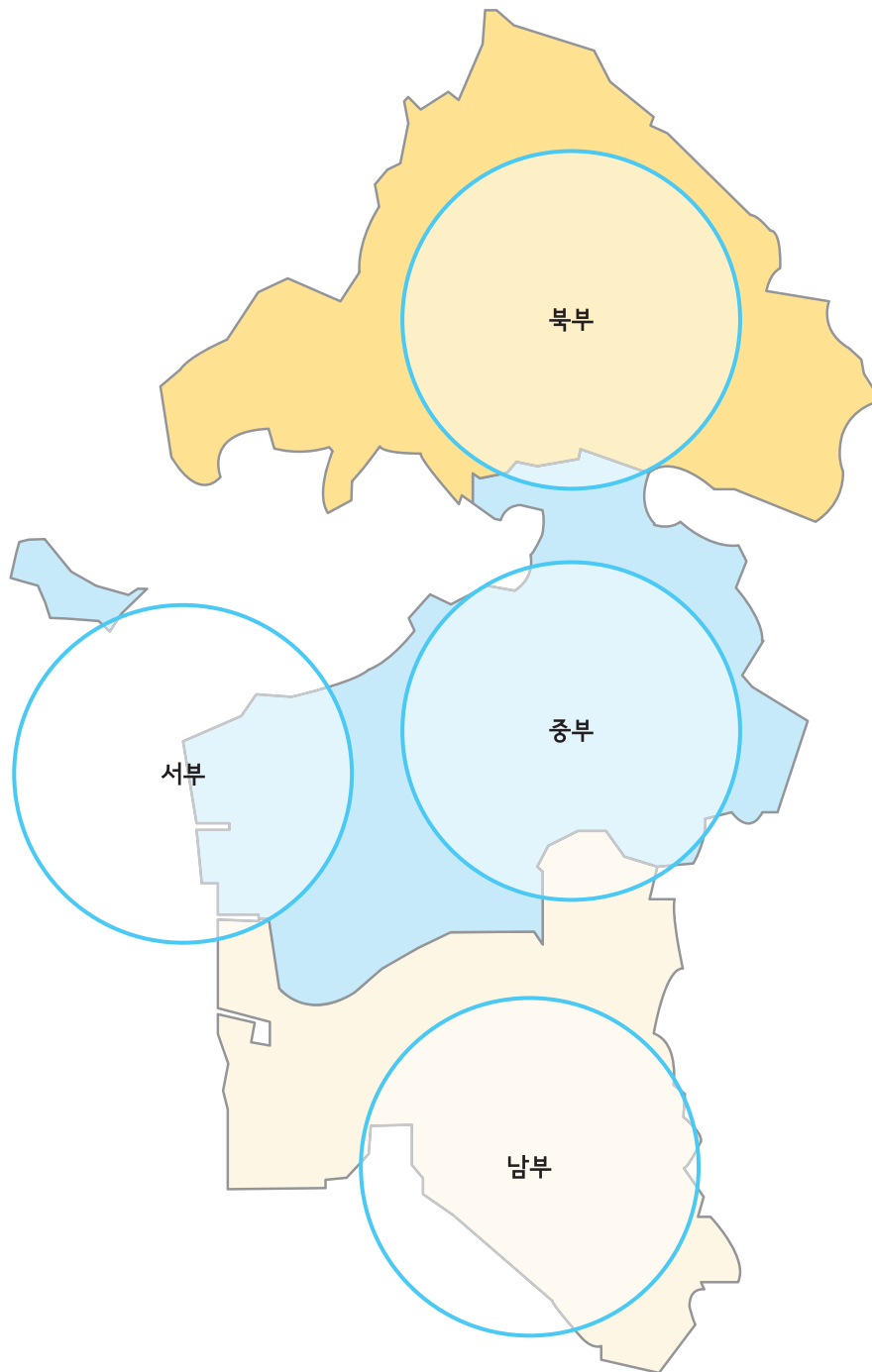
청라국제도시



출처 : 서곶사진누리



2) 서구의 교통, 동네에서 동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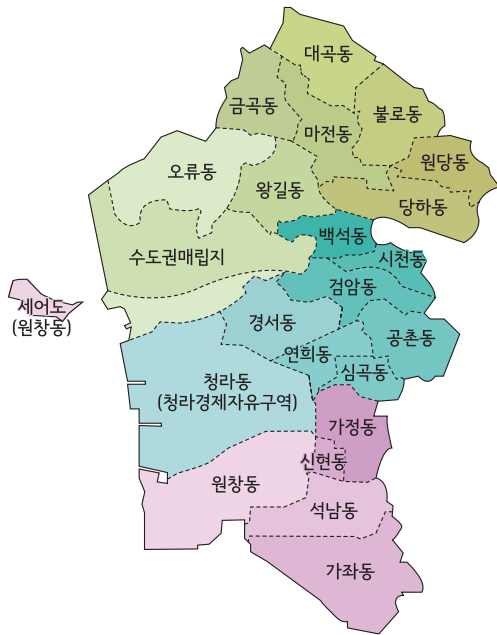


서구는 크게 네 개의 권역인 중부, 남부, 서부, 북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부는 주거 상업지역, 남부는 목재단지와 수출5·6공단이 있는 공업지역입니다. 신항개발 지역은 서부와 북부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서부는 해안매립지역으로 청라국제도시와 루원시티가 들어서면서 복합 기능 도시로 변화했습니다. 북부는 농경지역과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도·농 복합도시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수도권의 서북부 거점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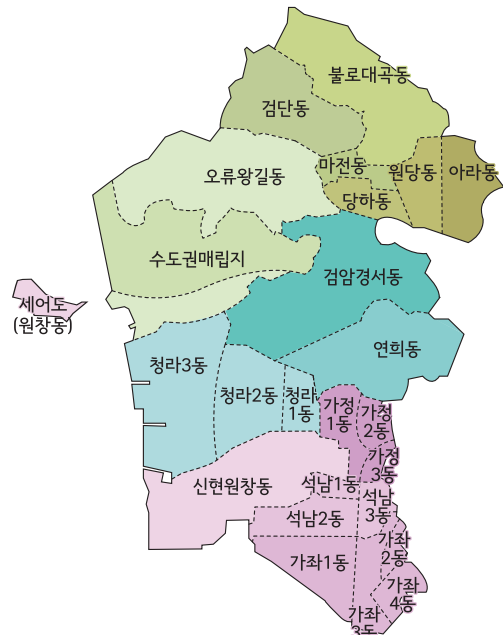
● 우리 동네, 서구의 법정동과 행정동

서구를 법정동으로 나누면 21개의 동이고, 행정동으로 나누면 23개의 동이 됩니다.

법정동은 법으로 정한 동네이고 행정동은 행정 처리를 위해 만든 동입니다. 법정동과 행정동은 이름이 같을 수도 있고 지역이 변하면서 여러 행정동으로 나누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여러 법정동을 하나의 행정동으로 통합하기도 합니다.



법정동



행정동



법정동이 합쳐진 행정동

- 검암경서동 : 검암동 경서동 백석동 시천동
- 연희동 : 연희동 공촌동 심곡동
- 신현원창동 : 신현동 원창동
- 검단동 : 마전동(일부) 금곡동
- 불로대곡동 : 불로동 대곡동

- 원당동 : 당하동(일부) 원당동
- 당하동 : 당하동(일부) 마전동(일부)
- 오류왕길동 : 오류동 왕길동
- 아라동 : 원당동(일부) 당하동(일부)



법정동에서 갈라진 행정동

- 청라1, 2, 3동(2018년 7월 1일 법정동인 청라동 신설) : 청라동
- 가정1, 2, 3동 : 가정동

- 가좌1, 2, 3, 4동 : 가좌동
- 석남1, 2, 3동 : 석남동

● 서구의 도로망

도시의 교통은 흔히 혈액순환에 비유됩니다. 혈관이 잘 뚫려 있어야 산소와 영양소를 실은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까지 전달되어 건강을 유지하듯이 도로가 원활해야 생활도 편리해집니다. 반대로, 도로가 막히면 사람들은 불편을 겪고, 이는 도시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도로를 혈관에 비유하면, 도로 위를 달리는 교통수단은 혈액이고, 그 안에 탄 사람들은 목적지로 전달되는 산소와 영양소에 해당됩니다. 도시의 도로망은 대로와 로뿐만 아니라 샛길까지 포함하며, 이를 지도에 나타내면 복잡한 그물망과 같은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내버스를 간선버스와 지선버스로 나누었습니다. 이는 혈관을 굵은 정맥과 동맥, 그리고 가느다란 모세혈관으로 구분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 간선버스, 지선버스, 인천e음버스



간선버스의 노선은 인천시 전 지역을 범위로 하여 순환하고, 지선버스는 구 안에서 몇 개 마을을 범위로 하여 다닙니다. 지선버스는 처음 생길 때 이름이던 마을버스로 더 많이 불립니다. 종류가 다른 버스를 쉽게 구분하도록 간선버스는 파란색, 지선버스는 연두색, 인천e음버스는 올리브 그린색으로 색깔을 지정했습니다.

마을을 구석구석 다니는 지선버스는 간선버스나 도시 지하철과 연계됩니다. 지선버스는 동네와 역을 순환합니다. 이때 역은 구 안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접한 다른 구의 역이 가까운 경우에는 다른 구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겹치고 밀리는 교통 상황을 최소화하도록 교통 시스템을 만들지만, 상황이 바뀌면 노선을 조절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대응하게 됩니다.

그 예가 인천시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인천e음버스는 교통취약지역을 순환합니다. 이런 곳은 주로 원도심 일부 지역이거나 대단지 아파트 입주지역입니다. 서구에는 84번, 85번, 86번이 배치되었습니다. 요금은 인천e음버스의 취지에 따라 지선버스에 맞췄습니다.

인천e음84번

청라1호문화공원↔청라국제도시역(서부산단방향)

인천e음85번

청라BRT통합차고지↔청라국제도시역(청라국제교방향)

인천e음86번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동문)↔한국생산기술연구원(주조기술센터)

주요 공공기관이나 시설에 가는 버스 가운데, 우리 동네에서 가는 버스는 몇 번이 있는지 말해 봅시다.

<가정동>



가정동은 세 개의 행정동인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으로 나뉩니다. 북동쪽의 승학산을 제외하면 가정동에는 대부분 주택단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현동 일부와 가정동 일부가 재개발되면서 루원시티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루원시티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상업 공간과 문화시설이 들어서는 중이고 오래전에 주거지역이 형성되었던 가정동에는 전통 시장인 정서진중앙시장이 있습니다.

가정동은 경인고속도로가 일반도로로 전환하는 구역의 기점이기도 합니다. 인천지하철 2호선이 남북으로 관통하며 가정중앙시장역, 가정역을 지나갑니다. 주요시설로는 인천 국민안전체험관이 있으며, 루원복합청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문화시설에는 서구문화회관,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이 있습니다.

서구문화회관을 지나가는 대중교통은 14번, 526번, 592번 버스가 있고, 인천지하철 2호선 가정중앙시장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좌동>

가좌동은 네 개의 행정동인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으로 나뉩니다. 중소기업과 소규모 제조공장이 밀집한 공업지역이 가좌나들목(IC) 주변으로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 결과 일찍이 인구가 집중되고 가좌동 진주아파트 같은 대단지 아파트가 건설되었으며 가좌시장이 있으며 같은 해 축산물 시장도 개설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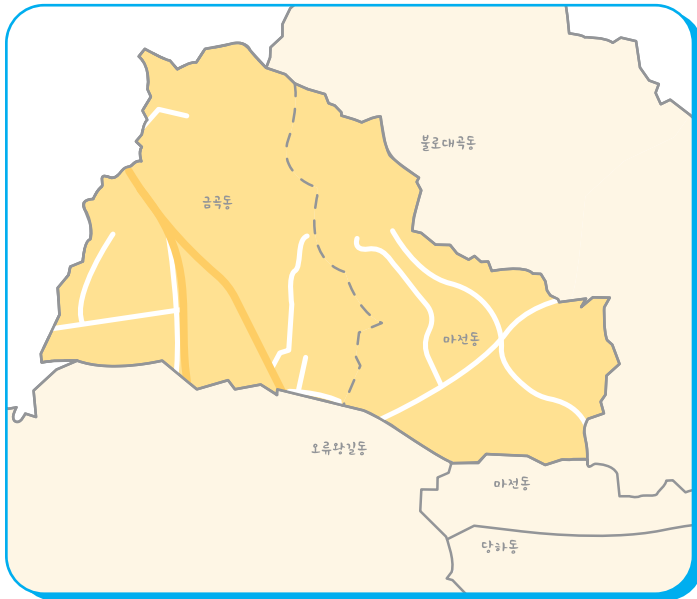
인천지하철 2호선이 주안국가산단역, 가재울역, 인천가좌역을 거치며 동네를 남북으로 관통합니다.

주요 공공시설로 인천광역시 교육청 서구도서관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서구도서관에서 가까운 대중교통으로는 11번, 14번, 24번, 42번, 67-1번, 592번, 인천지하철 2호선 인천가좌역이 있습니다.



<검단동>



검단동은 금곡동과 마전동 일부가 합쳐진 행정동으로 도·농 복합지역입니다. 가현산이 북쪽에서 동네로 뻗어 내리며 남서쪽 기슭으로 일반산업단지를 품고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는 오류왕길동에서 이어지는 지역입니다. 그 대칭 지역에 신도시 주택가가 형성되었으며 남동쪽으로는 개발 예정인 인천검단지구 택지가 마전동까지 이어집니다.

인천지하철 2호선은 검단동 경계를 지나는데 오류왕길동에 있는 검단사거리역이나 마전동에 있는 마전역이

가깝습니다. 검단동과 마전동 사이에 걸쳐 있는 인천서구검단다목적체육관에 서는 버스는 17번, 70번, 71번, 78번, 79번, 순환83번, 인천e음88번, 841번, 90번, 90-1번, 310번, 800번이 있습니다.

<검암경서동>

검암경서동은 검암동, 경서동, 시천동, 백석동이라는 4개의 법정동을 합친 행정동입니다. 신도시 지역으로 남서부에 서부 일반산업단지가 있고, 동쪽으로는 계양산으로 이어지는 꽃메산이 있습니다.

동서로 지역을 가르는 경인아라뱃길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남북으로 관통하는 인천지하철 2호선은 검암역, 검바위역에 정차하며 당하동과 검암경서동 경계에 독정역이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인천 경서동 녹청자 요지가 있고, 인천 서구 녹청자 박물관이 검암경서동에 있습니다. 경인아라뱃길을 따라 시천나루 선착장이 있으며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드림파크 스포츠 센터 등도 있습니다.

인천 서구 녹청자박물관에 하차하는 버스는 43번, 70번, 591번, 595번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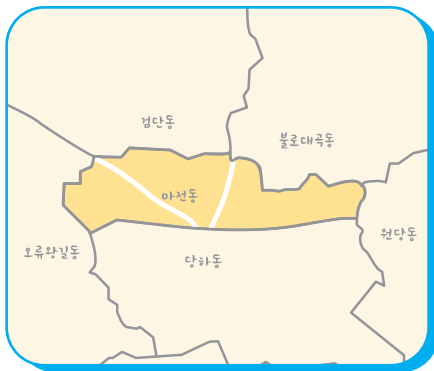


<당하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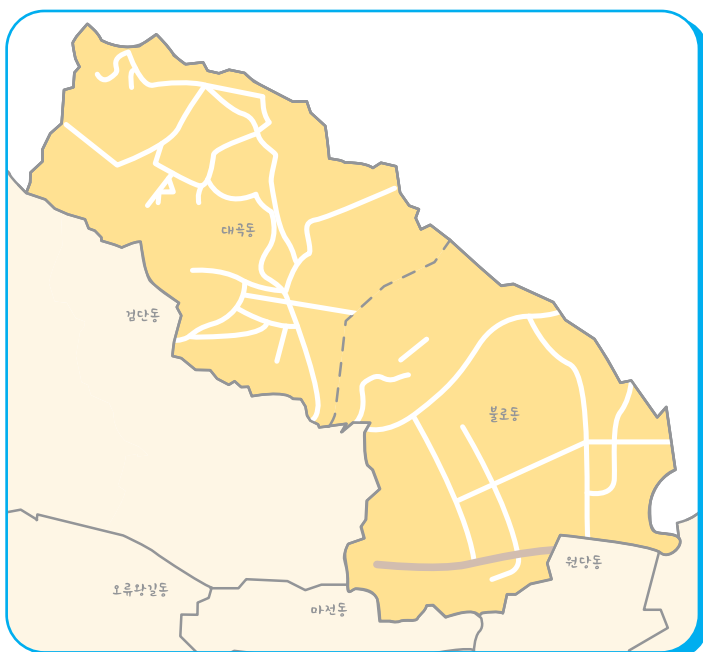
당하동은 당하동 일부와 마전동 일부를 통합한 행정동입니다. 검단신도시 개발로 들어선 아파트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당하동에는 청소년 교육시설로 인천영어마을이 있으며 주요 공공시설로는 인천검단소방서가 있습니다. 인천지하철 2호선이 독정역과 완정역을 지나며, 독정역은 검암경서동과 당하동 경계에 있습니다. 인천영어마을에 서는 버스는 30번, 841번, 30번, 1002번입니다.

<마전동>



마전동은 법정동인 마전동 일부가 현재의 행정동이 되었습니다. 검단신도시 개발로 조성된 마을입니다. 지역의 절반 정도가 주택이 들어서지 않은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지구 예정지입니다. 마전역에 서는 버스는 17번, 70번, 71번, 78번, 79번, 순환83번, 인천e음88번, 841번, 90번, 90-1번, 310번, 800번입니다.

<불로대곡동>



불로대곡동은 불로동과 대곡동을 통합한 행정동입니다. 도·농 복합지역이며 북쪽이 산기슭에 형성된 자연마을이라면 남쪽은 새로 조성된 검단지구 택지입니다. 택지 지구의 절반 이상이 주택이 들어설 예정지입니다. 불로대곡동에는 인천시 기념물 제33호로 지정된 검단 대곡동 지석묘군이 있습니다. 검단 대곡동 지석묘군으로 가는 버스로는 대곡 5번이 있습니다.

<석남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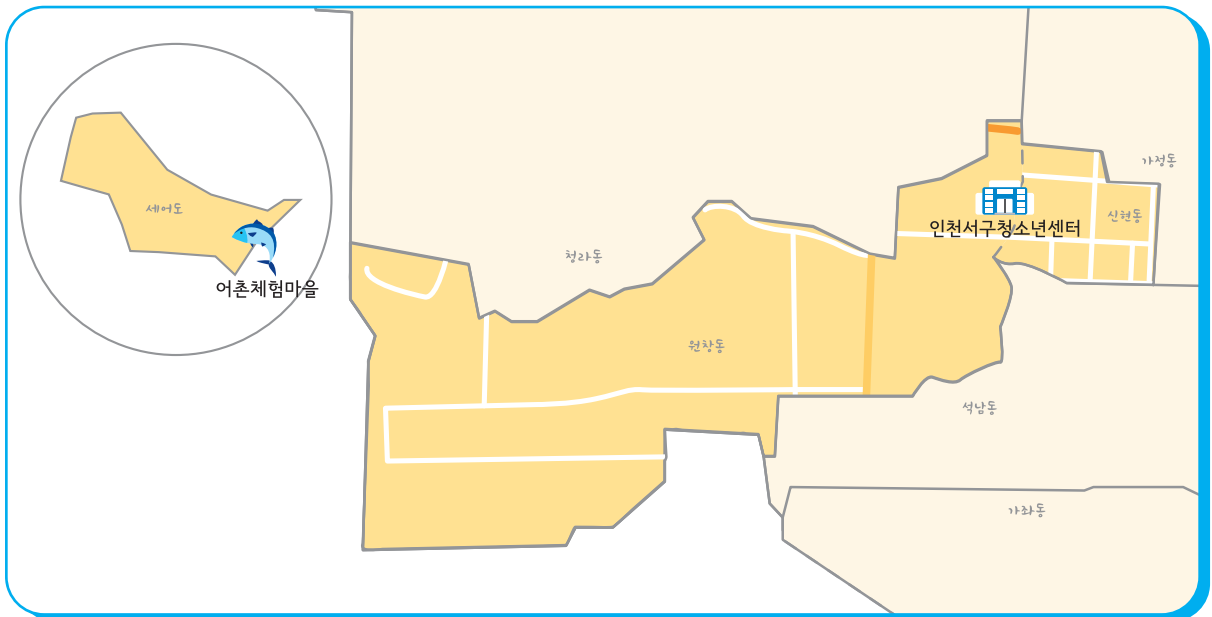


석남동은 세 개의 행정동인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으로 나뉩니다. 주택가는 동쪽의 원적산과 서쪽의 공업지대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향 제4부두와 가까운 해안을 끼고 서쪽 지역 절반이 공업지역이라 인구가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일찍부터 거주지가 형성되고

시장이 들어섰습니다. 전통시장으로는 거북시장, 신거북시장, 강남시장이 있습니다. 석남동은 인천지하철 2호선이 남북으로 관통하며 서부여성회관역에서 승하차합니다. 또 인천지하철 2호선과 서울지하철 7호선이 교차하는 석남역이 있습니다. 주요 공공시설로는 석남어린이도서관이 있습니다. 거북시장을 지나는 대중교통으로는 103번, 12번, 3-2번, 7번이 있습니다.

<신현원창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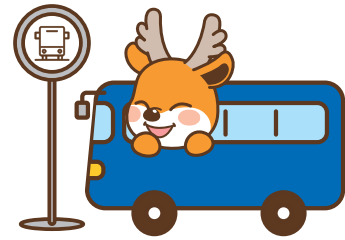
신현원창동은 법정동인 신현동과 원창동을 합친 법정동입니다. 서구 유일의 섬 세어도는 신현원창동 소속입니다. 서쪽으로는 인천 북향과 북향 제4부두를 낀 배후단지가 있어 창고와 물류센터 역할을 합니다. 원래 원창동은 세곡을 하역하고 보관하던 해안마을이었습니다. 세곡을 곡식으로 거두던 조선시대에 삼남 지방에서 배편으로 올라온 곡식을 한양으로 실어 나르기 전에 이곳에 모아둔 것입니다. 지명에도 창고라는 뜻이 들어 있어 지역 특색을 전통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울도라는 지명은 섬의 흔적을 안고 있습니다. 울도는 신현동 안에 있는 장소로 매립된 섬입니다. 동쪽으로는 일찍부터 주거단지가 형성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재개발로, 가정동과 인접한 지역에 루원시티가 들어섰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인천서구청소년센터가 있습니다. 또 세어도에는 어촌체험마을이 있습니다. 인천서구청소년센터를 지나는 대중교통에는 22번, 80번, 584번, 596번, 300번, 86번 버스가 있습니다.

<아라동>



아라동은 원당동 일부와 당하동 일부를 통합한 행정동입니다. 검단신도시 택지에 조성되었으며 계양천과 대보천이 마을을 흐릅니다. 넓은 들에 조성한 마을이며 계획된 도시라 도로와 편의시설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주요 공공기관으로는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2025년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연희동>



연희동은 세 개의 법정동인 연희동, 심곡동, 공촌동을 합친 행정동입니다. 공촌천을 경계로 검암경서동과 마주 보고 있습니다. 남서쪽으로 구릉지대인 용두산이 길게 누워 있으며 산자락에 이름처럼 너른 들인 태평들이 펼쳐집니다. 동쪽 주택가와 벌판을 포함한 서쪽의 구릉지대를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이 가르고 있습니다. 연희동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인천지하철 2호선 아시아드경기장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희동에는 유적지로 연희진지가 있습니다. 주요 관공서로 인천광역시 서구청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서부경찰서, 서부소방서가 있습니다. 서구청을 지나가는 대중교통에는 13번, 43-1번, 66번, 700-1번, 800번이 있습니다.

<오류왕길동>



오류왕길동은 법정동인 오류동과 왕길동이 합쳐진 행정동입니다. 도·농복합 지역이며 검단동, 마전동, 당하동과 인접한 지역으로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와 인접한 지역에 형성된 공업단지 방면으로 수도권제2순환도로가 남북을 관통합니다. 동서로 놓인 인천지하철 2호선은 종착역인 검단오류역에서부터 왕길역, 검단사거리역을 지나갑니다. 또 수도권매립지에 조성한 드림파크 주민체육공원과 정서진이 있습니다. 오류왕길동에는 드림파크 주민체육공원이 있으며 30번, 75번, 79번 버스가 다닙니다.

<원당동>



원당동은 원당동과 당하동 일부가 합쳐진 법정동입니다. 신도시 개발로 주택가가 형성되었으며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주요 문화시설로 검단선사박물관이 있고 어린이 교육시설인 인천서구 영어마을 GEC(Global Education Center)도 있습니다.

현재 계양역에서 멈춘 인천지하철 1호선 공사가 끝나면 원당동을 남북으로 관통할 예정입니다. 검단선사박물관을 가는 버스로는 30번, 78번, 841번, 1002번, 308번, 인천e음88번 등이 있습니다.

<청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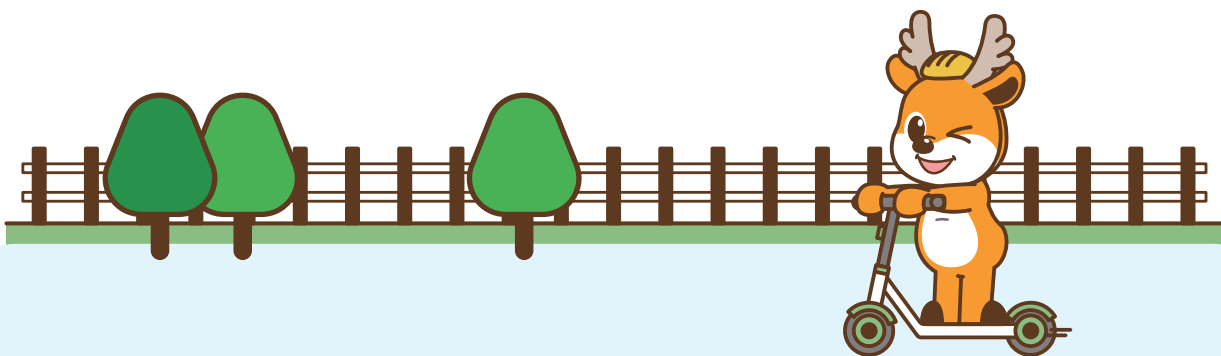


청라동은 2018년 7월 1일 신설된 법정동입니다. 청라도와 그 주변을 매립한 지역에 세워졌으며 세 개의 행정동 청라1동, 청라2동, 청라3동을 포함합니다. 청라동은 2003년에 특별경제지역인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특별경제지역이란 국제 금융과 게임, 문화, 엔터테인먼트 등의 복합도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북쪽으로는 공촌천이, 남쪽으로는 심곡천이 흐르며 황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서쪽 해안가에는 일반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공항철도가 나란히 지나가며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합니다. 수도권제2순환도로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교차합니다.

강과 호수가 둘러싸고 있어 청라호수공원, 커널웨이수변공원, 공촌유수지체육시설 등 물을 낀 공원이 많습니다. 주요 공공기관으로는 청라국제도서관, 인천해양경찰서 등이 있으며, 영종대교휴게소도 가 볼 만합니다.

청라국제도서관을 지나가는 버스는 2-1번, 42번, 47번, 591번, 44번, 202번, 인천e음84번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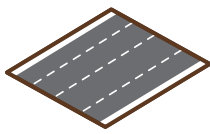


3) 서구의 교통, 구에서 구로, 시에서 시로

서구는 바다를 끼고 발달한 농·공복합 또는 도·농복합 지역으로, 고속도로와 도시철도, 바다와 내륙의 뱃길까지 고루 발달한 도시입니다. 간선버스와 지선버스가 서구 안의 동네에서 동네로 이동하는 대중교통이라면 도시철도와 고속도로, 뱃길은 서구를 벗어난 지역과 서구를 연결하는 대중교통수단입니다.

서구를 지나가는 고속도로에는 수도권제2순환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경인고속도로에서 이어지는 인천대로를 함께 꿈꿀 수 있습니다. 도시철도에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잇는 서울지하철 7호선과 인천 시내를 달리는 인천지하철 2호선이 있습니다. 또 서구에는 해운 시설인 북항이 있고, 운하인 아라뱃길이 있습니다.

서구의 교통망



고속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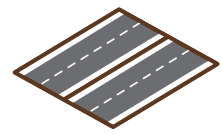
도시철도



뱃길



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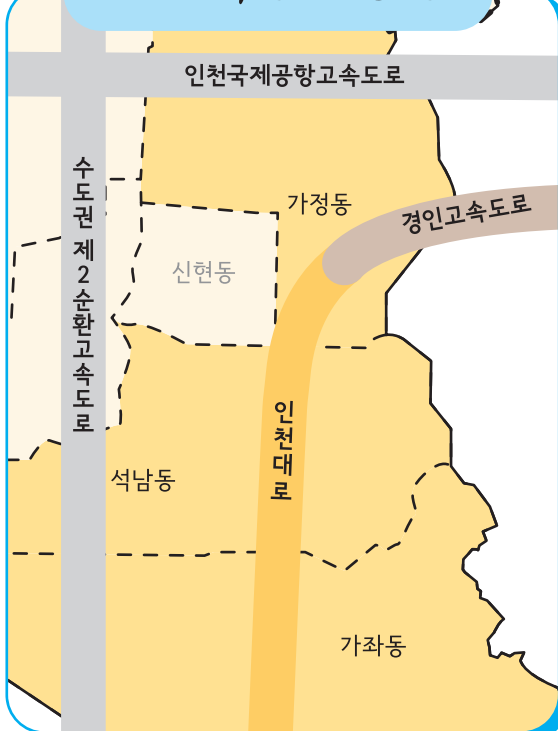


대로

서구의 산업단지

● 고속도로

서구의 고속도로와 인천대로



서구의 고속도로에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속도로는 아니지만, 과거에 경인고속도로 구간이었다가 대로로 전환된, 인천대로는 있습니다. 앞에서 대로와 로, 그 외 잘게 뻗어나간 길을 혈관에 비유했습니다. 대로는 동맥이나 정맥의 역할을 한다면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고속도로는 동맥에 견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철도 가운데 경부선은 대동맥과 같습니다. 그 외의 대로와 고속도로는 대동맥과 연결되는 동맥이나 정맥의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고속도로와 대로의 차이점은 고속도로는 보행자와 분리된 자동차 전용도로라는 점입니다. 대로처럼 보행자나 교통신호 같은 제약이 없어서 교통의 흐름을 방해받지 않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외의 자동차나 보행자가 접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고속도로는 철도와 공통점이 많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경기도 고양시를 연결하는 한국 최초의 민간투자사업 고속도로입니다. 또 섬과 육지를 잇는 도로로, 1995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2000년 11월 전 구간을 개통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을 기점으로 영종도를 빠져나오면 서구 청라동에 있는 북인천 나들목을 통해 육지로 진입하게 됩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인천국제공항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를 출입하는 사람들과 화물을 운송하는 고속도로로서, 항공로의 연장선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서구는 하늘길과 육지를 연결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구는 하늘길과 육지를 연결하는 지역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역할

2001년 3월 29일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공항서비스평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계 국제화물운송 2위(2021), 세계 국제여객운송 5위(2019)에 올라 있습니다. 각종 부대시설을 갖추고 공항과 다른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결과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역할은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편리한 교통은 인천국제공항의 장점이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공항 교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노선 지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노선에서 영종대교 휴게소, 북인천 나들목(북인천IC), 인천공항톨게이트(인천공항TG), 청라 나들목(청라IC)은 서구에 속한 구간입니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는 인천시와 경기도를 아우르는 고속도로입니다. 2017년 인천시와 경기도 김포시 구간을 처음 개통했으며, 수도권 외곽을 순환하는 광역도로망인 만큼 완전 개통까지는 시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지도를 보면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노선은, 해안이 가까운 서쪽으로 치우쳐 서구를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해안을 낀 원창동, 청라동, 오류동을 통과하는데, 서구의 해안 쪽으로는 공항과 항만, 산업단지 등의 시설이 주변 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구 밖인 김포시에서 오류동의 검단양촌나들목(IC)로 진입해 서구를 통과한 뒤 인천항을 두루 거쳐 남향에 이릅니다.

고속도로의 시설 가운데 검단양촌나들목(IC), 북청라나들목(IC), 남청라나들목(IC)는 서구가 소재지입니다.



김포-검단양촌IC-북청라IC-남청라IC-인천항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의 역할

인천시의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는 공항과 항만이 위치한 곳을 이동하며 다른 도시와 연결됩니다. 인천시, 그 가운데서도 노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서구가 중심이 되어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주변의 도시들과 발전 축을 구성해 나아가며 서울을 벗어난 독자적 생활 문화의 경제권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즉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는 서울 중심주의에서 벗어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의 교통망은 공항, 섬과 해양, 항만을 연결하면서 외국인 관광을 유치하고 도서·해양 관광을 발전시키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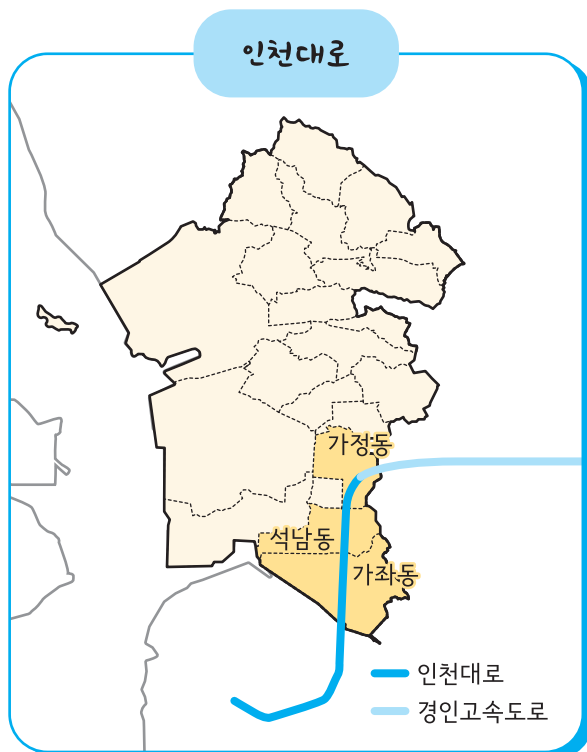
수도권 내외순환도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하여 서해안의 도시들과 연결되는 도로망이면서, 의정부~파주~일산~김포~검단~청라~인천항~송도~시화~수원을 연결합니다. 송도에서 안산 구간, 경기도의 북서부 구간과 남동부 구간, 세 군데가 미개통 구간이며, 전 구간이 개통되면 하나의 커다란 원을 그리는 순환 고속도로를 형성하게 됩니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가 수도권의 내순환 원을 그린다면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는 수도권 외곽을 넓게 순환하며 원을 그립니다.

<경인고속도로와 인천대로>

인천대로는 서구의 가정동과 가좌동을 지나며 인천시와 서울시를 잇는 도로입니다. 본디는 인천시에서 경기도 부천시를 지나 서울시에 이르는 경인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구 가정동의 서인천 나들목을 기준으로 미추홀구의 용현동까지는 대로가 되었으며, 서인천 나들목을 지나 서울시 양천구의 신월 나들목까지만 경인고속도로 구간입니다.

경인고속도로에서 인천대로로



2017년 12월 1일 경인고속도로 구간 가운데 '인천 기점~서인천 나들목'의 관리권이 인천시로 넘어오면서 이 구간은 '인천대로'(2018년 11월 2일 고시)가 되었습니다.

전환 당시 도화나들목(IC), 가좌나들목(IC), 서인천 나들목(IC) 세 곳이던 인천대로의 나들목(IC, 분기점)은 출입로를 곳곳에 만들어놓아 출입이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접근성이 좋아진 대신 일반화도로가 되면서 고속도로의 장점인 빠른 속도는 잃게 되었습니다.



● 도시철도

도시철도는 바쁜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교통수단입니다. 도시철도는 대규모 인원을 정확한 시간에 실어 날라 예측 가능하며 교통난을 해소해 줍니다.

서구를 지나가는 도시철도에는 인천지하철 2호선, 서울지하철 7호선, 공항철도가 있습니다. 인천지하철 2호선은 인천교통공사에서, 서울지하철 7호선은 서울교통공사에서, 공항철도는 (주)공항철도에서 운영합니다.

한편 인천지하철 2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의 청라 연장, 서울도시철도 5호선의 검단 연장, 서울도시철도 9호선의 공항철도 직결,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검단에서 고양시 일산과 서구 연장, 신도심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인천도시철도 순환 3호선 건설 등이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천지하철 2호선>

인천지하철 2호선은 2016년 7월 30일 개통되었습니다. 운행 구간은 서구의 검단오류역에서 시작해, 아시아드 경기장이 있는 아시아드경기장역과 주안역, 인천시청역 등을 거쳐 운연역까지 운행합니다. 인천지하철 2호선의 개통은 인천 시민의 생활이 개선되었습니다.

인천지하철 2호선의 역할

노선은 서구와 미추홀구, 남동구 세 개의 구에 걸쳐 있으며, 총 27개 역 가운데 17개의 역이 서구에 있습니다. 이것은 인천지하철 1호선이 서구를 거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건설한 결과입니다. 또 서구에 도시철도가 들어설 환경이 조성된 까닭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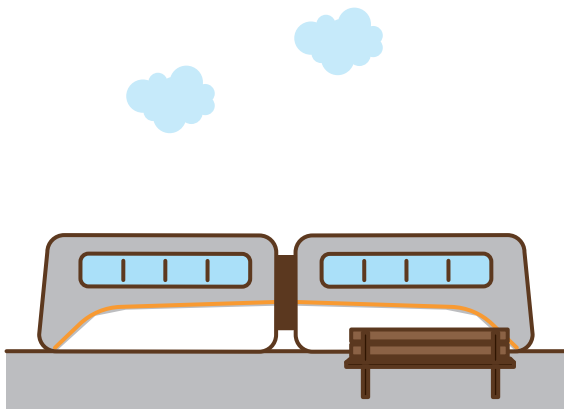
그런 만큼 서구를 관통하는 인천지하철 2호선의 개통은 인천 시민, 특히 서구민들의 생활을 한층 편리하게 바꿔 놓았습니다. 그동안 서구에는 신도시가 들어서고 인구가 대거 유입되면서, 지역이 몰라보게 발전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이 영종도에 건설되면서 서구를 통해 다른 지역과 연계될 필요성이 발생했습니다.

신속하고 규칙적인 지하철의 운행으로 서구의 마을과 마을은 물론, 서구와 서구 밖 도시로 이동하는 일이 이전보다 자유로워졌습니다.

인천지하철 2호선의 특색

인천지하철 2호선은 기관사가 없는 무인운전 체계로 운행되는 경전철입니다. 이것은 첨단 과학기술을 도입해 건설한 결과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2024년 10월 8일부터 인천지하철 2호선 전역에 비접촉(태그리스⁵⁾)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지하철 2호선 내부의 무인 시스템



5) 태그리스 :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승하차하는 교통 시스템

<공항철도>

공항철도는 2007년 3월에 김포공항역에서 인천국제공항역까지의 구간을 1단계로 개통했습니다. 2010년 서울역~김포공항역 구간을 2단계로 개통하면서 인천국제공항철도는 완전 개통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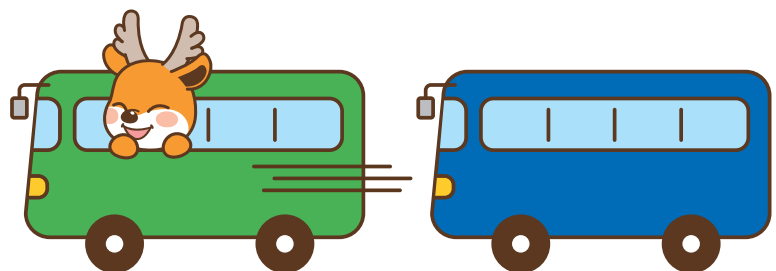


공항철도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교통의 한 축이며 직장인들의 통근 열차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공항철도는 일반열차와 직통열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개통 초기, 직통열차는 중간역을 모두 통과하였고 2단계를 개통하면서는 김포공항역을 포함한 모든 역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 계양역 등을 환승역으로 전환하고 다른 노선과의 무료 환승을 꾀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공항철도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공항철도는 서구를 포함한 인천 북부의 주민들에게 광역버스를 대신한 통근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공항철도가 정차하는 서구의 역은 검암역과 청라국제도시역입니다. 또 검암역은 인천지하철 2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으로, 서구 교통의 중심지로 발전하리라 기대됩니다.

우리 마을에서 가까운 공항철도 역은 역입니다.

우리 마을에서 가까운 공항철도가 다니는 역으로 가는 버스는

번입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서울지하철 7호선은 1996년 10월 장암~건대입구 구간 개통을 시작으로 노선을 연장해 나아갔습니다. 2012년 부평구청까지 개통하며 인천지하철 1호선과 연계되었고, 2021년 5월 석남으로 연장하여 서구를 지나는 인천지하철 2호선과 연결됩니다. 부평~석남 구간의 운영권은 인천교통공사에 있지만, 서울교통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의 역할



서울지하철 7호선의 현재 종착역은 석남역으로 인천지하철 2호선과 교차하고 있습니다. 2027년이면 7호선은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연장되어 서구에 7개 역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도시철도는 복잡한 도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획기적 방안입니다. 서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인천지하철 2호선에 서울지하철 7호선이 연장되면 서구의 교통은 훨씬 편리해질 것입니다. 신도시 건설로 늘어난 인구를 더욱 촘촘해진 교통망으로 실어 나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을에서 가까운 7호선 역은 역입니다.

우리 마을에서 가까운 7호선 역으로 가는 버스는 번입니다.

● 바다와 육지의 뱃길

서구는 1995년 검단지역이 편입되기 전까지는 서곶이라 부르던 지역이었습니다.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은 우리나라의 지형 특색을 말해주듯, 서곶은 서쪽 해안으로 길게 뻗은 땅 모양이었으며, 바다와 육지 경계에 완만한 갯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밀물 때면 바닷물이 들어와 주변에 흩어져 있던 섬들이 수평선 위로 보였습니다.



서구에는 바다와 육지에 모두 뱃길이 있습니다. 바닷길을 이용하기 위한 항만시설로는 북항이 있으며, 육지의 물길인 경인아라뱃길은 바다와 이어질뿐더러 뱃길에 달린 각종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여객터미널에서 신현원창동에 속한 세어도 선착장을 오가는 노선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북항>

인천시 서구에는 북항이 있습니다. 원창동 해안 매립지에는 다목적부두, 1부두부터 4부두까지 들어섰으며, 서구와 인접한 중구에 5부두를 비롯하여 만석부두, 화수부두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북항의 역할

북항은 인천항의 포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배후 항만시설입니다. 목재부두는 목재 수요가 급증하자 내항 갑문의 화물선 적체 현상을 해결할 목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북항에는 먼저 동국제강과 현대제철 등, 철강회사 소유의 철재부두가 들어섰고, 2007년 12월 목재부두가 완공되었습니다.

원창동 연안을 매립하여 건설한 목재부두 주변으로는, 드넓은 원목 야적장을 조성하여 효율성을 끌어올렸습니다. 목재부두의 안벽 길이는 450m로, 부두 수심이 12m이며, 2만 톤급 선박 2척이 동시 접안 가능하여 화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구 유일한 섬 세어도

세어도는 세루, 시루라고도 부릅니다. 면적 409,089㎡에 23가구 32명이 살면서 주로 농어, 송어, 새우를 잡으며 어업에 종사합니다.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은 풍경이 눈길을 끌며, 총 5.7Km의 둘레길을 따라 옛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을 방해하지 않는 한에서 어촌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세어도 선착장>



세어도는 서구의 서쪽 끝 바다에 있는 섬으로 신현원창동에 속합니다. 세어도를 왕복하는 배는 세어도 행 정서진호로,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서진호의 최종 정박지는 세어로로 경인항관리부두에서 탑승하면 세어도 선착장에 도착합니다. 세어도 가는 배의 출발지로는 경인항관리부두 외에 만석부두가 있습니다.

<서구에 남아있는 전통 교통의 흔적>



역참제와 구슬원

『신증동국여지승람』 제9권에는 부평도호부 관할의 역원인 ‘구슬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구슬원은 부평도호부에서 북쪽으로 약 10리 떨어진 곳, 현재의 검암동에 위치한 역원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중앙집권체제가 강화되면서 통치체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여러 제도가 생겼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역참제입니다. 역참제는 공문서를 전달하거나 물자를 운반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숙식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원을 설치했습니다. 원은 교통의 요지뿐만 아니라 깊은 산 속이나 험한 길가에도 설치되었습니다. 지형에 따라 평지에는 다소 멀리, 산악지대에는 가깝게 두었습니다. 퇴계원, 인덕원, 다락원 등 과거 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지명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대부분의 원은 문을 닫게 되었고, 대신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술과 밥을 팔며 잠자리도 제공하는 주막이 생겨났습니다. 19세기에 이르러서는 거의 모든 촌락마다 주막이 자리잡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로 민간에서 운영하던 주막이 역원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역참제는 폐지되었고 1871년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경인아라뱃길>

경인아라뱃길은 2009년 공사를 시작해 2011년 준공한 내륙의 수로입니다. 서해와 한강을 잇는 운하로 서울시와 경기도 김포시, 인천시에 걸쳐 있으며 사업은 K-water(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맡아 시행했습니다.



경인아라뱃길은 서구의 검암경서동과 오류왕길동을 거쳐 서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경인아라뱃길의 역할

경인아라뱃길은 서울시 강서구의 개화동에서 인천시 서구 오류왕길동까지 물길을 오가는 선박 운항로입니다. 주운수로 길이는 방수로 구간 14.2km를 포함하여 18km이며 폭 80m, 수심은 6.3m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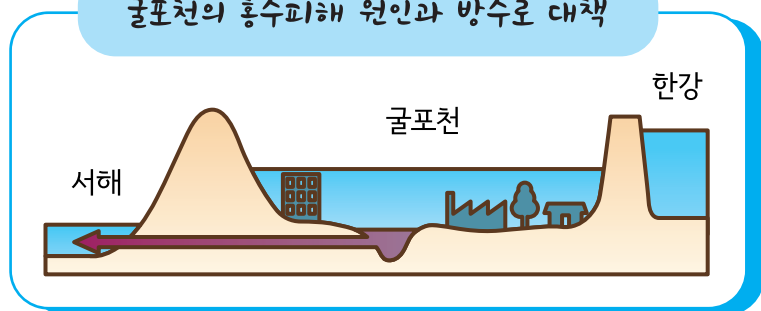
평상시에는 화물선, 유람선, 여객선, 요트, 보트 등 다양한 선박이 오가는 운하로 화물 운송은 기본이고, 여가를 즐길 시설도 들어서 있습니다. 한편 홍수가 발생하면 굴포천의 큰물을 서해로 방류하여 홍수를 예방하는 방수로 역할을 합니다.



굴포천의 홍수피해와 방수로

한강과 서해를 연결하려는 노력은 오랜 역사를 지녔습니다. 그러나 인력과 기술의 한계로 매번 실패하다가 1987년 굴포천 유역의 대홍수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커지자 방수로를 신설하여 홍수량 일부를 서해로 방류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굴포천 유역(인천 계양·부평, 경기 부천·김포 등)의 40%는 한강 홍수위 이하의 저지대입니다. 평상시에는 하천물이 한강으로 흐르나, 홍수가 발생하면 한강 수위가 굴포천 수위보다 4m 이상 높아 자연 배수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서해로 직접 방류하는 방수로를 건설하여 홍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굴포천의 홍수피해 원인과 방수로 대책



경인아라뱃길의 시설

아라뱃길은 선박 운항로의 기능을 합니다. 뱃길을 따라 각종 레저시설도 마련하여 시민의 여가생활 장소로 꾸며 놓았습니다. 뱃길 위로 총 16개의 다리가 놓여 있으며, 서구에 놓인 다리는 청운교, 백석교, 시천교입니다.



출처 : 공항철도 홈페이지

주요 시설에는 시천나루선착장, 경인아라뱃길여객터미널과 아라타워, 경인항 해상교통관제센터 등이 있으며, 자전거 전용도로가 뱃길을 따라 이어집니다.



출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3) 교통수단의 변화

인류는 오랜 세월 도보로 이동했습니다. 이동 수단의 획기적 발명품인 바퀴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도로와 교통체계 등의 각종 인프라가 구축된 뒤에야 인류 문명의 혁명적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교통의 발달은 근대와 전근대로 나뉘볼 수 있으며 근대 교통수단의 발달은 자동차와 철도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 교통수단의 발달과 생활의 변화

전근대의 교통수단과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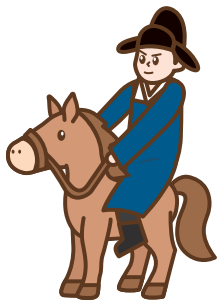
전근대의 교통수단과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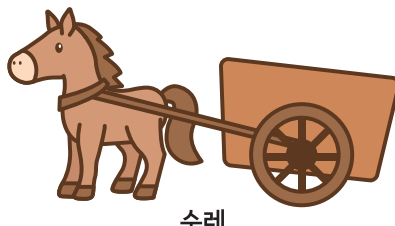
타지마할에 간 삼장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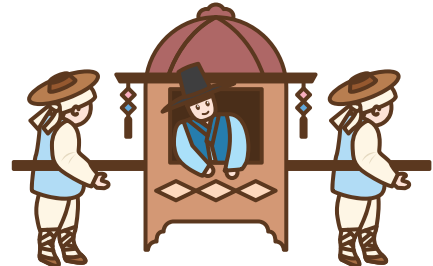
메카나 예루살렘, 티벳사원을 방문하는 순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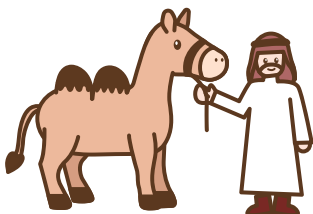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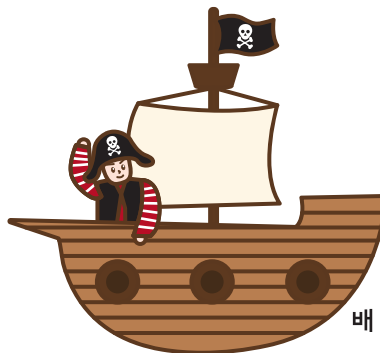
수레



가마



낙타



배



도보

인류 최초의 교통수단은 도보였습니다. 불일이 있어 먼 곳까지 이동하려면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걸어야 했습니다. 바퀴가 발명되어 수레를 제작하던 시절에도 신분이 높지 않은 사람들은 며칠을, 때로는 그 이상을 걸려 도보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은 마을을 떠나서 여행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은 해외를 자유롭게 다니고 지구 반대편도 방문하지만, 옛날에 여행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상상할 수도 없는 큰일이었습니다.

옛날에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소수의 사람만이 멀리 이동했습니다.

말이나 낙타, 코끼리 같은 야생 동물을 길들여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나 하천 또는 바다에서 배를 몰고 다니는 이들은 상인이나 특별한 신분층이었습니다. 국가의 힘이 세지고 역참제도가 설치되어 관리들이 지방에 파견되던 시절에도 평범한 사람들은 걸어 다녔습니다. 과거 응시생이 괴나리봇짐⁶⁾을 메고 산 넘고 물 건너 한양으로 가듯이 말이죠.

이처럼 여행의 대중화는 교통수단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교통수단 못지않게 외부인을 경계심 없이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환경도 여행의 중요 요건입니다. 생활의 단위가 마을 중심이던 시대, 또는 지금도 외부인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마을에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경계심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들도 상식이 아니던 시대가 있었으며 그런 상식을 변화시키는 조건에는 교통도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교통과 교통수단은 사람들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통의 발달은 생활을 변화시켰습니다.



바퀴의 발명

바퀴는 기원전 4000년에서 3000년경 발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처음 쓰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입증된 사실은 없습니다. 바퀴는 인류 문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중요한 발명품임에도 실상은 오랜 세월 실용화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는 일이 반복되면 길이 파이고, 이렇게 망가진 길을 제때 닦아놓지 않으면 수레가 길에서 전복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 비라도 내리면 바퀴는 진흙 구덩이에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용하더라도 가까운 곳을 왕복하는 데 쓰였을 뿐, 짐은 사람이 지거나 말이나 소에 직접 실어서 운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바퀴를 제대로 이용하려면 도로가 잘 닦인 시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후에 고대 로마에서는 바둑판 모양의 도로를 설계하고 닦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도 생겼습니다.



6) 괴나리 봇짐 : 걸어서 먼 길을 떠날 때에 보자기에 싸서 어깨에 메는 작은 짐

● 근대의 교통수단

고대에 발명된 바퀴는 오늘날 자동차, 기차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륜마차>

근대의 교통수단인 자동차를 발명한 것은 유럽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자동차 이전에 도로 위를 달린 교통수단은 마차였습니다. 만들기도 운전하기도 쉬운 이륜 마차에서 시작해 차츰 사륜마차로 넘어갔습니다. 사륜마차란 바퀴가 넷인 마차입니다.

그런데 사륜마차가 늘어나고 승객을 실어 나르는 사륜 승객 마차까지 인기를 끌자 도로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튼튼하지 못한 도로는 철제 바퀴와 말 발자국에 파였고 배수가 안 돼 땅이 질퍽하게 변했습니다. 행여 포장한 도로라도 지속적으로 포장을 유지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또 있었는데 바로 말똥의 처리였습니다. 이동하는 말이 도로 여기저기 배설하는 상황은 아주 골칫거리였습니다. 어찌 되었든 마차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되면서 도로의 형편은 서서히 개선되었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은 직선으로 펴고, 좁은 길은 넓게 만들었으며 도로 포장 기술도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18세기 들어 증기기관이 개발되고 개량되면서 이동 수단인 자동차와 기차 등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때 균형을 잡기 위해 이륜차 앞에 방향 전환용 바퀴를 단 삼륜자동차도 나왔습니다. 불편하고 비싸서 실용화되지는 않았지만 삼륜자동차의 앞바퀴를 돌리기 위해 만든 손잡이는 현대 자동차의 핸들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무게를 줄이고 방향을 바꿔도 안정적인 네 바퀴 자동차로 개선해 가면서 자동차는 발전을 거듭해 오늘날의 대중교통수단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벤츠 페이던트 모터바겐



출처 : 세계 자동차&피아노 박물관

트레비식 런던증기차



출처 : [세상을 바꾼 발명과 혁신] 책

벤츠 벨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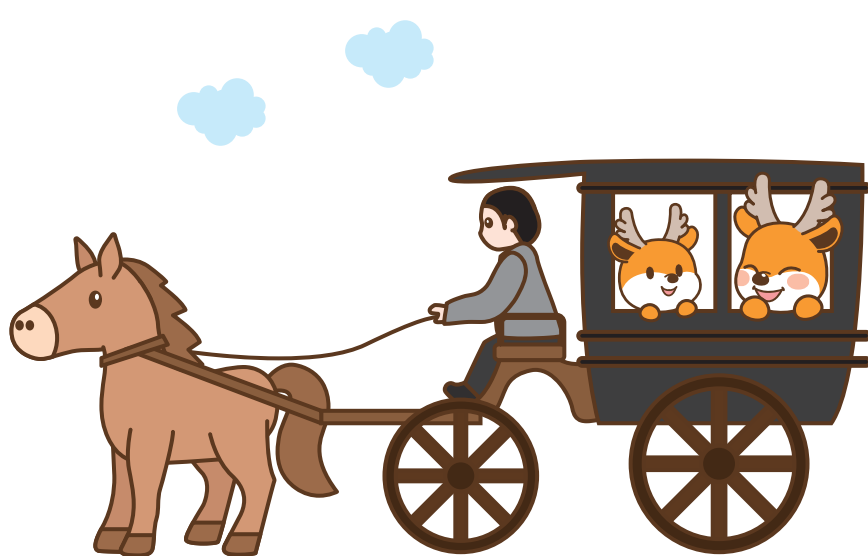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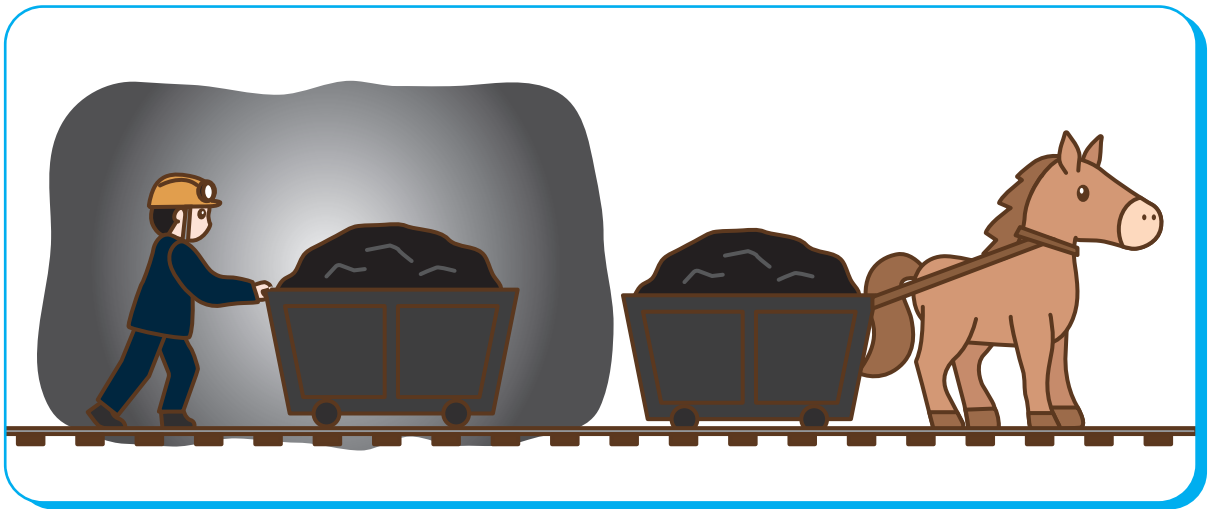


출처 : [자동차 대백과] 책

<기차>

바퀴를 단 수레를 오랫동안 이용한 곳은 광산이었습니다. 철도를 선도한 분야도 광산업계였습니다. 영국의 광산업자 헌팅턴 보몬트(Huntingdon Beaumont)는 1604년 처음으로 지하마차도를 깔아 석탄을 광산 밖으로 옮겼습니다. 광산 안에서는 광부가 광차를 밀고 철로에서는 말이 광부를 대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증기기관이 개발된 뒤로는 광차가 선로 위를 이동하는 것과 같은 원리가 이용되었으며 최초의 철도는 항구와 공업도시를 잇는 리버풀앤맨체스터(Liverpool & Manchester, 1830년 개통) 노선이었습니다.

개별 운송 수단인 자동차와 트럭이 산업화한 국가에서 급속도로 늘어났다면, 대량 운송 수단인 철도는 산업화가 진행되는 근대 초기에 대량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철도를 건설하려면 광범위한 땅과 막대한 자본, 노동력의 동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철도를 보통 근대의 상징이라고들 합니다.



● 서구 교통의 미래

근대는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이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더 많은 사람을 태우고 더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교통수단을 개발했는데, 그게 바로 대중교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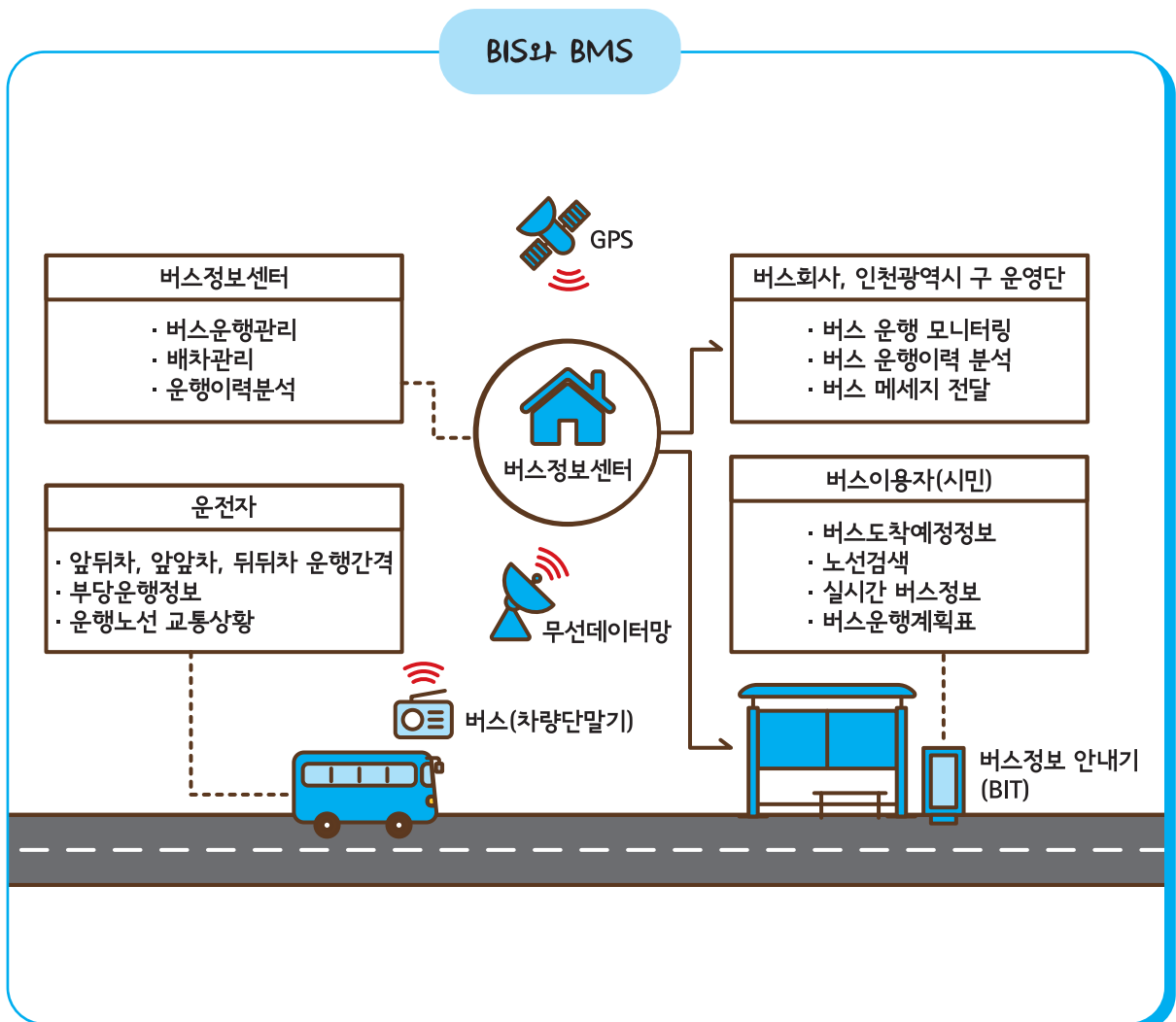
똑똑한 버스 이용 서비스체계

인천시는 BIS와 BMS라는 버스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체계에 최첨단 IT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BMS와 BIS는 버스정보제공시스템(Bus Information System)과 버스운행관리시스템(Bus Management System)을 뜻합니다.

버스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은 누구나 정류장의 안내 모니터나 모바일 앱을 통해 버스의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용하려는 버스의 현재 위치와 도착예정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버스정보안내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ARS나 SMS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운수회사와 조합은 운행 중인 모든 버스를 인터넷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이를 통해 배차관리와 운행지시를 하면서 운행관리 서비스를 합니다.

이러한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는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을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청라국제도시의 교통체계, BRT와 GRT

청라국제도시의 새로운 교통체계 BRT와 GRT는 서구 교통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BRT(Bus Rapid Transit)는 도로에 버스만 다니는 전용도로를 만들어 일반 차들과 분리한 간선급행 버스체계를 말합니다. GRT(Guided Rapid Transit, 유도고속차량)는 도로 위의 전차를 개선한 궤도형 버스입니다. 두 체계 모두 버스에 도시철도의 성격을 더한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은 교통체증을 해결해줄 방안이지만 막대한 자본이 들어갑니다. BRT, GRT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지상의 철도로는 전차가 있었습니다. 전차는 자동차가 널리 보급되면서 사라지는 추세였지만 최근에 경전철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왔고 청라의 BRT와 GRT처럼 버스와 결합한 시스템도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교통수단이 다양한 방법으로 결합하면서 미래의 대중교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RT



출처 : 인천교통공사

GRT




출처 : 인천교통공사

인천 서구의 생활

길과 교통으로

인 쇄 2024년 11월 25일
발 행 2024년 11월 25일

발 행 처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464번길 15(가정동, 쓰리엠타워) 7층
연 락 처 032-582-4341
기획총괄 서덕현
기획운영 조혜린, 정다희

자 문 최정학(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집 필 김경은(김경은북코칭연구소장)
김희주(인천역사교육연구소장)
감 수 박선화(인천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

만 든 곳 아츠비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3로 120, 707호
연 락 처 070-8657-2580~1

I S B N 979-11-977029-4-5

※ 이 책은 「2024년 지방문화원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인천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